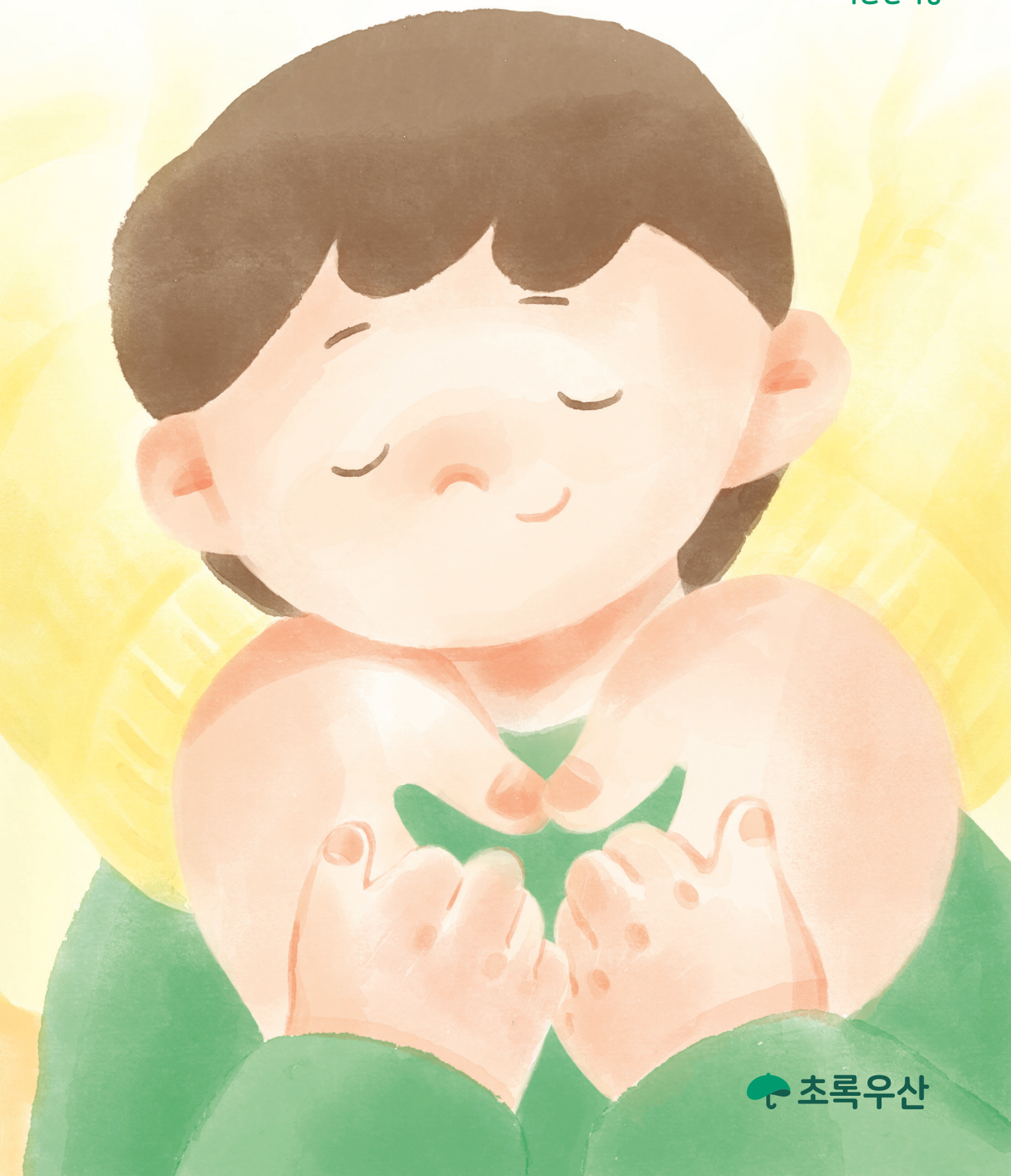


원가정 관계개선과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가이드북

가정위탁
지원센터용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

원가정 관계개선과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가이드북

가정위탁지원센터용

여는말

**먼저 실천현장에서 보호대상아동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직원 분들에게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3항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원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구축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동안 원가정이 기능을 회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위탁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종결사유 중 '원가정복귀'는 13.5%로 미국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원가정복귀율 70%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 원가정복귀는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정착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및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 아동보호체계가 공공중심으로 전면 개편되고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과 정기적인 교류가 사례관리 필수 과정이 되며 원가정복귀율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실천현장의 원가정 개입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보호 대상 아동의 원가정복귀율 향상 및 아동-원가정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구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만나야 하는 아동과 가족이 눈앞에 있는 실천현장에서는 완전한 구조적, 제도적 환경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초록우산에서는 현장의 원가정 개입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지지체계 관련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양육시설 대상 원가정 관계 개선과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가이드북(2022)을 발간하였으며, 시범적용을 통해 기관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북 발간의 필요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초록우산 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TF와 그룹슈퍼비전을 운영하여 기관유형별 업무 성격과 프로세스를 고려한 가이드북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당사자 중심에서 사례관리 개입과정을 설명하여 기존 전문가 중심 관점 전환을 돕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실천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상세하게 담아 사회복지사의 고민의 실마리를 찾아 풀어 가도록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가이드북이 사례관리 및 원가정 개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노력과 도전이 당사자들의 긍정적 변화에 힘이 되고, 원가정의 긍정적 변화는 보호대상 아동들의 자립에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실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어린이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소개

언제나 어린이 곁에, 초록우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은 늘 어린이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동중심
아동을 최우선으로 두고 항상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는 아동중심




진정성
투명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게 쌓은 신뢰



전문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전문성



도전정신
새로운 문제를 선도적으로 발견하고 새롭게 해결해 나가는 도전정신



목차

I 가이드북의 특징 및 활용

- 009 1. 특징
- 2. 활용

II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 지원에 대한 이해

- 011 1.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 지원의 필요성
- 013 2.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에 도움되는 실천의 공통점
- 014 3.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 실천에 유용한 실천관점과 방법
 - 실천관점
 - 실천에 유용한 방법

★ 동화

- 022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나무 이야기>

III 원가정 관계 개선과 원가정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 026 1. 초기 만남
 - 실천에 유용한 필수질문
 - 진행 예시(위탁을 철회하는 경우 |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
- 044 2. 역할 나누기
 - 실천에 유용한 필수질문
 - 진행 예시(진영이네 | 민지네)
- 062 3. 역할 수행하기
 - 실천에 유용한 필수질문
 - 프로그램(원가정 관계 개선 프로그램: 다시, 봄!)
 - 진행 예시(진영이네 | 민지네)
- 110 4. 역할 종료하기
 - 실천에 유용한 필수 질문
 - 프로그램(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다시, GO!)
 - 진행 예시(진영이네 | 민지네)

IV 다양한 상황에서 강점관점해결중심 접근으로 개입하기

- 124 1. 역할 수행하기에서 다양한 상황

아동

- ① 원가정 보호자를 거부하는 아동
- ② 위탁가정을 거부하는 아동
- ③ 원가정 보호자 존재를 모르다가 알게 된 아동

원가정 보호자

- 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원가정 보호자
- ② 상황에 변화가 있는 원가정 보호자
- ③ 위탁보호자에 관해 불평하는 원가정 보호자
- ④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는 없고, 아이만 만나려고 하는 원가정 보호자

위탁가정 보호자

- ① 아동을 계속 키우고 싶다는 위탁가정 보호자
- ② 아동에 대한 불평과 갈등이 있는 위탁가정 보호자
- ③ 원가정 보호자를 믿지 못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 147 2. 역할 종료하기 및 종료 후 다양한 상황

- ① 위탁종료 후 위탁가정을 그리워하는 아동
- ② 원가정 복귀 준비 중에 복귀를 번복하는 원가정 보호자
- ③ 출소 예정인 원가정 보호자
- ④ 갑자기 나타나서 아동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원가정 보호자
- ⑤ 복귀 준비를 회피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 ⑥ 위탁 종료 후 우울해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I

가이드북의 특징 및 활용

1

특징

첫째, 사례관리 과정을 당사자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기존에 나와 있는 사례관리 매뉴얼들은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사례관리 과정으로 제시함으로써 관점과 개입과정의 패러다임이 달랐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례관리 과정을 당사자 중심으로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실천과 사례관리 개입과정을 일관된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 사례관리 이해를 돕기 위해 과정을 동화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실천가가 당사자와 일할 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 이를 위해, ① 각 과정에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 질문을 제시하였다.
②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와의 대화를 제시하였다.
③ 각 과정의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행 예시를 제시하였다.

2

활용

첫째, 모든 사례에 제시한 유용한 필수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당사자와 일할 때, 실제 각 사례마다 다르게 진행되므로 실천가 자신도 모르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제시된 질문들은 실천가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원가정 중심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개입이 진행된 사례라 하더라도 본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사례관리 과정에 해당되는 유용한 필수 질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질문에 익숙해지기 위해 적어서 그대로 활용한다.

원가정 중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려면 실천가가 질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질문에 빨리 익숙해져야 한다. 자신이 생각한 질문을 사용하지 말고, 각 과정 사례 예시에서 제시된 질문을 종이에 적어서, 당사자와 면접 진행 시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한다.

II

II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 지원에 대한 이해 ¹⁾

1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 지원의 필요성

-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과 원가정 간 관계 개선과 원가정 복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아동권리와 인권을 논의해 왔던 국제규범과 국내법, 그리고 다수의 관련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이 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제9조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기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분리된 아동은 아동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서도 양육에 대한 모든 결정은 아동이 원가정과 연락하고 잠재적 재결합을 꾀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제11조),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가능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제14조)고 규정하면서, 원가정의 중요성과 원가정과 재결합을 대안양육에 대한 일반원칙과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은 가능한 한 가정과 비슷한 소규모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며, 목표는 일시적인 양육을 제공하면서 아동의 가족 재결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제123조)을 명시하고 있다.
- 유엔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은 구체적인 원가정 지원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 제35조에서 가족 지원과정에서 가정방문과 다른 가족과의 만남, 사례회의 등 다양한 상호보완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가족 내 유대감 강화와 지역사회 내 가족의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 201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으며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권리, 부득이하게 대안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배치보다는 가족적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강조한다. 제22조에서는 아동이 부모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받거나 그러한 돌봄을 받도록 신속히 복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안적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시설 배치보다 가족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호 조치를 촉진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1) 이 부분은 노혜련·김윤주·김수영·윤민화·정선옥(2022) 「원가족 관계개선과 원가정복귀프로그램 가이드북」 초록우산·서대문구청·송실대학교·마실, 8~15의 내용을 발췌·인용하였음.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도 원가정 보호와 원가정 복귀 지원 원칙을 명시하는데,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천명하는 원가정 보호와 지원 원칙은 아동이 자신이 출생한 원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아동은 가족과 함께 있을 권리가 있으며, 가족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관여해야 하고, 모든 가족은 강점과 능력이 있고 문제 있는 가족도 변화할 수 있다(Pecora et al., 2010)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 아동에게 원가정이 중요한 것은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하며 지속해서 상호 작용하는 인간관계로서, 사회적 존재로 발달하는 아동의 자아 형성은 물론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유안진·만하영·권기남, 2001; 박은미, 1999). 또한, 원가정과 친인척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아동복지 서비스 일시 대안양육서비스(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의 목적은 원가정의 양육기능 회복을 도와 가능한 한 빨리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Costin, Bell & Downs, 1991). 이에 미국에서는 대안양육 서비스 기간이 가능하면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9년 말 기준 대안양육 체계 내 아동의 평균 보호기간이 1년 7.6개월(Children's Bureau, 2020)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 6년(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공동생활가정 3년 4개월(김형태, 2010), 양육시설 11년 2개월(이혜연 외, 2007)로 나타나 훨씬 더 길어 변화가 필요하다.
- 친생부모가 계속해서 시설에 방문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원가정에 복귀할 확률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Davis et al., 1996), 시설보호 이후 원가정 방문과 가족과 교류한 경험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예측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Leathers, 2002).
- 아동은 원가정과 물리적으로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부모, 친인척과 교류하며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Thoburn, 1994; 정선옥, 2002). 또한 원가정과 교류하면서 경험하는 관계와 지원이 긍정적이면 시설 부적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원철·이화명, 2014).
- 시설보호 기간 중 보호자를 만난 적이 없는 아동은 퇴소 후에도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시설에서도 퇴소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므로 아동은 퇴소 이후 온전히 혼자 남게 된다(신혜령·박은미·강현아, 2008). 반면, 시설에 있는 동안 원가정과 지속해서 자주 만난 아동은 퇴소 후에도 원가정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고, 퇴소 전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권지성, 2007).

- 영국에서 보호종료아동 중 탄력적으로 잘 살아가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교한 연구 결과, 전자가 후자보다 원가족과 함께 살았을 때는 물론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받았을 때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Stein, 2012).
- 시설보호가 종료된 이스라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경제적 수준과 주거 안정은 어머니의 지지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고(Sulimani-Aidan et al., 2013),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긍정적 관계는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쳤다(Dinisman et al., 2013).
- 미국에서 질적연구에 참여한 18~21세 위탁보호 청소년 20명도 주변 사람 중 원가정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그들 삶에 없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형제자매를 특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Singer, Berzin, & Hokanson, 2013). 또한, 시설보호 중 아동의 원가정과 친인척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보호종료 후 가족의 지지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de, 2008).
-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일시 대안양육 체계에서 보호받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려면 원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의 분리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고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재결합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아동이 다시 대안양육 체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가정과 재결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입양 등을 통해 아동에게 영구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해 주거나 원가정이 없는 아동에게는 대안 가정을 연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에 도움되는 실천의 공통점

기존 연구에서는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도움되는 실천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원가정, 사정과 사례계획, 서비스, 지역사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원가정

- 원가정이 사례계획과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
- 아동과 보호자 간 충분한 정기적인 만남
- 친인척을 찾아 아동과 보호자를 돕게 함

사정과 사례계획

- 원가정 복귀를 가장 바람직한 영구보호의 목표로 한 접근
- 아동과 가족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한 강점과 욕구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활용
- 아동과 가족이 원하는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사례계획

서비스

- 아동과 가족의 개별화된 욕구 충족에 실제로 도움 되는 서비스의 제공
- 실천가는 아동, 원가정과의 충분한 의견 교류, 솔직한 의사소통, 서로 합의한 활동을 통해 가족과 협력 관계 유지
- 원가정 복귀 후 가족 재결합과 재적응을 돕는 사후관리 서비스
-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에 관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서비스 목표 공유와 협력

지역사회

-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할 지역사회 내 양육 멘토와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연계
- 재결합한 가족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재결합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내 기관의 원가정 지원

3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 실천에 유용한 실천관점과 방법

1) 실천 관점

실천가가 원가정 관계 개선과 복귀를 지원할 때 아동과 가족, 주변 환경, 사회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실천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본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사례관리 실천관점으로는 '성인중심주의의 극복 및 아동권리기반의 실천'과 '가족중심 실천'에 기반하였으며, 실천관점과 방법으로는 '강점관점 해결중심 접근'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다.

(1) 성인중심주의의 극복 및 아동권리기반의 실천

- 성인중심주의의 극복(Combating Adultcentrism)이란 아동을 어른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Petr, 2004). 성인중심주의 관점에서 아동을 바라볼 때, 어른은 아동의 욕구와 능력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아동과 의사소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른은

아동이 호기심이 많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때로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으로 판단하고 아동의 특성과 강점을 간과할 수 있다(Petr, 2004).

- 성인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아동을 대하면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Petr, 2004). 아동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과 선택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로 어른의 기준에서 최선이면 아동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학대받은 아동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부모와 분리해 위탁가정과 시설 등에 배치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위탁보호 아동 중 위탁가정을 결정할 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위탁가정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sh & Gordon, 1982).

- 성인중심주의의 사고를 극복하려면 어른은 먼저 아동을 아동 자체로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때 아동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아동 수준에 맞는 말을 사용하고, 간식을 제공하거나 놀이를 하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 아동이 최대한 관여하게 해야 한다.

- 아동권리기반의 실천 관점에서 원가정 복귀는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다. 아동권리기반 접근은 아동을 도움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자기 삶의 주체인 동시에 아동의 생각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즉, 아동을 중심에 두며 아동을 권리주체자로서 인식하고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 사업, 기관의 운영은 아동의 권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인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기반하여 아동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동과 함께 선택하고 아동의 참여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기관 실무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동의 보호자와 유관기관과 함께해야 한다.

(2) 가족중심 실천

- '가족중심 실천(Family-Centered Practice)'은 '아동을 도우려면 가족도 함께 도와야 한다는 관점'으로, 가족을 개인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체계로 인식하고, 가족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가족의 강점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다(Petr & Allen, 1997).

- 가족중심 실천의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중심 실천의 초점 단위는 가족이다. 가족은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환경이므로, 가족의 변화가 있어야 아동의 변화를 원활히 이끌 수 있다(Petr, 2004).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동이 가족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둘째,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선택하게 한다. 가족은 실천가와 의사소통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실천가는 실천 과정에서 가족을 서비스 소비자인 동시에 최종

의사결정자로 인정해야 한다(Petr, 2004). 가족의 참여와 결정에 대한 존중은 가족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가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Bailey, Raspa, & Fox, 2012).

- 셋째, 실천가는 강점관점을 토대로 실천해야 한다. 가족을 초점 단위로 보고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먼저 가족의 잠재된 힘과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실천가는 가족이 누구보다 아동을 잘 알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은 강점과 자원이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일해야 한다(Saleebey, 2006).

(3) 강점관점 해결중심 접근

- ‘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이란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서 실천가가 당사자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드러내어 활용하려는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Saleebey, 2006). ‘강점관점’ 실천에서는 당사자의 변화는 이용자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실천가가 하는 모든 노력은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를 알아내고, 그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사용할 당사자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육성하고 탐색·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Saleebey, 2009).
-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강점관점을 지닌 실천가는 좀 더 아동중심, 가족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다. 아동을 미숙한 존재로 여기는 성인 중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에게도 문제 해결 능력과 강점이 있다고 보며,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도 실천가 자신이 아닌 아동과 그 가족임을 믿게 된다. 이런 실천가는 치료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아동과 관계를 맺을 것이며, 아동·가족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활용할 자원과 강점을 함께 발견하고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보건복지부·솔루션센터, 2006; Saleebey, 2006).
- 강점관점 실천에서는 실천가가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아동과 가족이 원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능력과 자원에 집중하며, 아동과 가족이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 즉, 강점관점 실천은 문제의 원인을 찾은 후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문제중심 실천과 달리 서비스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를 당사자의 강점과 능력, 자원을 활용해 만들어 가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Petr, 2004).
- 강점관점과 같은 관점과 원리를 공유하는 해결중심 접근은 당사자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접방법을 제시해 준다.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실패와 결함보다는 당사자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들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해 변화하게 돕는다(노혜련·허남순 역, 2015).
- 해결중심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또한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법을 구축해 나가게 원조하는 데 사용할 질문을 주축으로 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개발해 강점관점 실천을 현장에서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Weick, Kreider & Chamberlain, 2006).

- 해결중심 접근에서 실천가는 당사자가 원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을 당사자와 함께 모색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일상에서 일어난 예외(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실천에 유용한 방법

(1) 예외에 관한 질문

-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항상 예외(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가 있다고 보고 있다. 드 셰이저(de Shazer, 1985)는 ‘예외란 당사자의 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노혜련·허남순역, 2015:132 재인용)
- 가정위탁 보호자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외에 관해 묻는 게 필요하다. 실천가는 질문할 때 당사자에게 항상 예외가 있다는 전제로 질문해야 한다.
- 예외에 관해 질문하면 당사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생활에서 좀 더 나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다르게 상호작용 했었다는 걸 알게 된다. 당사자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다시 생활에서 예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누구나 안 하던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었던, 이미 했던 걸 하기가 쉽다. 따라서 예외를 잘 활용하면 당사자가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며, 실천가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유용하다.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게 하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임을 인식하게 도울 수 있다.

(2) 미래에 관한 질문

- 해결중심 접근은 당사자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미 일어난 과거는 바꿀 수 없다(물론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 원가정 보호자에게 위탁하려는 상황에서 미래에 자신이 어떤 보호자이고 싶은지 그려보게 하면, 자신과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고 위탁기간 동안에도 자신이 바라는 미래가 되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따라서 미래에 관한 질문은 원가정 보호자-아동-위탁가정 보호자가 원가정 복귀를 위해 위탁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방향잡이 역할을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3) 척도 질문

- 이것은 숫자를 사용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 생각한 것을 의미 있게 표현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게 도울 수 있다(노혜련·허남순역, 2015:137 재인용). 척도질문은 숫자뿐 아니라 아동에게는 블록이나 얼굴표정 그림 등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 질문은 당사자의 상황, 해결가능성, 자신감, 나아진 정도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척도질문에 답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척도질문은 개입 과정 내내 사용하면 역할 종료시기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4) 대처 질문

-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질문은 무기력하거나 해도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진 당사자에게 힘든 상황을 견뎌 오고 있고, 그것을 견디는 데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게 할 수 있다(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견디는 힘을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어떻게 쓸 것인가 모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사자가 해온 것들을 실패로만 들지 않고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대처질문은 칭찬의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한번 사용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5) 관계성 질문

- Mead(1934)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달라지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언급한다고 하였다(노혜련·허남순역, 2015:62 재인용).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질문은 당사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관계성 질문은 일반적으로 '○○에게 물어 보면~' 등으로 질문하는데 자세한 예시는 사례예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6) 칭찬

-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 친절하고자 하는 동기(노혜련·허남순역, 2015:46 재인용) 또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건네는 특성이 강하다면, 칭찬이란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칭찬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칭찬이 내가 하고 싶은 좋은 말은 아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 근거해서 효과적인 칭찬을 하면 당사자들은 자신을 새로운 면을 인식하기도 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변화의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칭찬의 종류에는 '대단하시네요', '애쓰셨네요' 등과 같은 직접 칭찬이 있으며 다음은 질문으로 하는 간접 칭찬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셨나요?' '와!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와 같이 질문을 통해 칭찬을 하는 것으로 직접 칭찬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이같이 간접 칭찬을 하면 당사자 자기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하지 않기' 대신에 '~하기'

- 당사자들이 '~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 대신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와 같이 '~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당사자가 성공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우리는 '~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을 하는 것'이 더 쉽다. 예를 들면 "늦게 다니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그럼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럼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는 당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실천가는 칭찬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8) 그렇게 보는 좋은 이유 / 그럴 수밖에 없는 좋은 이유

- 당사자가 일반적인 규범이나 생각 등을 벗어난 행동이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 "나는 잘 모르지만... (보호자/아동)은 그렇게 보는(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이유가 있을 텐데..."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실천가가 당사자를 '문제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궁금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전달할 수 있다. 그럼 당사자는 자신이 이해받는다느 느낌 수 있으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곤 한다.

(9) 당사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 당사자와 대화할 때 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실천가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자칫 당사자들을 불편하게 하기 쉽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천가가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지 않다고 비춰질 수도 있다. 때로 당사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 당사자와 빠른 라포 형성에도 매우 유용하다.

동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나무 이야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나무 이야기

아동나무는
원가정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동나무가
원가정 땅에서 자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가정 땅은 아동나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자라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아동나무가 잠시 다른 곳
에서 자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탁센터는
이런 사정이 있는 아동나무를 돕고 있습니다.
위탁센터는 원가정 땅의 사정을 듣고 즉시 아동나무
를 옮기지 않고 원가정 땅에서 아동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지, 혹은 반드시 옮겨야 하
는지를 알아봅니다.



위탁센터의 도움으로 어떤 원가정 땅은
아동나무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원가정 땅은 회복되는동안 아동나무를 다른 곳
으로 옮겨서 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 위탁센터는 원가정 땅과 의논해서 아동나무
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위탁센터는 아동나무를 옮길
위탁화분을 찾습니다.



위탁화분을 찾은 위탁센터는 아동나무가
지내게 될 위탁화분에 원가정 땅 흙을 잘 배합해
섞습니다. 그래야 아동나무가 위탁화분에 있더라도
다시 원가정 땅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테니까요.



위탁센터는 아동나무가 위탁화분에서 지내는 동안,
원가정 땅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살피고,
아동나무가 위탁화분에서 적응하면서도
원가정 땅을 잊지 않고 지내도록 돕습니다.



원가정 땅이 아동나무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동나무는 원가정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위탁센터는 위탁화분에 있는
아동나무가 원가정 땅에 다시 적응하게 돕습니다.



위탁센터의 도움으로
드디어 아동나무는 위탁화분에서
원가정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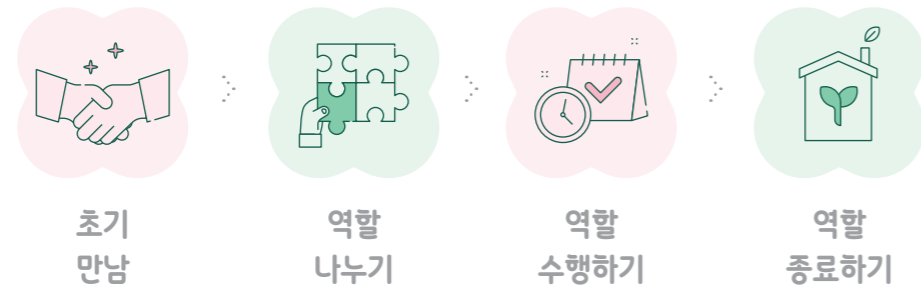
원가정 관계 개선과 원가정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 026 1. 초기 만남
 - 실천에 유용한 필수질문
 - 진행 예시(위탁을 철회하는 경우 |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
- 044 2. 역할 나누기
 - 실천에 유용한 필수질문
 - 진행 예시(진영이네 | 민지네)
- 062 3. 역할 수행하기
 - 실천에 유용한 필수질문
 - 프로그램(원가정 관계 개선 프로그램: 다시, 봄!)
 - 진행 예시(진영이네 | 민지네)
- 110 4. 역할 종료하기
 - 실천에 유용한 필수 질문
 - 프로그램(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다시, GO!)
 - 진행 예시(진영이네 | 민지네)

원가정 관계 개선과 원가정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가정위탁은 일정기간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초점을 둔다. 현장에서 가정위탁의 취지에 맞게 사례관리를 진행하려면 실천²⁾은 원가정 보호자와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환경이 위탁가정이 훨씬 나은 상황이므로 원가정 보호자가 원가정 복귀를 주저하거나, 위탁가정에서 기간연장을 원하는 경우 실천가는 종종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한다. 그러나 실천가는 가정위탁 취지에 맞춰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한쪽 체계로 기울어지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동에게 최선이 되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

기존의 매뉴얼에서 실천가 중심의 사례관리 과정을 제시하였다면,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한 관점과 실천방법으로 어떻게 가정위탁 사례관리과정을 진행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사례관리 과정으로, 본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사례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만남

공공기관에서 위탁 결정 후 의뢰해서 원가정 보호자를 만나고 나면 사례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원가정 보호자가 위탁을 철회하고 원가정보호를 하겠다고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위탁이 되는 경우이다.

2) 현장에서는 '상담원' 호칭이 일반적이긴 하나, 상담원이라는 호칭이 주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보다 확대된 실천의 의미를 담아 '실천가'라고 표기하였다.

원가정 복귀에 초점을 둔 개입을 하려면 공공기관에서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초기 만남에서 원가정 보호자에게 '미래에 초점을 둔 질문'을 하면서 원가정 보호자의 위탁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 초점을 둔 질문'은 개입 전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만남에서 반드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1) 실천에 유용한 필수 질문

아동용

아동에게 질문

- (아동)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라고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 (아동)은 어떻게 지냈으면 해요?
- '보호자(또는 집에서)와 지내고 싶다' 10, '아니다' 1. 어디인가요?

아동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에게 관계성 질문을 사용

- (아동)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시구요. 지금 (보호자)가 한 이야기를 아이가 들었어요. 그럼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 (아동)에게 '어떻게 지내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원가정 보호자용

원가정 보호자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

-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잠시 멈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잠시 멈춤) (아동)이/가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어요(잠시 멈춤) 부모가 된 (아동)이/가 자기 아이한테 할머니(또는 할아버지)이야기를 하는데(잠시 멈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잠시 멈춤) '그래도 내가 엄마(또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구나' 하시겠어요?
- '나는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보호자다'를 10, '전혀 아니다'를 1이라고 할 때, 지금은 어디인가요?
- (아동)이/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하구요(잠시 멈춤). (아동)이/가 자기 아이한테 그런 할머니(또는 할아버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 (이야기한 대로 지내면) 1부터 10 중에 어디일까요?
- (위에서 답한 숫자)일 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지내게 될까요?
- (떨어져 지내야 한다면, 분리보호 결정이 되었을 때) 얼마 동안 아이와 떨어져서 지내면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용

(친인척외 위탁보호자)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경우

- 이미 아이를 키워보셨습니까... 아이와 지낼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친인척외 위탁보호자)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는 경우

-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으셨나요?
- (아동)이/가 어른이 되어서 여기서 지낸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 하 는걸 들으면 '내가 가정위탁하길 잘했구나' 하시겠어요?
- 혹시 (아동)이/가 기대하신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인척 위탁보호자)

- 쉽지 않으셨을 텐데...
- (아동)이/가 어떤 아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 (아동)과 같이 지내면서 생각하신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아동)을 맡으면서 '이런 건 그래도 기대하고 있다'하는 게 무엇인가요?

현장의 질문

실천에 유용한 필수 질문은 제시한 순서대로 하나요?

- 실천에 유용한 필수 질문은 반드시 제시한 순서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시한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실천가 중심의 면접 진행이 되므로,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천가들은 진행 예시에서 <실천에 유용한 질문>이 사례 진행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자신이 진행하는 사례에 질문을 사용하면서 질문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2) 진행 예시

Tip 진행 예시로 제시한 사례에 관한 정보를 최소화하였다.

- 실천가는 사례 상황이 아니라 당사자와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문제중심 패러다임에서는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강점관점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당사자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당사자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본 가이드북 사례 역시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최소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천가가 사례를 자신의 준거틀로 판단할 수 있는 우려를 낮추고, 당사자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 것인지에 관심을 둘 수 있게 하였다.
- 실천가들은 진행 예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서, 이미 자신이 만났던 또는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 강점관점 해결중심 접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강점과 예외를 활용해서 당사자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항상 기억하자!

가정방문으로 원가정 보호자 면접

엄마는 22세로 아동 출산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19세에 첫째를 출산해서 입양 보낸 적이 있다. 아들은 15개월 여아이다.

실천가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연락받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왔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네, 어서 오세요.

실천가 미진이 가정위탁을 알아보셨다고...

원가정 보호자 네,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요. 지금 일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 데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직 어려서 돌봐 줘야 하는데 전 종일 일 배워야 하고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아이 맡겼다가 데려오려고요.

실천가 그러시군요. 아이 보랴... 일 배우시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원가정 보호자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게, 사실 제가 3년 전에 첫째를 낳았는데... 그 애를 입양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이도 보고 싶고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서... 애는 어떻게든 키워 보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뭐고 내 몸 힘든 거만 생각나고 아이한테 안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양 말고,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떨어져 있다가 같이 살려고...

실천가 큰애 입양 보내고 이번에는 미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원가정 보호자 첫째는 겁이 났었죠. 키울 자신도 없었고... 미진이도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첫째 보내고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서... 미진이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데리고 살려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걸 배우고 자리 잡으려면 3년은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전에는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일하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한니까 취업을 제대로 하면 그때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실천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 궁금한 게 있는데...

원가정 보호자 뭔데요?

실천가 상상하는 게 필요한데...(잠시 멈춤) 미진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원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한참 후겠네요.

실천가 그렇죠. 미진이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잠시 멈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잠시 멈춤)

원가정 보호자 미진이는 저같이 살면 안 돼요. 결혼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 해요.

실천가 네... 그래서 지금 애쓰고 계신 거구요. 그래서 미진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상상해 보시구요. (잠시 멈춤) 부모가 된 미진이가 자기 아이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잠시 멈춤), 미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잠시 멈춤),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 했구나' 하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한참 생각 후) 할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데도 포기하지 않고 돌봐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실천가 그리고... 더 있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그거면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실천가 한참 후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많겠죠?

원가정 보호자 그렇겠죠?

실천가 그럼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한데... 그럼 힘들고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돌봐 준 그런 엄마다 10, 전혀 아니다 1이라고 할 때 지금은 어디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2요.

실천가 2... 그래도 어떻게 하셨기에 2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첫째같이 입양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실천가 네, 그때랑 다르니까... 그럼 미진이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진이가 자기 아이한테 힘들고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돌봐준 그런 할머니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지내면 그렇게 하게 될까요?

원가정 보호자 (한참 생각한 후) 계속 같이 살면... 네... 그래야 그렇게 얘기할 거 같아요... 어떡하죠? 이런 생각은 못해 봤는데...

실천가 그러실 수 있죠. 그럼 계속 같이 살면 1부터 10 중에 어디일까요?

원가정 보호자 그러면... 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니까 한 7은 되지 않을까요?

실천가 그럼 7일 때는 지금과 뭐가 다를까요?

원가정 보호자 어떻게든 같이 살 방법을 찾아서 지내고 있겠죠. 인터넷도 찾아봤었고, 주위에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해 줘요. 그래도 지내는 게 힘드니까... 그래 첫째도 나랑 같이 안 있어서 더 나를 거야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고... 요즘 텔레비전에 고등학생들이 아이 키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개네들은 애 아빠도 있고 한니까 키우지'라고 생각했어요. 나랑은 다르다. 나도 애 아빠가 있으면 키울 거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뭘 바랐는지 조금은 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천가 좀 더 여쭙 볼 게 있는데...

원가정 보호자 그러세요.

실천가 이번에는 미진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시구요... 미진이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미진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원가정 보호자 (한참 생각한 후에) 아마도... 아마도... (약간 울먹이며)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실천가 아... 미진이가 그렇게 얘기할 거 같다... 그럼 미진이한테 엄마랑 어떻게 지내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미진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원가정 보호자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나도 말 잘 듣고 주말에 엄마랑 놀러가고 맛있는 거 사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할 거 같아요. 선생님 제가 좀 더 생각해 봐도 되나요?

실천가 물론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원가정 보호자 한 일주일 정도요.

실천가 네 그럼 일주일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해서 미진엄마는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고 했고, 미진엄마가 알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 더 필요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아동 면접
·진영이네·

아동이 2세에 부모가 이혼 후 아빠가 아동을 맡아서 양육하였다. 현재 아동은 3세, 남자 아동이며 아빠는 20대 후반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되어 분리 조치 후 가정위탁 결정되었다.

실천가 진영이에요?
아동 네.

실천가 안녕하세요?
아동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실천가 나랑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아동 네.

실천가 고맙습니다.
아동 (웃음).

실천가 내가 진영이한테 뭐 물어봐도 돼요?
아동 네.

실천가 아유 고맙습니다.
아동 (웃으면서) 또 고맙대, 헤헤.

실천가 (표정 척도를 보여 주며) 진영이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이 얼굴 중에서 어디예요?



<참고> www.echosis.com.br/net-promoter-score-satisfacao-clientes/

실천가 아! 여기구나. 웃고 있네. 진영이 좋은 게 있나 보네? 뭔지 궁금한데... 말해 줘요?
아동 음...

실천가 음... 뭘까...
아동 음... 맛있는 거.

실천가 왜 맛있는 거 먹어서? 진영이는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거예요?
아동 네!

실천가 그렇구나. 그럼 (다섯 번째 표정을 가리키며) 여기 있으려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아동 음... 아빠!

실천가 아! 아빠가 있으면 (다섯 번째 표정을 가리키며) 여기예요?
아동 네!

실천가 근데 진영이 아빠 언제 만나는지 알아요?
아동 몰라요.

실천가 아빠 만나려면 열 밤 자고, 또 열 밤 자고, 또 열 밤 자고 그래야 하는데...
아동 와 되게 많아요. 아빠 어디 갔어요?

실천가 집에 있는데, 진영이가 집에 오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사주고 그러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아동 근데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실천가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돈 벌어야 된대요.
아동 그럼 많이 벌어요?

실천가 아빠가 그러려고, 돈 벌려고 열심히 일 하고 있대요.
아동 그럼 빨리하고 오라고 해요.

실천가 그럴게요. 아빠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약속?
아동 (손가락 끼면서) 약속.

실천가 하나 더 물어봐도 돼요?
아동 네.

실천가 (표정 척도 가리키며) '아빠랑 살고 싶다'는 여기 중에 어디예요?
아동 (다섯 번째 표정 가리키며) 여기!

실천가 (표정 척도 가리키며) '아빠 없이 여기서 지내도 된다'는 여기 중에 어디예요?
아동 (첫 번째 표정 가리키며) 여기!

실천가 그렇구나. 고마워요. 얘기해 줘서.
아동 또 해도 돼요?

실천가 뭘 하고 싶어요?
아동 엄마.

실천가 오 그래요! 엄마도 물어볼까요?
아동 (다섯 번째 표정 가리키며) 엄마도 같이.

실천가 엄마도 같이! 그럼 당연히 거기겠네. 또 더 있어요?
아동 없어요.

실천가 알려 줘서 고마워요!

(역할 나누기 이어서 진행)

원가정 보호자 면접
·진영이네·

아동이 2세에 부모가 이혼 후 아빠가 아동을 맡아서 양육하였다. 현재 아동은 3세, 남자 아동이며 아빠는 20대 후반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되어 분리 조치 후 가정위탁 결정되었다.

실천가 안녕하세요? 가정위탁센터에서 왔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네... 뭐... 안녕하세요.

실천가 혹시 저희 기관에 대해 들으셨나요?
원가정 보호자 뭐 진영이 데려가는 데 아니에요? 진영이를 어디 다른 집에 맡긴다면요?

실천가 진영이가 당분간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영이가 지낼 곳도 찾고, 진영이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버님도 만나면서, 빨리 진영이와 같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원가정 보호자 아이 뺏어 갈 때는 언제고 뭘 같이 살게 돕는다는 거예요?

실천가 그럼 아버님 앞으로 진영이랑 같이 안 사실 거예요?
원가정 보호자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할 때는 뺏어가면서, 같이 살게 돕는다는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실천가 먼저 만나셨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버님이 진영이와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가 저희도 아버님이 진영이와 어떻게든 같이 살려고 하신다는 거 듣고 정말 반갑더라고요.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보호자 분들과 아이가 떨어져 있는 동안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보호자 분들이랑 같이 살게 돕는 거라서...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진영이 만나고 왔습니다.

실천가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아빠 보고 싶어하죠. 진영이가 아빠 좋아하더라고요.

실천가 아버님이 진영이를 잘 아시네요.

실천가 그럼요. 당연하... 아버님도 들으셨겠지만... 진영이가 다른 집에서 지내야 하는 건 아실 텐데... 진영이가 그곳에서 잘 지내다 올 수 있도록 이제 아버님과 저희가 한 팀이 되어야 하는데...

실천가 저희도 진영이가 아버님과 같이 지낼 수 있기 바라는데... 아버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법이 그러니...

실천가 그나마 진영이가 잘 지내다 아버님한테 올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실천가 진영이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아버님이시니까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걸 좀 여쭙 봐야 하는데...

실천가 저희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잠시 멈춤)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춤) 진영이가 어른이 되었어요. (잠시 멈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잠시 멈춤) 부모가 된 진영이가 자기 아이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멈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잠시 멈춤) '그래도 진영이가 내가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는구나' 하게 될까요?

실천가 그런 걱정을 덜어 드리려고 저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진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하세요?

원가정 보호자 아니 뭐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합니까? 법이 그렇다는데? 나도 이혼하고 진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해왔는데 나보고 애 키우지 말라고 한다니 뭐 별 수 있나요? 처음엔 화가 나서... 그래도 거기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원가정 보호자 어때요? 진영이는?

원가정 보호자 애가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거 잘 주면 일단은 잘 있긴 할 거예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도 내 아인데 당연하죠.

원가정 보호자 아이 뺏어가는 사람들하고 한 팀이라고요?

원가정 보호자 뭘 논의 법이 그따위인지!

원가정 보호자 (침묵 후에) 그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가정 보호자 알았어요. 물어보세요.

원가정 보호자 (한참 생각 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살면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데 거기서 더 잘해 주면 그 사람들을 부모라 생각하고 더 좋아할 텐데...

원가정 보호자 나중에라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웃으면서 할 수 있으면...

실천가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으면 하세요?

실천가 그럼 진영이가 자기 아이한테 '그때 할아버지도 힘들었어.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랑 살게 돼서 좋았어' 이렇게...

실천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실천가 그렇죠. 그리고 또...

실천가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버님에게는 어떻게 중요하신지...

실천가 와! 내 부모님과과는 다르게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으신 거네요? 그래서 애써 오셨고...

실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실천가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실천가 좀 더 여쭙 볼 게 있는데...

실천가 그럼 어른이 된 진영이가 웃으면서 '아빠 힘들었지, 아빠랑 살아서 좋았어, 아빠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다 10, 전혀 아니다 1이라고 할 때, 지금은 어디인가요?

실천가 그래도 앞으로는 나아질 거니까...

실천가 그럼 진영이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하구요. (잠시 멈춤) 진영이가 자기 아이한테 '아빠는 할아버지랑 살아서 좋았고 할아버지한테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려면, 어떻게 지내면 그렇게 하게 될까요?

원가정 보호자 아빠도 힘들었지. 다시 아빠랑 살게 돼서 좋았어. 뭐 이런 말...

원가정 보호자 그러면 좋겠네요.

원가정 보호자 고맙다고 하면 좋겠죠.

원가정 보호자 그거면 들을 거 다 들은 거 같은데요?

원가정 보호자 뭐 중요하다기보다 그 정도 이야기는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 난 우리 부모한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혼하고 애 데리고 아등바등 살았죠. 아이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버거웠어요.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러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나 싶은데...

원가정 보호자 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원가정 보호자 (쑥쓰러워하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원가정 보호자 (웃음).

원가정 보호자 그러세요.

원가정 보호자 같이 살지도 못하게 됐는데 1, 아니다 1도 아니고 0이죠 뭐.

원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원가정 보호자 일단은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지도 않는 데 좋았다는 이야기 들을 일은 없겠죠.

실천가 당연히 그러셔야죠. 지금은 다시 진영이와 같이 더 잘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거니까...

원가정 보호자 일단 일이 좀 안정되어야죠.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니까 불안정하잖아요. 제가 몸은 건강하거든요. 뭐 공부해서 하는 일자리는 좀 어려운데 몸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는 일을 찾아봐야죠. 근데 그런 일이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한 게 많고 해서... 그럼 또 이번처럼 신고당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맘이 복잡합니다.

실천가 그러시겠네요. 그래도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지내면 아까 여쭙 본 1부터 10 중에 어디일까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도 5는 되지 않을까...

실천가 5일 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지내게 될까요?

원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진영이도 지금보다는 더 컸을 테고, 어떤 때, 힘들 때는 진영이한테 아빠 오늘 힘들다 그러면 진영이가 어깨도 주물러 주고, 일이 안정적이면 주말에 진영이랑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지내고 싶네요.

실천가 5가 되면 진영이와 그렇게 지내게 되나요?

원가정 보호자 같이 살면 5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커가면서 더 나아지고 싶으니까요.

실천가 5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거...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원가정 보호자 (웃음).

실천가 그럼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면 될까요?

원가정 보호자 맘이야 뭐 이 기간 끝나면 좋겠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다 싶어서... 진영이가 3살이니까 언제쯤 좀 말도 듣고 지 것도 좀 챙기고 하려나... 학교 입학식은 제가 데리고 가야죠. 7살에는 같이 살아야겠죠?

실천가 그 정도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게 필요할 거 같으 시고...

원가정 보호자 네. 지금 생각에는 그러네요.

실천가 진영이가 곧 4살이니까 3년 정도가 되겠네요?

원가정 보호자 근데요... 그럼 나하고 산 거보다 거기서 더 오래 사는 건데 괜찮을까요? 나 보다 거기 사람들 부모라고 생각하고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해요?

실천가 그 동안 아버님도 진영이 만나면서 준비하실 거 같아요.

원가정 보호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실천가 그럼요.

(역할 나누기 이어서 진행)

Tip

- 아동학대 분리보호 조치로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음에 아동학대 분리보호 조치를 거부하는 원가정 보호자를 진정시키고 조치를 받아들이도록(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 포함)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가정위탁센터는 이렇게 분리보호 조치를 받아들이는 친가정 보호자와 협력해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의 기관에 따라 이러한 역할분담이 애매하면 각 기관 사례관리에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 기관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물론 사례에 따라 어느 한 기관이 좀 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기관 간 역할을 합의해야만 한다.
-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실천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진영이네·

아동이 2세에 부모가 이혼 후 아빠가 아동을 맡아서 양육하였다. 현재 아동은 3세, 남자 아동이며 아빠는 20대 후반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되어 분리 조치 후 가정위탁 결정되었다.

실천가 이번에 진영이 맡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여쭙 볼 게 있어서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물어보세요.

실천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제가 우리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그냥 있는 거 보다는 조금이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천가 이 일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시간도 있으니 이제 사회에 봉사도 좀 하면서 살면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구요.

실천가 다들 아이 돌보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는지...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게요. 요즘은 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 키울 때랑은 다른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이 걸 생각하게 됐죠.

실천가 그러시구나... 궁금한데... 진영이가 어른이 되어서 여기서 지낸 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가정위탁하길 잘했구나' 하시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글썄요... 생각해 보질 않아서...

실천가 그러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탁가정 보호자 음... 우리랑 지낸 덕분에 잘 컸다. 가족의 따뜻함을 알았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신청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천가 그러시구나... 자녀 분들 키울 때랑 다르게 해보고 싶으신 것도 있으신데 아직 만나지 않으셨으니까... 혹시 아이가 기대하신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두 아이 키우면서 사실 큰애는 잘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진영이는 더 다르고 하겠죠. 그래도 우리 애들은 이어나저러나 아니면 남편 닮았으니까. 글썄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다시 공부할 해야 하나? 일단은 아이 키운 경험을 살려서 해봐요. 후회되는 것들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가 아이 키워 보셨으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는 건 잘 아실 테니까...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 알죠.

실천가 잘 아시니까 이번에 진영이와 어떻게 지내면 도움이 될지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요.

실천가 혹시 호칭은 뭐라고 할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라고 하나요? 엄마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실천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다시 아이를 키울 사정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서... 아이에게 혼란스러움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는 걸 추천드리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아이모...

실천가 생각하셨던 거랑 달라서... 어떡하죠?

위탁가정 보호자 뭐 그게 아이한테 좋다면 그렇게 해야죠.

실천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칭이 아이들한테 중요해서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실천가 감사합니다. 그럼 몇 가지 좀 더 여쭙보겠습니다.

(역할 나누기 이어서 진행)

아동 | 원가정 보호자 면접
·민지네·

아동은 14살 여자 아동이며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엄마는 4년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에서 친인척 위탁 결정으로 외조부모가 가정위탁하기로 하였다.

실천가 안녕하세요?

원가정 보호자 네, 누구세요?

실천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니다. 어머니시고... 민지인가요?

아동 네.

실천가 혹시 민지는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나요?

아동 ...

실천가 그럼... 혹시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라고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아동 할머니 집에서 산다고...

실천가 그렇게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아동 할머니가 알려 줬어요.

원가정 보호자 엄마가 민지한테 전화해서 이야기 했대요.

아동 그래서 엄마랑 싸웠어요.

실천가 에구...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 민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동 혼자서 있을 수 있는데...

실천가 혼자서... 그렇구나... 근데 어떡해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혼자서 지낼 수가 없는데...

아동 왜요?

실천가 민지 학교에서 법 배웠죠?

아동 네.

실천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른들이 보살펴 줘야 한다고.

아동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실천가 민지는 그런 거 알겠는데... 법에서 어른들이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동 할머니네 가는 거 싫은데...

실천가 그럼 민지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지내야 할 수도 있는데...

아동 고아원 그런 데요?

실천가 아마도...

아동 싫어요. 그런 데는!

실천가 그럼 거기 가는 거보다는 할머니네 가서 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원가정 보호자 (민지에게) 그게 더 낫지. 안 그래?

아동 ... 엄마 아파서 내가 밥 다 챙겨 먹고 학교 다녔잖아!

실천가 와! 그 동안 민지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동 엄마가 아프니까요.

실천가 엄마가 아프니까... 그래도 민지 나이에 쉬운 게 아닌데... 왜 어머니 민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원가정 보호자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죠. 엄마가 그렇지 않으면 지도 사랑받고 그러면서 지냈을 텐데...

실천가 그러다 고아원 같은 데 가도 괜찮아요?

아동 그러니까 엄마가 병원 가도 나 혼자서 지낼 수 있다고 싫어요!

실천가 그럼 거기보다는 할머니네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아동 씨... 조금은요.

실천가 조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서 다행이에요. 엄마 나오면 다시 집에 와서 지낼 거잖아요.

아동 네.

실천가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민지는 집에서 지내고 싶다 10, 아니다 1. 어디인가요?

아동 10이요.

실천가 10이요? 어머니 민지가 10이라고 하네요.

원가정 보호자 그러게 그럼 좀 암전히 지내고 그러면 되잖아. 사춘기라 그런가, 갈수록 힘들어서...

아동 내가 뭘?

원가정 보호자, 아동 ...

실천가 두 분, 잠깐만요...

아동 당연하죠.

실천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여쭙 볼게요. 민지는 집에서 지내고 싶은 게 10이니까 빨리 다시 집에서 지낼 수 있어야겠네요?

아동 그냥 그래요.

실천가 근데 민지는 할머니네서 당분간은 지내야 하는데... 어때요?

아동 할머니가 엄마한테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실천가 그냥 그렇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동 할아버지는 말하는 거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실천가 그러시구나. 할아버지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동 엄마가 약도 안 먹고, 아플 때까지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실천가 할머니가 엄마한테 잔소리하는 이유 알아요?

아동 엄마가 약도 안 먹고, 아플 때까지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실천가 그럼 할머니가 그런 얘기 듣고 잔소리하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동 걱정되니까 그렇죠.

실천가 왜 민지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동 그냥 알아요.

실천가 그냥? 와 대단하네! 어머니! 민지는 어떻게 이런 걸 아나요?

원가정 보호자 이혼 전에 남편 폭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혼도 했구요. 그러다 보니 애도 어른들 눈치를 많이 봤을 거예요. 어려서는 껌 딱지같이 지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아픈데도 점점 바깥으로만 돌고, 이제는 사춘기인 거 같기도 하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아동 엄마도 나 보는 거 안 좋아하잖아.

원가정 보호자 엄마가 왜 안 좋아해.

실천가 그래도 민지가 아까 집에서 지내고 싶은 게 10이라고 했는데...

실천가 얼마나 그러고 싶은지 알겠어요. 어떡하죠...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와 지내야 되는데...

실천가 근데, 나도 민지 바람대로 빨리 민지가 집에서 지내도록 도우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몇 가지 더 물어봐야 하는데... 이제 내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실천가 고마워요. 어머니 궁금한 게 있는 게 (잠시 멈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춤) 민지가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잠시 멈춤) 부모가 된 민지가 자기 아이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멈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잠시 멈춤)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 했구나' 하시겠어요?

실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실천가 민지는 어때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열심히 살아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천가 민지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한테 할머니 자랑을 해 준다 그러면 뭐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실천가 그럴 수 있죠. 나중에라도 생각하면 얘기해 줄래요?

실천가 어머니!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요?

아동 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맨날 누워 있고 그러면서.

원가정 보호자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거잖아. 그것도 이해 못해?

아동 맨날 나보고만 이해하래!

원가정 보호자 그럼 네가 이해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니?

아동 맨날 저래.

아동 그니까 집에 그냥 있고 싶다고요.

아동 ...

아동 네.

원가정 보호자 민지가 결혼을 해서... (한참 생각한 후) 아프지만 열심히 살아서 고맙다고 하면...

원가정 보호자 사실 민지가 엄마가 맨날 누워 있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애한테 다른 엄마들처럼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빨리 나아져서 다른 엄마들처럼 민지한테 맛있는 밥도 해 주고 같이 장 보러도 가고 그렇게 하면, 민지도 엄마가 아프지만 열심히 살았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동 뭐... 지금보다는 그러겠죠...

아동 몰라요. 지금은 생각 안 나요.

아동 ...

원가정 보호자 그거만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생각해요. 지금 같으면 뭐 아무것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III-1
초기면담
III-2
역할 나누기
III-3
역할 수행하기
III-4
역할 종료하기

실천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여쭙 볼게요. 어머니가 이 이야기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엄마다 10, 전혀 아니다 1이라고 할 때 지금은 어디인가요?

실천가 1이요... 그래도 다시 민지와 살기 위한 준비를 하려는 거잖아요.

실천가 민지가 나중에 자기 아이한테 어머니를 그런 할머니라고 말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될까요?

실천가 나오시면 1에서 10 중에 어디일까요?

실천가 그럼 5일 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지내게 될까요?

실천가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르게 지내게 될까요?

실천가 그리고 또?

실천가 다른 집들이 지내는 것처럼... 지금은 민지와 떨어져 지내야 하실 텐데... 그럼 얼마 동안 민지와 떨어져서 지내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될까요?

실천가 민지도 그랬으면 해요?

실천가 그럼 민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할머니랑 있다가 집에 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천가 어머니 궁금한데... 전에도 치료를 하셨었나요?

실천가 혹시 이 정도 기간은 치료해야 할 거 같다... 예상하는 기간이 있으신지...

실천가 나중에 아픈데도 열심히 살아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 들으려면 아무래도 그러는 게...

원가정 보호자 지금은... 1이예요. 미안하지만 하죠. 같이 살지도 못하게 됐으니...

원가정 보호자 그렇죠.

원가정 보호자 빨리 나아야죠.

원가정 보호자 그러면 5는 될 거 같아요.

원가정 보호자 그러면 민지가 집에 와서 같이 지내겠죠. 저도 나왔으니까 다른 엄마들처럼 아침에 밥도 챙겨 주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런 일상적인 게 다 달라지겠죠.

원가정 보호자 그럼 집에서 웃음소리도 나고, 음식 만드는 냄새도 나고.

원가정 보호자 뭐 그렇게 다른 집들이 지내는 것처럼 지내는 거죠.

원가정 보호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빨리 나아져서 데리고 와야죠.

아동 네.

아동 무조건 빨리 오면 좋죠.

원가정 보호자 약을 먹긴 했는데, 제대로 먹은 적은 없어요. 뭐 좀 먹다 말고, 또 다시 심해지면 병원 가서 약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밖에도 못 나가겠고 손가락도 꿈쩍하기 싫더라구요. 거기다 방광에 염증이 생겼는지 소변에서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근데도 병원엘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엄마가 와서 같이 병원에 가서 방광염은 치료 중이고... 우울증은 다시 병원 가야죠.

원가정 보호자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겠죠?

원가정 보호자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역할 나누기 이어서 진행)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민지네·

아동은 14살 여자 아동이며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엄마는 4년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에서 친인척 위탁 결정으로 외조부모가 가정위탁하기로 하였다.

실천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민지 집에 오는 걸로 온다는 분이세요?

실천가 네, 가정위탁센터에서 왔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뭐 가정 뭐라고요?

실천가 가정위탁센터요.

위탁가정 보호자 손주가 오는 건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실천가 그렇긴 하죠? 그제 민지가 그냥 할머니 댁에 놀러오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러네요. 민지가 오기 전에 저희도 궁금한 거 여쭙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뭐 해야 한다니 그래야죠. 물어볼 게 뭔데요?

실천가 이번에 민지를 맡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네.

실천가 아이 맡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으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결정이고 말고가 있나요. 안 그러면 애가 고아원에 가야 한다는데... 고아도 아니고...

실천가 당연히 할머니께서 맡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당연하다기보다 어쩔 수 없으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애 키울 때랑 달라서 요즘 애들은 못 키운다고...

실천가 그러신데도 맡으신 거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야말로 딸이 아프다는데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실천가 딸 생각도 하셔서...

위탁가정 보호자 민지를 자주 본 것도 아니고, 사실 나도 어떡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나올 때까지만 맡아 달라는 데, 아주 키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딸이 그렇다니 할 수 없는 거죠.

실천가 할머니! 민지를 자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민지 보셨으니까... 어떤 아이라고 알고 계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글썄... 어렸을 때랑 또 달라졌을 거고, 어려서는 지 엄마한테 딱 붙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잘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요즘 애들은 사춘기도 빨리 오고 한다는데... 민지도 그럴 나이 된 거 같은데... 그놈의 애비라는 농한테 맞고 살다가 이혼하고... 딸애 인생도 힘들기를... 나도 속상하니까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도 알아서 살겠다, 그리고 그러니 중간에는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냥저냥 사나 보다 했지요. 가끔 전화통화 하면 그냥 지낸다고 목소리는 매가리 하나도 없고. 근데 얼마 전에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를 맡아서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데 어찌겠어요? 이게 뭐 일인가 싶어도 딸이랑 손주 일이니.

III-1 초기면담
III-2 역할 나누기
III-3 역할 수행하기
III-4 역할 종료하기

실천가 그러셨구나. 이번에 민지 좀 만나 보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손주가 이런 아이겠구나 생각나는 게 뭔지 궁금한데...

실천가 그러셨겠네요.

실천가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실천가 민지랑 같이 지내면 이럴 거다 예상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실천가 민지가 아빠를 닮았나요?

실천가 예구... 그럼 혹시 민지가 생각하신 것과 다른 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천가 그럼 민지 말으면서 이런 건 그래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실천가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쭙 볼게 있는 게 관찮으신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얼마 전에 병원 간다고 가서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심통이 났는지 속으로 그랬죠. '아유 저거 저거 같이 지낼 수 있으려나' 나도 답답합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뭐 이러나저러나 빨리 딸애가 나아가 민지도 다시 지 엄마랑 살 수 있을 거고, 그동안은 어떻게든 데리고 있어야죠. 가 보니 그게 집인지 쓰레기통인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참... 그렇게 지내다가는 손주도 딸도 큰일 나겠더라고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원체 말이 없는 양반이라 얘기 듣고 알았다. 그리고 말지 뭐.

위탁가정 보호자 뭐 재롱 떨 나이는 벌써 지나버렸고, 손주는 재롱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사춘기면 말도 안 들을 거 같고... 지 애비 닮았으면 말 지지리도 안 들을 거 같은데...

위탁가정 보호자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민지 오기도 전에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가 봐요. 주위에서도 말리지... 그래도 올 거니 그전에 데리고 살 준비도 해야지... 오기 전부터 몸살이 날 거 같다니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내가 생각한 거보다 싹싹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우짜든 지 딸 나아가서 아이랑 같이 살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죠.

위탁가정 보호자 영원히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이니 다행인거죠. 뭐 다른 건 기대도 못 해도 먹는 거에 유통기한 있는 것처럼 데리고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 기대하는 거 그거 하나죠 뭐.

위탁가정 보호자 네 뭐...

(역할 나누기 이어서 진행)

2 역할 나누기

여기서는 아동, 원가정 보호자, 위탁가정 보호자와 각각 앞으로 원가정 복귀라는 지향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을 교육이나 실천가가 일방적으로 알려 주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빨리 끝낼 수는 있으나 전달 효과는 떨어진다. '나에게 이야기만 해 준다면 나 잊어버리게 될 거야. 나에게 보여 주지만 한다면 나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나를 참여하게 해 준다면 난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처럼, 면접에서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말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은 앞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위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위탁이 결정되면 원가정 보호자나 위탁가정 보호자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거의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원가정 보호자는 아동을 위탁 보내고, 위탁가정 보호자는 아동을 위탁받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질문을 통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생각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실천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을 근거로 위탁 기간 동안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질문을 해 나간다. 여기서도 면접 진행 후 반드시 피드백 전달은 중요하다.

현장의 질문

- 만일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알려 주면 효과적인가요?
- 만일 대화 중에 당사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이번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정보가 있다면, 피드백을 전달할 때를 활용한다.
- 먼저 대화 중에 당사자가 정보를 물어보면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라고 하고, "이야기 나누고 나중에 알려 드려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한 후, 피드백 시 당사자에 관한 칭찬, 당사자의 강점을 지지 한 후 피드백 마지막에 "아까 물어보신 거는..."라고 하면서 알려 준다.
- 또한 당사자, 특히 위탁가정 보호자에 반드시 알려 줘야 하는 정보인 경우 "그 동안 저희 경험으로...했을 때 아이에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라고 먼저 묻고 "이런 것도 아이와 지낼 때 사용해 보시고, 해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의논해 주십시오"라고 전한다.

1) 실천에 유용한 필수 질문

아동용

- (보호자)를 얼마에 한 번 만났으면 하나요?
- (보호자)와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요?

- (보호자)와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있다' 하는 게 뭐예요?
- (앞으로 지낼 곳)에서 어떻게 지냈으면 해요?

원가정 보호자용

- 현재는 (현재 숫자)이고, 아이와 같이 지내려면 (같이 지내는 숫자)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지내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 그걸 하면 1부터 10 중에 어디가 될 수 있나요?
- 아이에게 (현재 답한 숫자)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시겠어요?
- 아이가 위탁가정에서 지낼 때 도움이 되도록 위탁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용

(친인척외 위탁보호자) 첫 위탁인 경우

- 아이가 친부모와 만나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 아이가 친부모를 만나고 나서, 다른 행동이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미래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낼 때 뒤에 신경을 쓰면 될까요?

(친인척외 위탁보호자) 경험자인 경우

- 아이가 친부모와 만날 때 어떻게 하셨던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셨었나요?
- 아이가 친부모를 만나고 나서 다른 행동이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셨던 게 도움이 되셨었나요?
- (미래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오신대로 하시면 될지...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어떠신가요?

(친인척 위탁보호자)

- 아이를 맡는 동안 (아이 부모) 사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 아이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이와 어떻게 지냈으면 하시나요?
- 여기서 지내는 동안 (아이 부모)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시겠어요?

아동 면접 · 진영이네 ·

초기 만남에 이어서 진행

실천가 진영아, 아빠가 진영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동 네.

실천가 아빠가 돈 버는 동안 진영이는 다른 집에서 이모랑 살 건데...

아동 이모? 나 알아요?

실천가 처음 만나는 이문데...

아동 여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아빠 기다리면 되는데?

실천가 여기서? 어찌지... 진영이랑 같이 지내고 싶다는 이모가 있어서 그 이모 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동 이모가 누구예요?

실천가 진영이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만날 건데?

아동 이모 언제 와요?

실천가 몇 밤 자고 나서요.

아동 왜 지금 안 와요?

실천가 지금은 이모가 다른 데 갔어요. 집에 오면 진영이 보여 온대요.

아동 알았어요.

실천가 근데... 진영이 이모랑 살 건데... 아빠가 몇 번 보여 오면 좋겠어요?

아동 매일매일.

실천가 예고! 그렇구나! 아빠가 매일매일 안 되면?

아동 아빠 맘대로.

실천가 아빠 맘대로 해도 돼요?

아동 네. 근데 아빠 올 때 과자 사 가지고 오라 그래요.

실천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동 네.

실천가 아빠는 진영이 과자 사 오고, 진영이는 아빠한테 뭐 해 줄 거예요?

아동 안아 줄 거예요.

실천가 와! 그리고 또 아빠한테 해 주고 싶은 거 뭐예요?

아동 음... 몰라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이모랑 있으면서 이모한테 진영이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동 나 다 잘 먹어요. 다른 애들 안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실천가 와! 그래요? 그럼 진영이 튼튼한 어린이예요?

아동 네!

실천가 와! 튼튼한 어린이! 오늘 고마워요. 얘기해 줘서.

아동 네!

실천가 내가 또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날 거예요?

아동 네!

실천가 고마워요.

(어린 아동이므로 피드백은 생략함)

원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초기 만남에 이어서 진행

실천가 아버님이 진영이와 같이 살기 위해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는지 알아야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 보겠습니다.

실천가 아까 아버님이 현재 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영이와 같이 지내면 5라고. 5부터 시작해서 나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5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실천가 1년이라면 어느 정도 모으시면 진영이와 같이 사는 데 도움이 되나요?

실천가 진영이와 같이 사는 걸 3년 후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동안 매년 그렇게 모으면 되나요?

실천가 이미 준비하고 계셨네요?

실천가 그러셨구나... 그럼 이야기하신 대로 1,000을 모으셔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럼 1부터 10 중에 어디가 될 수 있나요?

실천가 그럼 3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세요?

실천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저희도 진영이가 빨리 아버님과 같이 지내는 걸 잘 도우려면, 앞으로 어떻게 같이 지낼 준비가 되어 가는지 아버님 이야기 얘기도 들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실천가 감사합니다. 그럼 진영이에게는 매년 하나씩 나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시겠어요? 그래야 진영이도 아빠랑 다시 같이 살 거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실천가 그럼요. 진영이는 매일매일 아빠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가정 보호자 네.

원가정 보호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아야죠. 진영이가 없으면 아무래도 돈은 더 모을 수 있겠죠.

원가정 보호자 최소 500 이상은 모아야죠. 더 모을 수 있으면 땡큐고.

원가정 보호자 아니죠. 빨리 1,000 정도 모으면 배달 일을 해볼까 해요. 알아보니깐 시험 보고 중고차 구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가정 보호자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긴 했죠. 이대로 계속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원가정 보호자 음... 그러면 3이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진영이 오면 5가 되는 거죠.

원가정 보호자 지금 생각에는 1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년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고 1년 정도 더 하면 그래도 일도 익숙해지고 돈도 모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원가정 보호자 뭐... 알겠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뭘 몰라서 하는 얘기고. 한 달에 한 번은 시간 내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나서 아빠가 뭐 했다 그런 거 얘기도 해 주고.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뭐 할지 아이도 자꾸 바뀔 거고.

실천가 그렇죠. 아이들은 계속 크니까... 앞으로 진영이한테 도움되는 방법이 뭘지 의논도 하고 그러려고 만나야 할 텐데 괜찮으세요?

실천가 그래도 지금까지 진영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버님이시니까... 혹시 진영이가 위탁가정에서 지낼 때 거 기 보호자 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실천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분들 에게 전하고 어떻게 진영이가 나아질 수 있게 도울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가 진영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데 필요한 건데 당연히 도와야죠. 아버님 오늘 이야기 나눈 거에 관해 제가 아버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할 건데... 5분 정도 제가 정리할 시간을 갖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 아버님 만나 뵈니, 전해들은 것보다 훨씬 진영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른이 된 진영이에게서 '힘들었지 같이 살게 돼서 좋았어', '고마워'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 자식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 역시 부모로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니까 진영이가 아빠와 같이 지내게 될 때까지 아버님의 준비도 남다르실 거라는 기대가 되네요. 진영이와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아버님은 어른이 된 진영이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저희는 진영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 아버님에게 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과 저희가 한 팀이 된 거죠? (원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고개 끄덕임) 그리고 집에서 진영이가 사용하던 것 중에서 진영이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 주시면 진영이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뭐 그럼 좋죠. 저도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 것도 많아질 테니까.

원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아직도 밤에 가끔 오줌을 싸요. 그리고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이혼하고는 내가 밥을 못 챙길 때도 있으니까 과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밥보다 과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다고 혼나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초기 만남에 이어서 진행

실천가 진영이가 같이 지내는 동안 아빠를 만나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진영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요? 얼마에 한 번씩 만나나요?

실천가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 이제 진영이 이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그러세요.

실천가 감사합니다. 진영이, 아버님, 이모님 상황을 맞춰서 정해야 되긴 한데... 진영이 아버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저희가 연락 받으면 이모님께 연락드릴 건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위탁가정 보호자 뭐 연락 주시면 만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천가 그렇죠. 근데... 가끔 어떤 이모님들은 만나지 말았으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위탁가정 보호자 근데 맘이 좀 싱숭생숭하긴 할 거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랑 살고 있는데 아빠 만나서 지 맘에 안든 거 있으면 아빠한테 이틀라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실천가 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결정을 해 주시니 대단하시죠.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대단하긴요. 그때 가서 의논할 거 있으면 이야기 드릴게요.

실천가 그럼요 언제든지요. 그리고 또... 진영이가 아빠 만나고 나서, 이모님과 지낼 때와 다른 행동이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겠죠.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보면 외갓집에 가서 지들 맘대로 지내다가 오면 흐트러져서 제대로 하라고 잔소리하고 그랬죠.

실천가 네, 그렇더라고요. 지내던 것과 다른 환경을 접하면 사람들은 일상이 흐트러지고. 그때 어떻게 하셨던 게 도움이 되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렇겠죠. 전 아이들을 다그쳤어요. 근데 큰애는 엄청 싫어했어요. 큰애는 감성적인 애였거든요. 작은애는 달랐구요. 작은애는 절 닮았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했거든요.

실천가 자녀 분 두 분이 달랐군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달랐어요.

실천가 그럼 진영이한테는 어떻게 하면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일단 어떤 아이인지 봐야죠. 큰애 같으면 다그치고 잔소리하는 건 안 먹힐 테니까. 작은 아이 같은 성격이면 제가 하던 대로 해도 될 거 같고.

실천가 진영이가 큰 자녀 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도움될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큰애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만 그냥 기다려 주지 그랬냐고. 그럼 자기도 조금씩 맘이 정리가 됐을 텐데 엄마가 그 틈을 안 줘서 힘들었다고.

실천가 그래도 큰 자녀 분과 그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위탁가정 보호자 다 커서나 할 수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데 그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천가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는 기반은 이모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키우셨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그렇게 되나요?

실천가 그럼 진영이가 큰 자녀 분 같은 성격이면 이야기 들으신 대로 하시고, 작은 자녀 분 같은 성격이면 이모님 하셨던 대로 하시고...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야 할 거 같아요. 뭐 전혀 다른 아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실천가 그럼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한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아까 진영이가 어른이 돼서 '우리랑 지낸 덕분에 잘 컸다, 가족의 따뜻함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낼 때 뭐에 신경을 쓰면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음... 같이 놀러도 가고, 애기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럼 추억도 많으니까 아이도 그만큼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실천가 그렇겠네요. 혹시 또 더 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일단은 이것만 생각이 나네요.

실천가 진영이 아버님께 진영이에 대해 이모님이 알아야 할 게 있는지 여쭙 봤더니 진영이가 가끔씩 오줌을 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밥보다 과자를 좋아한다고 이모님께 혼나는 거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위탁가정 보호자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나아지게 하는 데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논해 주세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얘기했으면 하는 게 있으신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뇨. 앞으로 생각하면 또 의논하죠 뭐.

실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모님 이야기 듣고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려 주시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이모님과 이야기 나눠 보니, 그냥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녀를 키운 경험을 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가정위탁을 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에게서 '우리랑 지낸 덕분에 잘 컸다', '가족의 따뜻함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는 걸 들으니 그 애 기만으로도 진영이는 복이 많은 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갑작스레 많은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해 주시는 걸 보니 이모님이야말로 준비되신 분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영이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어떻게 알려 주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의논해 주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도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 원가정 보호자 면접 · 민지네 ·

초기 만남에 이어서 진행

실천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네, 그 정도 되죠.

실천가 나아지는 데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입원을 하면 길어야 몇 달이면 되겠지만, 앞으로 민지랑 계속 살려면 저도 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실천가 앞으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는데 1년 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지금 생각에는요.

아동 아니 엄마 퇴원하면 나 집에 와도 되잖아! 어차피 지금도 내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뭐. 입원해도 나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원가정 보호자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서 좀 지내다가 엄마 나오면 오면 되지.

아동 아이 싫다니까. 할머니 잔소리 싫다고. 저번에 만났을 때도 오랜만에 봤는데도 뭐라고 하기만 하고.

실천가 그럼 민지는 할머니가 잔소리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아요?

아동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저래라 그런단 말이에요.

실천가 나보다는 할머니를 잘 알 테니까... 어때요? 할머니가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 같아요?

아동 몰라요!

실천가 어머니 보시기에는 어떨 거 같으세요? 할머니와 민지가 지내는 게...

원가정 보호자 둘 다 힘들긴 할 거예요. 민지가 저랑 다르거든요. 엄마가 아이 키워 보셨다고 해도 민지는 성격도 다른 데다 또 요즘 애들은 우리 세대와도 다르고...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럼 어떡하죠?

원가정 보호자 그래도 뭐, 지금은 할머니와 지내야죠. 그나마 그게 제일 나으니까. 민지야 그건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동 그래도 할머니 잔소리는 싫다고!

실천가 그럼, 민지 나이에는 싫은 게 당연하지... 그럼 민지는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동 몰라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경질 나죠!

실천가 그렇겠네요. 뭐라도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잠시 후) 들어 보니까 그래도 민지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하는 걸 받아들여야 할 거 같은데... 그래요?

아동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실천가 그래도 민지가 다른 거보다는 그나마 할머니와 지내는 게 나은 거라고 보고 있네요. 민지가 자신에게 나은 게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어머니, 민지가 참 지혜롭네요.

실천가 누구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엄마한테라도 가기 싫다고 말 할 데가 있다는 게 다행이죠. 그래도 같이 지내야 하니까... 민지가 할머니 집에서 지낼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알아야 하는 게 뭔가요?

실천가 아이구! 정말 다르네요.

실천가 어떠세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도 이러면 내 걱정도 좀 덜할 거 같아... 뭐가 있나요?

실천가 그걸 아시는 게 두 사람이 지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어떤가요?

실천가 아! 할머니는 다르다는 걸 아시면 하시던 대로 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군요?

실천가 맘은 걱정을 하시는 건데...

실천가 민지는 할머니가 걱정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았어요?

실천가 그렇죠. 그럼 혹시 민지는 할머니와 지내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지낼 때 좀 나올 거 같다' 하는 게 뭐죠?

실천가 확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알려 드릴 수 있죠?

실천가 그거면 된 거예요? 혹시 더 있나요?

원가정 보호자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할머니와 지낼 때도 그래야 할 텐데...

원가정 보호자 참견하는 거 정말 싫어거든요. 근데 엄마는 뭐든 참견하고...

원가정 보호자 그래서 걱정은 되죠.

원가정 보호자 엄마도 우리 키울 때랑 다르다는 건 사실 거 같긴 해요.

원가정 보호자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우리 키울 때랑 다르니까 어떤 건 그냥 넘어가야겠다.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원가정 보호자 그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때문에 속도 많이 끓였지... 맘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타깝고 걱정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원가정 보호자 근데 그건 우리한테나 통하지 애들한테는 안 통하죠.

아동 그럼 뭐해요. 내가 싫다는데.

아동 할머니도 내가 할머니 잔소리 싫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하겠죠.

아동 그니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얘기하라고.

원가정 보호자 엄마가 얘기한다고 했잖아.

아동 엄마 할머니한테 그거 그거... 학교 갔다 왔는데 숙제 다 했냐, 선생님 말 잘 들었냐.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해.

실천가 그리고 또 더 있어요?

실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민지 얘기 들어 주시면 민지는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실천가 그럼, 잘 지내면 되죠. 민지가 잘 지낸다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알게 할 거예요?

실천가 그럼 민지는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내가 이거는 잘 할 수 있다' 하는 게 뭐예요?

실천가 음... 그러면 엄마도 마음 놓고 빨리 치료하실 거고, 그래야 민지도 빨리 집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실천가 그렇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할머니들은 손주들 다른 거 먹으라고 할 거 같은데... 민지 할머니는 어떠신가요?

실천가 예고... 그럼 먹는 건 어떡하죠? 민지가 잘하는 건 그건데 할머니는 다른 거 먹으라고 하면... 민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실천가 그러게... 그럼 어떡하죠?

실천가 민지가 지혜롭네요.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천가 너무 놀라워서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원가정 보호자 알았어. 뭐 더 있어?

아동 나 청국장 싫어하는데 할머니는 그거 맨날 먹으라고 하잖아. 그것도 먹으란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원가정 보호자 아버지가 청국장 좋아하셔서 자주 만드시거든요. 근데 민지는 냄새도 싫어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동 뭐, 다른 건 나중에.

아동 나요? 잘 지내면 되죠.

아동 학교 지각 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아 맞다 엄마 생각난 거 또 있다. 나 핸드폰 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말라고. 요즘은 친구들과 톡 안 하면 따 당하니까 할머니가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말해야 돼. 알았지?

원가정 보호자 알았어.

아동 그래야 해요?

아동 그럼... 학교 지각하지 않고 잘 가는 거랑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라면도 끓일 수 있고, 햄이랑 계란 있으면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원가정 보호자 엄마도 그렇죠. 내가 잘 못해서 그렇게 먹는 거 알고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동 난 할머니 반찬 별론데...

아동 그럼 할머니 반찬도 먹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씩은 해 달라고 하면 안 돼? 그것도 엄마가 말해봐.

원가정 보호자 알았어. 할머니한테 얘기할게.

아동 (웃으면서) 글썸... 모르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그러게 지 고집만 피우는 줄 알았더니...

실천가 민지는 본인이 이런 해결방안을 잘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알았어요?

실천가 정말 놀랍네요. 그럼 혹시 여기 할머니가 계시다고 상상을 하고 (잠시 멈춤)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민지가 이걸 잘하면 민지랑 지낼 때 좋을 거 같다. 하는 게 뭔가요?'라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실천가 민지는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천가 그러네. 지금 다 모르지 살아 봐야 더 많이 알지. 역시 민지가 잘 아네요!

실천가 그럼 어머니께 좀 더 여쭙 보려고 하는데...

실천가 민지와 같이 지내려면 5는 되어야 하고 지금은 1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5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실천가 그러셔야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게 뭔가요?

실천가 병원에 가서 치료 시작하면 1부터 10 중에 어디가 될 수 있나요?

실천가 그럼 민지에게는 2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시겠어요?

실천가 민지는 엄마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천가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아동 아니요.

원가정 보호자 민지가 말해 봐...

아동 뭐 아침에 학교 갈 때 잘 일어나는 거...

원가정 보호자 또?

아동 편식하지 말고, 학교에서 말썹 일으키지 말고. 그 거면 되지 않나?

아동 어느 정도는?

원가정 보호자 할머니랑 잘 지내야지. 그래야 엄마도 맘 편해서 빨리 치료하고 민지랑 살지.

아동 알았다고!

원가정 보호자 휴대폰 너무 해서 할머니 화나게 하지 말고...

아동 그래도 친구들과 톡은 해야 한다니깐! 할머니랑 똑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그리고 살아 봐야지 알지, 지금 다 어떻게 아냐고!

아동 ...

원가정 보호자 네, 그러세요.

원가정 보호자 빨리 나아야죠.

원가정 보호자 뭐... 아무래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게...

원가정 보호자 시작했으니까 2는 되지 않을까요?

원가정 보호자 우선 입원하고... 거기서도 연락할 수 있겠죠? 전화를 하죠. 뭐, 특으로 해도 되고.

아동 전화할 때 목소리 듣고.

아동 목소리가 지금보다 커지면요. 전에 안 아플 때처럼.

실천가 엄마가 안아플 때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네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실천가 그렇게 알면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실천가 그렇게 아는 게 민지가 지내는 데 중요하네요?

실천가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여쭙 볼게요. 할머니랑 민지랑 잘 지낼 거다 10, 전혀 아니다 1, 어머니가 보실 때는 어디쯤 인가요?

실천가 그래서 1부터 10 중에 어디쯤?

실천가 민지는 할머니 집에서 어떻게 지냈으면 해요?

실천가 그렇다고 했죠. 그러려면 어떻게 지내면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실천가 할머니가 지키면 민지는?

실천가 혹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더 있어요?

실천가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민지는 엄마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지냈다 어떤 걸 보여 주고 싶어요?

실천가 네 엄마한테요.

실천가 물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엄마가 퇴원하고 민지를 처음 만났다. 그때 민지는 엄마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요?

실천가 그러네. 웃는 모습. 잘 지내서 웃는 건가요?

실천가 민지가 할머니네서 잘 지내야겠네요?

실천가 혹시 퇴원하시면 민지 만나는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천가 엄마가 나왔으니 민지랑 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시청의 선생님들이 알려 주실 거예요. 그 전에는 엄마 집에 가서 주말에 자고 오거나, 엄마가 할머니네서 자고 오든가 그런 건 될 거예요.

원가정 보호자 아니요. 몰랐어요.

아동 네, 그럼 엄마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아무래도 기분 좋겠죠.

아동 네.

원가정 보호자 처음에는 걱정만 한가득했어요. 근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우리 민지가 똑똑하게 할머니랑 지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가정 보호자 한 4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아동 뭐, 가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거기서는 제일 짧게 있게요.

아동 아까 얘기한 거 할머니가 지키면.

아동 나도 얘기한 거 하면 되죠.

아동 없어요, 지금은.

아동 엄마한테요?

아동 있는 그대로 보여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동 웃는 모습?

아동 뭐, 그것도 있고, 엄마 만나니까 웃겠죠.

원가정 보호자 엄마도 그러면 좋지.

원가정 보호자 퇴원하면 자주 봐야죠.

아동 엄마가 퇴원하면 집에 가도 되는 거야?

원가정 보호자 엄마네 잘 데가...

실천가 그건 사정에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이야기 듣고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할 시간을 잠시 가질려고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두 분 이야기 들으니 어머니에게나 민지에게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이번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민지와 어머니가 함께 잘 지내기 위해 서로 양보할 것과 바라는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것을 들으니 '가족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처음에는 뒤통거리지만 점점 호흡을 맞춰 가는 2인 3각 경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민지가 발휘하는 지혜로움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와 지낼 때도 그 지혜로움을 잘 발휘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할머니를 만나 뵈 건데, 만나기 전부터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민지네 ·

초기 만남에 이어서 진행

실천가 할머니, 민지는 어떤 것 같으세요? 따님이랑 비슷하나요?

실천가 어떤 건 비슷하고, 어떤 건 다르게 보셨나요?

실천가 그럼 민지도 엄마 닮아서 순한 거 같으세요?

실천가 민지는 엄마랑 다르네요. 그럼 여기서 지내는 동안 민지와 어떻게 지냈으면 하세요?

실천가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면 잘 지낸다고 하시나요?

원가정 보호자, 아동 네.

위탁가정 보호자 어렸을 때는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지금은 영 아닌 거 같던데...

위탁가정 보호자 우리 딸은 순했어요. 결혼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그것도 지가 손해 빠졌으니까 맞고 살지 요새 누가 맞고 살아요. 저게 저렇게 참고 살고 그러다가 저런 병이 든거지. 아 막말하고 때리면 지도 소리 지르고 대 들고 그랬으면 저런 병이 걸렸겠냐고.

위탁가정 보호자 순하긴, 어릴 때는 순한 거 같았는데... 뭐 요즘 애들은 하도 별나다 하니까... 저번에 보니 안 닮았더라구요. 생긴 거는 뭐 꼭 지 아빠 판박이고, 우리 딸은 생전 지 고집 세우는 걸 못 봤으니까... 민지 저거는 지 아빠를 더 닮은 거 같더라구요. 그러니 지들도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위탁가정 보호자 잘 지내야죠.

위탁가정 보호자 말 잘 듣고,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하라는 거 잘 하고 그러면 잘 지내는 거죠.

실천가 할머니 보시기에 민지는 어떨 거 같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모르죠. 어쩔라나... 근데 걱정이 되긴 하죠.

실천가 민지도 잘 지낼 수 있을지 같은 걱정을 하더라도 구요.

위탁가정 보호자 얘기해 봤어요?

실천가 네, 할머니보다 먼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 지도 걱정은 되나 보네.

실천가 아무래도... 할머니와 엄마가 참 달라서... 할머니와 부딪치면 어쩌나... 할머니는 어떠세요? 민지와 부딪치게 되면...

위탁가정 보호자 당연히 싫죠. 같이 지내는데 손주랑 티격태격하는 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실천가 그러시죠. 그래서 민지가 엄마한테 할머니에게 서로 조심할 거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라 그러던데요?

실천가 아마 따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민지 요구사항 들어 보시고 들어줄 생각이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들어 봐야 알지만 같이 지내려면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실천가 혹시 민지가 뭐라고 했을지 예상하는 게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글썸... 청국장 안 먹는다고 그럴라나? 애들이 대체로 청국장을 싫어하긴 하는데 민지 개는 유달리 싫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좋아하는데... 참 그것도...

실천가 잘 아시네요! 할머니 자식 키우실 때와 요즘 애들 뭐가 제일 다른 거 같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핸드폰이요. 요즘 애들은 뭐 그것만 갖고 살더라고요. 길 가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그것만 하고, 뭐 텔레비도 그걸로 본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 조그만 걸로 보면 눈 나빠지고, 좋지도 않은 걸 손에서 떼어 놓질 않으니...

실천가 요즘 아이들도 잘 아시네요. 민지도 요즘 애들 처럼 핸드폰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애들은 그거 없으면 친구도 사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탁가정 보호자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거 없으면 친구도 못 사귀는 게...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실천가 그렇게 요즘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위탁가정 보호자 맞아요. 근데 민지도 그런다고요?

실천가 네, 요즘 애들 다 그렇듯이 민지가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거더라고요... 민지도 핸드폰 많이 할 텐데... 그런 거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요즘 애들 다 그런다는데 민지만 못하게 할 수도 없죠. 친구도 못 사귀는다는데 어쩌겠어요!

실천가 안 그래도 민지가 할머니가 자기가 하는 거 그냥 뒀으면 바라던데... 역시 손주 맘 할머니가 알아 주시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맘에 들어서 가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니니까...

실천가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쭙 볼게요. 할머니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잘 지낼 거 같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절반. 살아봐야 아니까.

실천가 그렇죠. 살아봐야 알죠. 그래서 절반 5요?

위탁가정 보호자 5에서 잘하면 올라갈 거고 못 지내면 내려갈 거고.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럼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올라갈 거 같으세요, 내려갈 거 같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어쨌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실천가 그러네요. 할머니도 올라가려고 애쓰실 거구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예구...

실천가 그럼 할머니, 민지를 맡는 동안 민지엄마가 나서서 사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내가 계속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지 데려가 키우려면 나오려고 지도 노력해야지 않겠어요? 입원해서 나아가지 아직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살겠어요.

실천가 그럼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바로 민지는 엄마한테 보내실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지 병원 얘기도 들어야 하고 맘이야 바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죠.

실천가 그럼 혹시 퇴원하고 민지를 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위탁가정 보호자 뭐 안 그러면 좋지만 그래야 한다면 할 수 없죠.

실천가 그럼 어떻게든 따님이 다 나아서 민지랑 다시 사는 게 할머니에게도 중요하신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요. 자꾸 이러면 나도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돌봐 주기 어려워질 거고, 그럼 그때는 민지가 정말로 시설 같은 데 가야 하는 거고, 내가 안 그러려고 오라고 한 건데...

실천가 그러시죠. 어떻게든 따님이 이번에 치료하고 나오셔서 민지랑 살게 돼야 할머니도 민지 보살핀 보람도 있으신 거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당연하죠.

실천가 따님이 민지랑 살아도 되겠다는 건 어떤 걸 보시면 알 수 있으신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생활은 할 수 있어야죠. 지금은 밥은 커녕 청소 빨래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실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민지와 살아도 되겠다' 아실 수 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안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이 제일 심해서 그렇지.

실천가 처음이 아니니까... 그 동안 따님 보면서... 우리 딸은 그렇게 해 낼 수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라고 보시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까지 한 걸로는 별론데...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뭐. 이제 지가 손 놓으면 끝이지요. 뭐, 지도 알고 있으니 병원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천가 그래서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다고 보시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달라야죠.

실천가 그래서 1부터 10 중에 '우리 딸이 이번에는 맘먹고 나올 거다' 어디라고 보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한 6, 7은 될 거 같은데...

실천가 따님을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실천가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딸이 이번에는 꼭 나으려고 맘먹고 치료할 거라고 보세요?

실천가 8, 9... 따님 혼자서 그렇게 맘먹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실천가 제가 이야기하면 따님이 들을 거 같으세요?

실천가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가 따님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 게 필요하군요?

실천가 그렇게 하니깐 따님이 할머니 얘기대로 하셨나요?

실천가 그래도 이번에 그렇게 하면 따님이 들을 거 같으세요?

실천가 그러게요...

실천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 따님이 조금이라도 말을 듣더라 하셨던 때가 있으세요?

실천가 그럴 때를 알면 좋을 텐데...

실천가 열심히 자녀 분들 키우셨잖아요. 이제 민지도 돌봐 주실 거고...

실천가 그러셨군요. 그런데도 이번에 이렇게 민지 맡겠다고도 하시고... 쉽지 않으신 건데...

실천가 민지가 다시 엄마와 지내게 되는 게 할머니에게도 정말 중요하신 거네요.

실천가 그럼 민지가 할머니와 지내는 동안 따님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시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글썸... 어려서도 내가 뭐라고 하면 알았다고는 해요. 착해서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안하는데... 실제 하는 건 애가 독하지 못해서 내가 보기엔 항상 곰뜨다는 생각을 하죠.

위탁가정 보호자 한 8, 9는 돼야 하지 않을까...

위탁가정 보호자 선생님이 나아가지 민지랑 살 수 있다고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누구라도 자꾸 얘기해야지. 개는 여러 번 얘기해야 들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개는 그래야 된다니깐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냥 나 혼자 하라는 거지. 듣지는 않더라구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 우째요?

위탁가정 보호자 우째야 할라나...

위탁가정 보호자 모르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듣고 보니 내가 뭐했나 싶네.

위탁가정 보호자 열심히 키운다고 했는데... 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함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다른 애들은 안 그랬는데 유독 개하고는 안 맞는다는 느낌이 많았죠.

위탁가정 보호자 민지가 시설에 가면, 우리 애 키우면서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거 같아서...

위탁가정 보호자 그런 거 같아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있겠어요. 치료 잘 받고 빨리 낫게 도와주는 거지.

실천가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게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실천가 그러면 따님이 낫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으세요?

실천가 제 생각에도 따님에게 도움이 될 거 같네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는 거에 관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려고 합니다. 5분 정도 정리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할머니 뵙고 나니 따님을 생각하시는 엄마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할머니와 따님 두 분이 닮으셨어요. 할머니께서 따님에게 잘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게 언제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건 자식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될 테니까요. 민지와 따님은 다르다고 하심에도 할머니께서 민지를 맡겠다고 하신 것만으로도 따님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지와는 그야말로 지내 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5에서 나아가려고 할 거라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딸과는 다른 손녀니까, 딸처럼이 아니라 다르게 해보시겠다는 할머니 의지가 어머어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바람대로 5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가 도움 수 있는 것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하이고... 사실 내가 키우면서 개한테는 따뜻한 말 한번 못해 줬어요. 답답하고 곰뜨니까... 치료 잘 받고 빨리 나으라고 안아 주기라도 해야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쿠사리만 했던 거 같아서... 이번에는 꼭 나아가 되니까 안아 주면서 치료 잘 받으라고...

3 역할 수행하기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면, 실천가는 역할 나누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아동과 위탁가정 보호자가 생활하면서 계속할 것과 다르게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을 점검하면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다. 한편, 원가정 보호자에게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를 위한 역할 수행에 관해 점검해 나간다.

1) 실천에 유용한 필수 질문

아동용

- 잘 지내고 있다 10, 아니다 1. 어디인가요?
- 집에서 가족과 지내고 싶다 10, 아니다 1. 어디인가요?
- (원가정 보호자 만난 후) (엄마 혹은 아빠)와 만나 보니 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었나요?
- 여기서 지내면서 '앞으로 이런 건 좀 다르게 지냈으면 한다' 하는 게 있나요? (있다면) 그게 뭔가요?
- 그동안 지내면서 '이런 거 내가 잘 했다' 하는 게 뭐예요?
- 여기서 지내면서 '집에서와 다르게 이런 건 도움됐다' 하는 게 뭐예요?

원가정 보호자용

- (아이)와 지낼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 인가요?
- 그동안 (아이)가 달라진 게 무엇인가요?
- (위탁 보호자)가 하는 것 중에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무엇인가요?
- (아이)와 같이 지내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좀 더 하면 도움이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용

(친인척외 위탁보호자)

- 처음과 지내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아이)와 잘 지내고 있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 (아이)와 지내면서 '이런 건 도움이 되고 괜찮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 (아이)와 지내보니까... 앞으로 지낼 때 '이런 걸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뭔가요?

자녀가 있는 경우

- 내 아이를 키울 때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 내 아이 키울 때 하던 것 그대로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 내 아이 키울 때와 이런 건 다르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공동 질문

- 앞으로 지내면서 '이런 건 좀 달라졌으면 한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 (나중에 아이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될지... 뭔가 다르게 해야 할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 '처음 지낼 때(지난 해)와 이런 게 달라졌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친인척 위탁보호자)

- 같이 지내보시니까 내가 알던 아이 그대로다 10, 전혀 아니다 1. 어디인가요?
- 앞으로 지내면서 '이런 건 좀 달라졌으면 한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 아이와 지내면서 '이런 건 도움이 되고 괜찮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 내 아이를 키울 때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 내 아이 키울 때 하던 것 그대로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 내 아이 키울 때와 이런 건 다르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 아이와 잘 지내고 있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1. 어디인가요?

Tip 예외에 초점을 두고 반응하고 칭찬하기

-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문제가 아닌 예외를 활용하라고 한다.
- 환경이 바뀐 아동이 처음에 심리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를 상담이나 치료로 해결하지 않는 대신에 아동, 위탁가정 보호자의 예외에 초점을 두고, 이에 반응하며 칭찬으로 강화해 나가면 당사자들이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실천가가 예외에 초점을 두고 당사자들이 이를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 개입에 매우 유용하다(예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진행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실천가가 위탁가정 보호자에게서 예외를 찾고, 칭찬으로 강화하며, 위탁가정 보호자는 이러한 긍정적 경험을 아동과 지낼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보다 상담이나 치료로 연계하는 수가 훨씬 적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가는 혹시라도 '위탁가정에 오게 되는 아동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 원가정 관계개선 프로그램 '다시, 봄!'³⁾

(1) 프로그램명: 원가정 관계개선 프로그램 '다시, 봄!'

(2) 진행시기: 첫 면접 교섭 시

(3) 세부사항

- ① 소요시간: 1시간 이내
- ② 수행인력과 역할

	역할	준비물
주 진행자	① 사전 준비 시 아동, 보호자 면접 ② 프로그램 진행 ③ 프로그램 진행 후 아동, 보호자 면접	① 간단한 다과 ② 문장완성 질문을 적은 스케치북 (아동용, 보호자용) ③ 메모할 종이
보조 진행자	① 사전 준비 ② 진행 기록	④ 크레파스

(4) 사전준비

- ① 아동과 보호자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동	보호자
처음 만났을 때	이번에(보호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번에(아동)을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족 자유시간	(보호자) 만나는 시간에 선생님들과 먼저 이야기 나누고(보호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뭘 하고 싶어요?	먼저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아이와 뭘 하고 싶으세요?

- ② 상호 협의한 날짜와 장소를 안내한다.
- ③ 자유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곳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④ 자유시간 보내기는 상황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Tip

위처럼 아동과 보호자 둘 다의 의견을 물을 때는 아동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후, 보호자 의견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아동의 생각에 대해 보호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둘의 의견을 조율·합의한다. 보호자와 아동의 의견이 다를 경우, 아동의 의견을 먼저 고려한다.

3) 본 프로그램은 2022년 <원가족관계 개선과 원가정복귀 가이드북> 31~36p 내용임. 프로그램 진행 예시는 같은 책 36~47p를 참고할 것.

현장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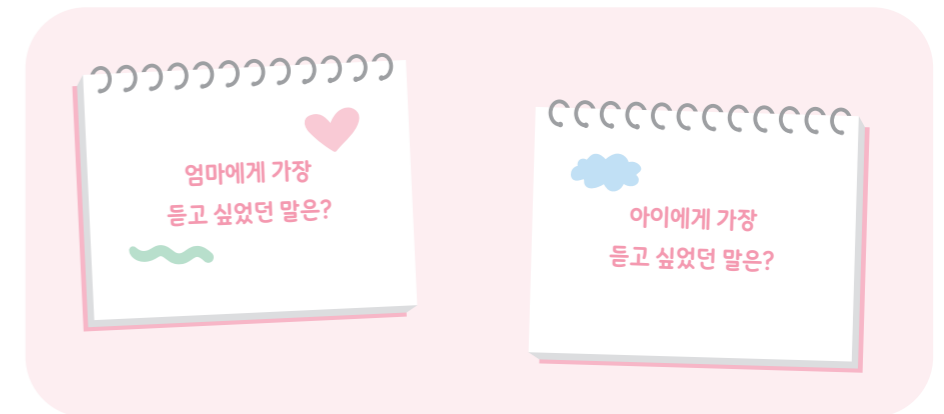
다시, 봄! 프로그램은 어떤 사례에 적용하나요?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과 원가정 보호자가 일정기간 분리되어 있거나 만나지 못한 경우, 첫 면접 교섭 시 진행하면 유용하다.

(5) 프로그램 세부내용

- ① 인사 나누기
 - 사전 준비 때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한 것'을 하게 한다.
- ② 우리 다시 만났어요!
 - 아동과 보호자에게 다음 질문이 적힌 아동용 보호자용 각각의 스케치북(아래 예시)을 주고, 질문을 보면서 아동과 보호자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스케치북에 적게 한다.

아동용 질문	보호자용 질문
· (보호자)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 (보호자)가 가장 보고 싶었을 때는? · (보호자)와 같이 지낼 때 좋았던 것은? · (보호자)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 내가 (보호자)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 아이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 아이가 가장 보고 싶었을 때는? · 아이와 같이 지낼 때 좋았던 것은? · 아이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 내가 아이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 아동과 보호자가 다 적으면 스케치북에 적은 내용으로 이야기 나눈다.
- 진행은 두 가지 중 선택해서 진행한다.

게임으로 진행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
서로 뭐라고 적었는지 예상한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예상한 것을 이야기하시겠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뭐라고 적으셨나요?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Tip

- 먼저 할 사람을 진행자가 정하지 말고 항상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본다.
- 보호자가 글쓰기를 어려워하면 질문을 알려 주면서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진행 시 당사자가 이야기한 것을 진행자가 적는다.

· 적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다음 질문을 아동과 보호자에게 한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걸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 듣고 알았다' 하는 것이 있으셨나요?

(있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었나요?

(대답을 하면) 들어 보니 어떠셨어요?

(다 들은 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또 무엇이 있었나요?(없다고 할 때까지 물어본다.)

(대답을 하면) '역시 가족이라 잘 아시네요!', '역시 가족이시네요!'라고 지지한다.

(없다고 하면) '아주 꼼꼼은 예상했다' 하는 거는 있으셨어요?라고 재차 물어보고, 대답하면 '역시 가족이라 잘 아시네요!' '역시 가족이시네요!'라고 지지한다.

(그래도 없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을 진행한다.

③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

- 아동과 보호자에게 종이를 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번에는 각자 종이에 (보호자)는 (아동)에게, (아동)은 (보호자)에게 '이걸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려 보세요.

(그림을 그린 후)주고 싶은 것으로 무엇을 그렸나요?

(대답을 들은 후) 그걸 주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가 궁금한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서로에게 주고 싶은 것에 대한 그림 설명을 마친 후, 그림을 그린 종이 위에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게 한다.
- 그림을 교환한다.

④ 우리 가족의 시간

- 사전 준비 시 미리 알아본 자유 시간을 갖는다. 이때 아동의 의견을 우선 고려해서 가족이 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⑤ 우리 가족이 만든 변화

- 첫 면접 교섭 후 아동과 원가정 보호자에게 질문한다.

아동용 질문	보호자용 질문
· 이번에 (보호자) 만나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뭐였나요?	· 아이 만나고 나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보호자)와 같이 살고 싶다 10, 전혀 아니다 1, 이번에 만나고 나서는 어디인가요?	· 이번에 아이를 만나 보니까, 이런 게 좀 달라졌다... 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 앞으로 뭐가 달라졌으면 하나요?	· 다음에 만날 때는, 무엇을 했으면 하나요?

3) 진행 예시

사례 1 친인척외 가정위탁

본 사례는 위탁기간이 3여 년으로, 당사자 면접을 연차별로 구분해서 서술하였다.

아동 |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가정위탁 1년

1회기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위탁 한 달 후)

실천가 안녕하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안녕하세요?

실천가 궁금하신 게 있다고...

위탁가정 보호자 네, 진영이와 지내다 보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요.

실천가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 이모님과 먼저 이야기하고, 진영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면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네, 그러세요.

실천가 뭐가 궁금하신지...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생각보다 오줌을 좀 자주 싸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잘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잘 먹긴 하는데 편식이 너무 심하고, 먹는 것도 아이가 폭식인거 같아요. 이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실천가 그래서 걱정되셔서...

위탁가정 보호자 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실천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 얘기 들으니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쭙 볼게요. 진영이가 처음 왔을 때가 1이구요. 잘 지낼 때를 10이라고 하면, 지금은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처음 왔을 때가 10이라고요?

실천가 네.

위탁가정 보호자 한... 3 정도?

실천가 어떻게 3이 될 수 있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좀 편안해졌다 그래야 하나? 그래서...

실천가 편안해졌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같이 있을 때 어색함도 덜해지고... 그래서 그런가. 먹는 것도 처음같이 폭식은 아닌 거 같아요.

실천가 그리고 또 뭘 보고 편안해졌다는 걸 아셨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썼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는 거 같네요.

실천가 왜 그래요?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게...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실천가 그래도 쉬운 게 아닌데... 궁금한데... 혹시 오줌 싸지 않은 날은 지낼 때 뭐가 좀 달랐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어... 생각해 보니까 오줌 싼 날은 제가 과자를 못 먹게 했던 거 같아요. 아이들이 과자를 먹지만 그래도 밥도 안 먹고 과자만 너무 먹으니까, 그럼 몸에 안 좋잖아요.

실천가 그럼 안 싼 날은 다르게 하신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가만 보니까 진영이가 큰애 성격이랑 더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면 잔소리 듣기만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밖에 데리고 나가고 그랬어요. 같이 뭐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도 좀 더 하고, 장난도 좀 치고 그렇게 했죠.

실천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내가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큰애가 한 말도 생각하고, 큰애한테 물어보니까 장 보러도 같이 가 보고 그러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랑 달라서 걱정이 돼서...

실천가 왜! 대단하시네요! 이모님이 하신 게 진영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모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그럼 상담 안 받아도 될까요?

실천가 이모님이 하신 게 효과가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모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게 정상이니까... 무엇보다도 이모님이 진영이가 안정될 수 있는 효과 있는 방법도 찾아서 하시고...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도 될까요? 아이 키운 지 한참 지나서 다 새롭네요.

실천가 이렇게 잘 알아서 하셨는데요? 이미 이모님이 하신 게 진영이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모님이 진영이와 같은 아이들이 안정되게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하시는 거고...

위탁가정 보호자 그렇긴 하죠.

실천가 진영이랑 지내보시니까 이런 것도 하면 도움이 될 거 같다...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천가 왜! 어떻게 그걸 생각하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하는 걸 보기도 했고,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야 하나? 우리가 애 키울 때랑 그런 건 다르더라고요.

실천가 왜! 자녀 분 키울 때랑 다르지만 안 해보신 것도 하려고 하시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한다고 했으니 그래야죠.

실천가 그리고 또 더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 생각난 건 이거예요. 뭐 더 생각 나면 해봐야겠죠.

실천가 한 달 정도 지내보시니까...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과 차이가 있나요? 어떠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우리 애들 키워서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실천가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하셨잖아요. 자녀 분 키울 때랑 차이가 있는데... 어떠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이들 키울 때처럼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때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실천가 그래도 지내보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싶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나오는 것도 참고도 하고, 큰애한테 자주 물어보고 하면서 해야죠.

실천가 혹시 더 이야기했으면 하는 거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니요.

실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제가 이모님께 전화고 싶은 이야기 정리할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 이모님이 큰 자녀 분께도 물어보면서 진영이가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듣고, 지난번에도 준비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이 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진영이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처음이라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 달 사이에 1에서 3까지 달라질 수 있었던 게 준비되신 분이 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아이 키울 때랑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텔레비전도 참고하고, 특히 진영이와 성격이 비슷한 큰 자녀 분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시는 걸 들으니 진영이와 지내는 데 이모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발휘하시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 나니 진영이와 지내는 데 도움되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시겠다는 기대와 믿음을 다 갖게 되네요. 혹시 어느 정도 있다가 저희가 만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그냥 지내도 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중간 점검하는 셈 치고 한 달 후 짚은 어때요?

실천가 중간 점검 좋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구요.

2회기 아동 면접

실천가 진영이 안녕하세요? **아동** 안녕하세요?

실천가 어린이집에서 오는 거예요? **아동** 네, 어린이집 갔어요.

실천가 난 진영이 다시 만나니까 반가운데, 진영이는 어때요? **아동** 나두, 나두요.

실천가 우리 같은 맘이네요! **아동** 헤헤.

실천가 (얼굴 표정 척도를 보여 주며) 여기서 이모랑 사는 거 어디예요?? **아동** 음... (세 번째 짚기, 네 번째 짚기를 반복하며) 여기... 여기...



실천가 둘 다예요? **아동** (작은 목소리로) 네.

실천가 두 개나 돼요? 그럼 (세 번째 가리키며) 여기일 때는 어떤 거예요? **아동** 먹고 싶은데 이모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실천가 이모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더 작아졌어요? **아동** 음...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제 작아졌어요.

실천가 와 그래요? 진영이가 잘해서 작아졌어요? **아동** 네.

실천가 진영이가 잘한 거 얘기해 줘요? **아동** 이모 말 잘 들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이모 말 잘 들어요.

실천가 와! 그래요? 진영이 대단하네! **아동** 근데 아빠는 언제 와요?

실천가 아빠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아빠가 바쁜가 봐요. **아동**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실천가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아동** 네.

실천가 그럼 여기는 (표정 척도 네 번째 가리키며) 진영이가 잘하면 여기인 거예요? **아동** 아니 그게 아니라, 이모랑 마트 가고 그랬는데, 그거 좋아요. 이모가 과자도 사 줬어요.

실천가 와! 그랬어요? 이모랑 같이 마트 가는 게 좋아서 (표정 척도 네 번째 가리키며) 그럴 때는 여기예요? **아동** (표정 척도 다섯 번째 가리키며) 여기일 때도 있어요.

실천가 와! 이모랑 마트 갈 때는 (표정 척도 다섯 번째 가리키며) 여기도 돼요? **아동** 네, 그거 좋아요.

실천가 또 진영이 잘한 거 자랑해 줘요? 좋았던 걸 얘기해 줘도 좋고. **아동** 음... 근데 아빠 언제 와요?

실천가 나도 물어봐야 하는데,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아동** 네.

실천가 고마워요. 기다려 줘서! 진영이 잘한 거 뭐가 있어요? **아동** 음... 몰라요.

실천가 생각나면 얘기해 줘요? **아동** 네.

실천가 그래요. 어린이집은 재미있어요? **아동** 몰라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어린이집에서 재미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다음에 얘기해 줘요? **아동** 네.

실천가 그래요. 오늘 진영이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아동** 네.

실천가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할까요? **아동** 네 좋아요.

실천가 나두 좋아요. 좋다고 해서 고마워요. **아동** 헤헤.

3회기 아동 | 위탁가정 보호자 함께 면접 (1회기 면접 한 달 후)

실천가 안녕하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어서 오세요.

실천가 진영이도 안녕하세요? **아동** 안녕하세요.

실천가 그 동안 지내는 게 어떻게 나이지셨는지 궁금한데... 진영이 처음 왔을 때 1이고, 잘 지내고 있다가 10이라고 할 때 지금은 1부터 10 중에 어디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제가 지난번에 3이라고 했었죠?

실천가 네, 그러셨죠.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은 6은 된 거 같아요.

실천가 와! 6이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그 동안 잘한 거 얘기 좀 해 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먹는 것도 전처럼 막 먹지 않고 오줌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실천가 와! 그래요? 진영이가 그랬어요? **아동** 네.

실천가 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아동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요.

실천가 와 그냥? 대단하네. 그냥 할 수 있다니! (표정 척도 보여주며) 그럼 이건 어디예요?

아동 (다섯 번째 표정 가리키며) 여기요!



실천가 (진영이에게 엄지척을 해보인 후) 이모님한테 궁금한데 어떻게 도와주셨기에 진영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도왔다기보다 시간도 더 지나기도 했고... 그때 애기한 것처럼 진영이랑 같이 음식 만들기를 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실천가 와! 그랬어요?

아동 그거 재미있어요, 그거. 내가 만든 밥 예뻐요.

실천가 맛나요? 이모랑 같이 해서 좋았어요?

아동 또, 맛나요.

아동 네, 또 할 거예요. 그치 이모!

실천가 또 할 거예요? 진영이 좋겠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고개를 끄덕임)

아동 좋아요. 와 신난다! 이모 언제 해?

실천가 이제 이모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진영이가 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일요일에 하기로 했잖아.

아동 아, 맞다.

실천가 고마워요. 이모님이 지난번에 해보겠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하셨군요?

아동 네.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들처럼은 안 되지만 노력은 했어요.

실천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만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신 결과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그렇게 되나요.

실천가 진영이와 지내보시니까... 앞으로 지낼 때 '이런 걸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뭔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지금 상태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같아서 괜찮긴 한데...

실천가 이렇게 여쭙 볼게요. 진영이 만나기 전을 1이라고 하구요. 같이 지내니 괜찮다. 좋다를 10이라고 할 때, 지금은 1부터 10 중에 어디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한 8 정도요.

실천가 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다르긴 달라요.

실천가 와 그러세요? 어떻게 다르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제가 활기가 있어졌어요.

실천가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이들 다 키우고는 내가 쓸모 없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실천가 진영이가 이모님이 '살아있구나 쓸모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맞아요. 이게 봉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실천가 와!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저도 해보인 거죠.

실천가 와! 정말 놀랍습니다. 더 했으면 하는 얘기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다 한 거 같아요.

실천가 그럼 오늘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정리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 진영이와 이모님 만남 이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고 맛있는 밥을 이모님과 같이 만들어서인지 진영이가 (표정 척도 다섯 번째를 가리키며) 여기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진영이가 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 동안 이모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영이와 지내는 것을 봉사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생각하시는 걸 보고 오늘은 이모님이 겸손함까지 갖추신 분이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만들고 있는 이모님과 진영이 모두에게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쯤 또 만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연말이면 한 10개월 후인데 그때쯤은 어떨까요?

실천가 네, 그럼 중간에라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구요.

4회기 아동 |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실천가 안녕하세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과 지내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실천가 왜 그러세요? 이모님이 잘 해 오셔서 가능한 거죠.

실천가 자녀 분 키울 때랑 다르다는 걸 잘 받아들여 주신 이모님이 대단하세요!

실천가 그럼 항상 숫자로 여쭙 보던 거 또 여쭙 볼게요. 진영이와 잘 지내고 있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금은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실천가 그렇죠. 다들 부딪치면서 살죠. 진영이와 지내보니까 '이런 건 도움이 되고 괜찮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실천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실천가 (웃으면서)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있으세요?

실천가 네 알겠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고 앞으로 2년 정도 더 지내셔야 하니까... 앞으로 지내면서 이런 건 좀 달라졌으면 한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실천가 당연히 맘이 안되고 신경 쓰이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실천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처음보다 많이 편해졌죠. 진영이도 처음에 아빠 만나고 왔을 때는 좀 때도 부리고 그러더니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는 시간도 짧아지고 있고...

위탁가정 보호자 뭘요. 처음에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 안 나누었으면 좀 속상했을 거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해도 진영이가 아빠 만나는 게 꼭 우리 사이 방해꾼처럼 여겨졌을 거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가, 아빠 만나고 와서 하는 행동에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위탁가정 보호자 에이 뭘요.

위탁가정 보호자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어보실 거 같아서(웃음). 지금은 8 정도요. 뭐 10은 친부모자식 간에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부딪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진영이가 잘 따라오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위탁가정 보호자 전에도 좀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집에서 일이 많아져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집에 생기가 돌더라구요.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 운동도 맘먹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쳐져 있기 쉽잖아요. 근데 진영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지금처럼만 지내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크면 고집도 더 생기고 그런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진영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린이집 가면 다른 애들은 엄마 있는데 지는 없으니까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싶더라구요. 그럼 맘이 안됐고, 그냥 엄마라고 부르라고 할까 싶기도 한데, 그럼 안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오라고 해서 안아 주면서 '엄마 보고 싶지...' 뭐 그렇게만 했죠.

위탁가정 보호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실천가 네, 이모님은 알아서 너무 잘 하세요. 너무 놀라워요.

실천가 뭐 진영이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도 처음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아야 하니까... 왜, 어른들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은 게 많은 것처럼... 이모님이 그렇게 어른으로 중심 잡아 주시고 맘 써 주시는 덕분에 진영이가 잘 지낼 수 있구요. 감사합니다.

실천가 그만큼 이모님이 따뜻하신 분이시니까 맘이 쓰이시는 거죠. 처음에 이모님이 진영이가 '우리랑 지낸 덕분에 잘 컸다', '가족의 따뜻함을 알았다' 그런 얘기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될지... 뭔가 다르게 해야 할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실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지내면...

실천가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 이모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뵈수록 놀라고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딪치면서 살아간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영이와 지내시는 지혜로움도 놀랍고, 진영이가 엄마라고 부르게 되는 마음을 헤아리고 안아 주셨다는 따뜻함도 그렇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1여 년 동안 진영이가 안정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웃음) 진영이 아버님도 자신이 못해 주는 것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덕분에 진영이와 지낼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시구요. 진영이네 가족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또 진영이 덕에 이모님도 지낼 때 생기가 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모님께 대단하다는 이야기 말고는 대신할 얘기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실천가 저도 같이 가서 진영이와 이야기 잠깐 해도 될까요?

(아동과 만난 후)

실천가 진영이 안녕하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도 맘은 편해요. 엄마라고 하라 그럴까 그런 맘이 들죠.

위탁가정 보호자 그렇죠. 들 때마다 맘이 그렇다는 거죠.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위탁가정 보호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 주는 얘기가 자꾸 생각나서 '제 자신을 바로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해요. 참! 진영이 데리러 가야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그러세요.

아동 어! 안녕하세요!

실천가 네, 진영이 나랑 잠깐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동 (위탁 보호자를 쳐다본다)

위탁가정 보호자 응, 그렇게 해.

아동 네!

실천가 진영이 오랜만인데 키가 컸네요?

아동 네.

실천가 (표정 척도 보여주며) 여기서 이모랑 지내는 거 어디예요?

아동 (다섯 번째 가리키며) 여기요.



실천가 와! 여기예요?

아동 네.

실천가 이모랑 있으니까 뭐가 좋아요?

아동 다요.

실천가 다요? 진영이 다 좋은 게 뭘까?

아동 응, 밥 먹는 거, 같이 놀러 가는 거, 누나들, 또... 또...

실천가 또... 뭘까요?

아동 응... 그렇게 다요!

실천가 와 그렇게 다요? 와! 이모님 진영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니요. 진영아 정말 다 좋아?

아동 네.

실천가 이야기 들으니 어떠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을 안으며) 고맙네요.

실천가 진영이, 아빠 만났죠?

아동 네.

실천가 (표정 척도 가리키며) 아빠랑 살고 싶다는 어디예요?

아동 응... (위탁가정 보호자를 쳐다본다)

위탁가정 보호자 얘기해. 솔직하게.

아동 응... (다섯 번째 가리키며) 여기.

실천가 그래요? (다섯 번째 표정을 가리키며) 이모랑 사는 것도, 아빠랑 살고 싶은 것도 둘 다 여기네? 여기가 많아서 진영이는 좋겠는데?

아동 (웃으며) 네.

실천가 진영이 아빠 만나 보니까 예전에 아빠랑 달라졌어요?

아동 아빠가... 아빠가... 화 안 났어요.

실천가 아빠가 화가 안 났어요? 그게 달라졌어요?

아동 네.

실천가 그럼 화 안 내고 진영이한테 어떻게 해 줬어요?

아동 맛있는 거 사 주고, 선물도 사줬어요. 그거 집에 있어요.

실천가 와 그래요? 진영이 좋겠네?

아동 네.

실천가 그럼 진영이는 '이모가 달라지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아동 어... 없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있으면 말해 봐.

아동 과자 더 먹고 싶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건 이모랑 약속했잖아. 지금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데요.

실천가 그래요? 근데 이모가 더 먹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 네.

실천가 그럼 뭐가 좋아요?

아동 그냥.

실천가 그냥... 이모랑 약속한 대로 할 거예요?

아동 네.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 착하네.

실천가 그러네요? 진영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동 네. 진영이 착해요.

실천가 그래요, 착해요. 그럼 진영이가 잘한 거 자랑해 줄래요?

아동 약속 잘 지켜요.

실천가 그래요. 약속 잘 지키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아동 과자 많이 안 먹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 그래서 건강해졌잖아, 그치?

아동 건강해졌어요.

실천가 그래요. 또?

아동 선생님한테 오늘 칭찬받았어요. 밥 다 먹었어요.

실천가 와 그랬어요? 칭찬받을 만하네. 또?

아동 이제 몰라요.

실천가 몰라요, 알았어요.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먼저 진영이가 자랑을 많이 해 줘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영이 짱이에요! 그리고 이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진영이가 아빠랑 살고 싶은 것도, 이모랑 지내는 것도 다 (다섯 번째 표정 가리키며)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게 지내도록 해 주셔서요. 진영이가 둘 다 여기라서 마음이 부자인 아이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제 진영이 한 살 더 먹고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마음 부자인 진영이가 어떻게 성장해 있을지 기대되네요.

원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가정위탁 1년

<원가정 관계 개선 프로그램: 다시, 봄!>을 진행 후의 전화 상담

실천가 이번에 진영이 만나 보니까, '이런 게 좀 달라졌다...' 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원가정 보호자 키도 좀 컸고,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볼에 살도 좀 울랐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 아무래도 먹는 게 시원치 않았으니까... 그래도 밥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모랑 뭐 만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실천가 진영이가 이모님처럼 같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빠한테도 자랑했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땠어요?

원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좋아하니깐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해 주지 못하는데... 아빠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어요.

실천가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진영이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과 지내려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이모님이 진영이가 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같이 음식 만들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셔서 덕분에 진영이도 불안감을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더라고요.

원가정 보호자 감사하네요. 진영이 생각해서 해 주시고...

실천가 그리고 또 '진영이가 이런 게 달라졌다' 하는 게 뭐였나요?

원가정 보호자 일단 그게 보이는 거라서... 건강하면 됐죠 뭐.

실천가 네, 그럼 아버님은 진영이 만나고 나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있었는데, 직접 보고 나서 걱정은 덜었죠.

실천가 다행이네요. 진영이가 이모님과 지낼 때 아버님과 지낼 때 하던 것과 다르지만 도움이 된다고 본 게 무엇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잘 먹고 씻기고 그런 거요. 아빠가 한다고 해도 '참 제대로 아이한테 못해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천가 그래도 아버님이 진영이한테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그게 진영이가 거기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초를 먼저 닦으신 거죠.

원가정 보호자 아니요. 제가 해 준 게 없죠.

실천가 진영이 보내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진영이와 지낼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도 시험은 됐어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됐어요.

실천가 그러셨어요? 애쓰셨네요. 축하드려요.

원가정 보호자 감사합니다. 시험은 붙었으니 이제 아르바이트 여기저기 뛰는 거 한 1년 정도 더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질 거 같아요. 그리고는 더 열심히 뛰어서 돈 벌어야죠. 진영이랑 지낼 방도 구하고 하려면.

실천가 와! 그래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1부터 10 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고 보세요?

원가정 보호자 이제 1 됐어요, 1! 시험 붙었으니까.

실천가 그래도 시험 준비를 빨리하셨네요.

원가정 보호자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진영이 데리고 있다 보니 제대로 시험공부도 못 했는데, 같이 있으면 시험 붙지도 못 했을 거 같아요.

실천가 진영이와 다시 사는 준비를 잘 하시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저 잠깐 아버님께 전할 얘기 준비하려고 하는데 더 했으면 하는 얘기 있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아니요. 하십시오.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 진영이를 위해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합격도 하고, 진영이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진영이도 만나고... 진영이와 더 나은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한발자국씩 나가시는 걸 보니 아버님은 자신의 바람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힘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님 이야기 들으니 저희도 일하는 데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진영이 만나는 건 계속 하시는 거죠?

원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실천가 아버님이 그렇게 하는 게 진영이에게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아동 |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가정위탁 2년

실천가 이모님, 진영이 안녕하세요?

아동, 위탁가정 보호자 안녕하세요!

실천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진영이와 잘 지내고 있다 10, 전혀 아니다 1일 때 지금은 1부터 10 중에 어디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8, 9 비슷해요.

실천가 지난번에도 8이라고 하셨는데... 8, 9라고 하시면 좀 더 나아지신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조금은?

실천가 그럼 지난해와 지낼 때 이런 게 달라졌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한 살 더 먹으니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간다고 해야 하나?

실천가 손이 덜 가게 어떻게 가르쳐 주신건지... 어떻게 하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으셨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반복학습이죠 뭐. 칭찬도 많이 해 주고, 안 되는 건 분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영이도 알더라고요.

실천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잘 따라 준 게 크죠.

실천가 궁금한데... 2년여 같이 지내보니, 이모님 자녀 분들 키울 때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여유가 없었죠. 지금은 내가 진영이한테 하는 거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 '이렇게 했던 건 싫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혼자서 부딪치면서 했었고. 그런 얘기하면 어떤 건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그랬구나 싶기도 하고. 진영이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실천가 그러시군요. 자녀 분들이 어떤 건 하라고 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궁금하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예를 들면 제가 반찬을 해 놓고 맛있다 고 자꾸 먹으라고 한대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도 맛있다 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잘 안 먹으면 '재가 별로 안 좋아하구나' 잘 먹으면 '좋아하구나' 알면 된다고도 하고... 주로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웃음).

실천가 그래도 '이런 건 도움이 됐다' 하는 것도 있으실 텐데...

위탁가정 보호자 뭐 공부하라고 닦달 안 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영이는 어리니까 닦달할 것도 없죠, 뭐.

실천가 그리고 또 뭐가 도움이 됐다고 하던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거만 이야기하던데요(웃음).

실천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이모님 생각에 '내 아이 키울 때 했던 대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건 뭐가 더 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저도 아이들이랑 같은 생각이예요.

실천가 그럼 '이런 건 앞으로 지낼 때 좀 달라졌으면 한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 아빠가 아이 만나면 장난감을 자꾸 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별로 쓸데없는 것도 자꾸 사주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면 싫어할 거 같아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실천가 뭐라고 전하면 도움이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가져와서 며칠 가지고 놓고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럼 아이한테 교육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아길 줄도 모르고, 사달라고 하면 다 사 주는 줄 알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실천가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달라졌으면 하는 게 뭔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다른 건 없어요.

실천가 이모님이 진영이가 '가족의 따뜻함을 알았다', '여기서 지내서 잘 컸다'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듣기 위해서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는지... 뭔가 다르게 해야 할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지금처럼 지내면 될 거 같아요.

실천가 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랜만에 뵈었는데 그 동안에도 조금 더 지내는 게 나아지셨다는 걸 들으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모님이구나' 싶더라고요. 더욱이 자녀 분들이 어떤 건 좋았다. 어떤 건 도움이 안 됐다 알려 주시면서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신다는 걸 들으니 진영이 정말 행운아네요. 진영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이모님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진영이 아버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를 생각하는 두 분의 같은 마음이 방법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지만 진영이에게 도움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진영이와 남은 시간 역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하시면서 진영이가 가족의 따뜻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모님이 어렵히 알아서 해 주실 테지만요(웃음).

원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가정위탁 2년

1회기 전화 상담

실천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은 의논할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진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실천가 진영이 걱정부터 하시네요. 그런 건 아니구요... 위탁 이모님이 의논을 하신 게 있어서...

원가정 보호자 뭔데요?

실천가 아버님이 진영이 만날 때마다 장난감을 사 주신다고 하던데...

원가정 보호자 저도 미안하니까 진영이 만나면 갖고 싶은 거 있는지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안 사줄 수도 없고... 제대로 갖고 노는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천가 위탁 이모님도 가져와서 몇 번 갖고 놀고는 그냥 내버려두고, 아마 진영이도 아빠 만나면 다른 거 생길 거니까 그러는 거 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영이 생각하시는 건 아는데 진영이한테 교육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거 같지 않다고...

원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전 잠깐 보는 거고 이모님이 진영이가 어떻게 하는지 더 보실 테니까...

실천가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진영이와 제일 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이모님이다 보니까 의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과도 의논해야 할 거 같아서...

원가정 보호자 알겠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가 이모님이 진영이가 같이 있는 동안 잘 컸으면 하는 맘이 크시더라고요.

원가정 보호자 전 감사하죠.

실천가 두 분이 진영이한테 같은 맘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진영이한테 도움이 될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가정 보호자 제가 아빤데 전 당연한 거고, 이모님께 감사하죠.

실천가 이제는 아버님이 진영이와 지낼 준비 잘 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중략)

2회기 대면상담

실천가 안녕하세요?

원가정 보호자 안녕하세요!

실천가 전화 통화하고 뵙는 건 오랜만이네요.

원가정 보호자 네, 그러네요.

실천가 그동안 진영이 만나 보니 어떠셨어요? 달라진 게 뭔가요?

원가정 보호자 장남감 사 주는 거 한 번만 했어요. 생일 때요.

실천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원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일단 돈을 덜 쓰죠. 그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솔찬히 나갔었는데... 대신에 생일 때 꼭 갖고 싶다는 거 사주니 더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진영이한테 아빠가 진영이랑 같이 살려고 돈 모으는데 진영이도 아빠 도와주라고 했죠.

실천가 진영이가 아빠를 도와준거네요?

원가정 보호자 그러게요. '진영이가 도와줘서 얼마 모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영이도 만나면 얼마 모았어? 물어보더라고요.

실천가 아유 진영이가 챙기네요. 그러니까 이걸 여쭙 봐야겠네요.

원가정 보호자 뭔데요?

실천가 진영이와 지낼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돈도 좀 모으고, 대출도 받아서 차를 구입해서 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5는 될 거 같네요.

실천가 진영이와 같이 다시 살게 되면 5라고 하셨는데... 5에 좀 더 가까워지셨네요?

원가정 보호자 0.5는 진영이가 보태 준 겁니다.

실천가 (웃으면서) 진영이가 큰 몫을 했네요.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3.5라면 아버님이 이야기하신 기간 내에 진영이와 같이 지내게 될 거라고 보세요?

원가정 보호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천가 그럼, 이제 1년 내외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원가정 보호자 네, 진영이한테도 7살 되면 아빠랑 같이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천가 그러시군요. 그럼 진영이와 같이 지내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좀 더 하면 도움이 될까요?

원가정 보호자 배달을 더 많이 하고, 아껴서 생활하면서 돈을 빨리 더 모아야죠. 지금 지내는 곳에서는 진영이와 같이 지내기 어려우니까.

실천가 와! 아버님! 일도 하시고, 진영이도 만나면서 같이 지낼 준비해 나가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내실 거라는 거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실천가 아버님은 어느 분보다 진영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기회로 정말 잘 쓰셔서... 뵙수록 놀라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실천가 그러니까요. 그게 대단하시죠. 그냥 내가 본대로 배운 대로 산다고 보통들 그러시는데... 아버님은 더 나아가기 위해 변화를 시작하신 거니까... 정말 뵙수록 대단하시네요!

실천가 그동안 진영이가 이모님과 지냈으니까 또 앞으로는 아버님이 같이 지내실 거고... 이모님이 하는 것 중에 진영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뭔가요?

실천가 (웃으면서) 아버님 처음에 진영이가 아빠랑 사는 거보다 거기서 사는 거 좋아할까봐 걱정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실천가 알겠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지...

실천가 그럼 잠시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진영이 아버님 이시네요! 오늘 아버님께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진영이도 한몫 거들게까지 하시다니 짱이세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진영이 아버님 안에 아직 다 펼쳐지지 않은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모님에게도, 진영이에게도 배우실 수 있는 열려 있는 마음이 아버님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일부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처럼 남은 시간도 준비하시구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아니요. 처음엔 진영이랑 떨어지게 되고 그럴 때는 이혼에, 뭐 '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더 많았죠. 처음에는 '우리 사정 될 안다고 자기들이 난리야, 내 아이 자기들이 나보다 더 생각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바뀌게 됐죠.

원가정 보호자 지금 생각하면 이혼할 때도 진영이를 데려온 게, 난 우리 부모님같이 되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원가정 보호자 썩스럽네요(웃음).

원가정 보호자 아이가 차분해졌어요. 전 맘이 급하다 보니 말 안 들으면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이모님은 차분하게 말로 하시나 봐요. 진영이가 저한테 '아빠 조용하게 말로 해야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진영이가 배운 거겠죠. 진영이가 절 가르치고 있 다니니까요. 그런 건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가정 보호자 아니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아니요.

아동 |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가정위탁 3년

(인사 중략)

실천가 진영이가 그 동안 많이 컸네요. '지난해와 이런 게 달라졌다' 하는 게 뭔가요?

실천가 그래요? 잘 크고 있다는 거네요? 아이들 키워 보셔서 아실 텐데... 어땠어요?

실천가 와! 자녀 분들이요?

실천가 와! 대단하네요! 가족들이 서로 알려 주고 하고... 자녀 분들을 어떻게 키우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실천가 자녀 분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네요! 들어 보니 궁금한데... 제가 항상 여쭙 보던 건데...

실천가 (웃으면서) 네. 이제 알아서 해 주시네요.

실천가 이제 진영이와 지낼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실천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혹시 '이런 건 좀 다르게 하면 도움이 될 거 같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실천가 이모님이 진영이 돌아가서 아빠와 지내는 거까지 신경 써 주시네요.

실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려면 남은 시간 이야기하신 것만 해보면 되는지... 혹시 '이런 것도 더 하면 도움이 될 거 같다' 하는 게 있으신지... 어땠어요?

실천가 그럼 진영이가 '여기서 지내서 가족의 따뜻함을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실천가 알겠습니다. 진영이 기다려 줘서 고마워요!

위탁가정 보호자 크니까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사느라 그런 거 잊어버렸죠. 근데 우리 애들이 알려 주더라고요.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난 그냥 닥쳐서 키웠지만 지들은 배우기도 하고 하니 학교서 배운 걸 나한테 가르쳐 줘요. 뭐 아동발달 그런 수업 들었다고.

위탁가정 보호자 뭐 보면서 크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가정위탁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기도 하는 거 보면서 알았겠죠.

위탁가정 보호자 알아요. 숫자 물어보시려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9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렇더라고요. 옛그제 온 거 같은데... 진영이 아빠도 준비 잘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 제때 데려가려고 하겠죠, 뭐.

위탁가정 보호자 처음 올 때보다 크기도 했고, 어쩌면 고집이 생기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정 떼기 쉬울 거 같아서... 전보다 '지가 알아서 하게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래도 진영이랑 아빠랑 둘이 살 테고, 뭐 아직 젊으니까, 다시 결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아니니까.

위탁가정 보호자 돌아가서 잘 지내야지 잘 못 지내면 나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 거 같아서...

위탁가정 보호자 다른 건 지내던 대로 지내면 될 거 같아요.

위탁가정 보호자 나중에 기억할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동 ...

실천가 진영이 그동안 잘한 거 자랑해 줄래요?

아동 이모 말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안 싸웠어요.

실천가 왜 그랬어요? 그리고 또 더 있어요?

아동 음... 손 들고 말했어요.

실천가 어린이집에서요?

아동 네!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손 들고 맞았어요.

실천가 왜 또 더 있어요?

아동 양치질 잘했어요.

실천가 왜 양치질도? 잘한 게 무지 많네요?

아동 또... 또... 저번에 장난감 치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며칠 전에 장난감 치운다고 해 났더라구요. 지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아서 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앞으로 장난감 치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했더라구요. 뭐 애들이 치우는 게 어떨것어요. 그래도 맘이 예뻐서 잘했다고 했죠.

실천가 왜 진영이가 치우는 것도 하고 정말 많이 컸네요. 이모 말 듣는 맘도 너무 예쁘고! 진영이는 더 이야기해 줄 거 있어요?

아동 (위탁가정 보호자를 쳐다봄)

위탁가정 보호자 왜? 더 있으면 얘기해.

아동 다 했어요.

실천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무지 많네요! 진영이 짱!

아동 (웃음).

실천가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아동 네.

실천가 고마워요! 진영이가 아빠 계속 만났잖아요. 아빠가 달라진 것도 이야기해 줄래요?

아동 아빠 트럭운전해요.

실천가 왜 그래요? 아빠가 트럭 운전한 게 달라진 거예요?

아동 네!

실천가 또 아빠 달라진 거 있어요?

아동 음... 아빠 이제 화 안 내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아빠 화 안 내고 다르게 해요?

아동 나한테 그냥 얘기해요.

실천가 왜 그래요? 진영이가 잘 아네요?

아동 네!

실천가 그리고 또 더 있어요?

아동 이제 없어요.

실천가 알았어요.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진영이랑 같이 사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아동 아빠가 7살 되면 아빠랑 살 거라고 했어요.

실천가 진영이 지금 6살이니깐 이제 7살 되면 아빠랑 사는 거예요?

아동 네!

실천가 (숫자 척도를 보여주며) 그럼 (10을 가리키며) 여기는 아빠랑 살고 싶다. (1을 가리키며) 여기는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싫다. 진영이는 어디예요?

아동 (10을 가리키며) 여기요!

실천가 왜! 제일 많은 거네요?

아동 네.

실천가 그럼 여기 이모 집에서 사는 거는 어디예요?

아동 그것도 (10을 가리키며) 여기요.

실천가 왜! 여전히 똑같네요?

아동 해해.

실천가 그래요. 진영이는 이모와 같이 사니까 뭐가 좋아요?

아동 이모가 맛있는 거 해 주는 것도 좋고, 누나들도 좋고, 근데 나 친구 많아요.

실천가 와 그래요? 좋은 거 많네요? 그리고 또 좋은 거 더 있어요?

아동 아빠 만나는 것도 좋고... 장난감 갖고 노는 것도 좋고, 나 양치질도 잘해요. 그치 이모?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 잘하지.

아동 거봐요. 나 잘해요.

실천가 좋은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더 있네요? 그럼 이모랑 살면서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요?

아동 없어요. 근데 아빠도 같이 살면 좋겠어요.

실천가 (척도지 10을 가리키며) 여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네요. 진영이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동 아니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잠깐 기다려 줘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 진영이 이야기 잘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영이 얘기 들으니까 진영이가 이모랑 살면서 짱이구나. 그리고 아빠가 진영이 7살 되면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엄청 열심히 일하니까 그것도 짱이라는 거 알았어요. (진영 웃음) 그리고 진영이와 이모님 이야기 들으니 이모님 가족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는지 그래서 진영이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가 돌아가서 지내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이모님의 배려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걸 보면 이런 배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모님께서 자녀 분들을 얼마나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해 오셨는지 충분히 알려 주고 있네요. 이제 진영이가 아빠와 살게 되는 시간까지 남은 시간도 여전히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진영이 아버님이 같이 살겠다고 연락하시면 그때 돌아갈 준비를 달리 해야 하거든요. 그 전이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가정위탁 3년

(인사 중략)

실천가 아버님 항상 여쭙 보던 건데... 진영이와 같이 지낼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지금 어디인가요?

실천가 아이구! 몸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실천가 그러시겠네요. 진영이나 이모님도 알고 계세요?

실천가 그러셔서 진영이나 이모님도 아무 얘기 안 하셨구나. 아버님이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실천가 만일 좀 늦춰진다고 할 때 가장 염두에 두시는 게 뭐가요?

실천가 늦춰질 때 제일 염두에 두시는 게 진영이니까... 이렇게 여쭙 볼게요. 약속한 때에 데려오는 게 진영이한테 도움이 된다 10,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실천가 그럼 늦춰서 데려오는 게 진영이한테 도움이 된다 10, 그렇지 않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실천가 아버님이 진영이와 같이 지내야 하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신 거죠. 그럼 진영이와 같이 지낼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지금 어디인가요?

실천가 네... 그동안 진영이 만나셨으니까... 뭐가 달라졌던가요?

실천가 그렇죠. 그리고 또?

원가정 보호자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운전하다 사고가 있었거든요.

원가정 보호자 네. 두 달 정도 치료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추는 게 나을지, 좀 부족하다 싶어도 그냥 진영이 데려오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네요.

원가정 보호자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전처럼 하지 못한 거라서 티내지는 않았어요.

원가정 보호자 고민되더라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진영이죠. 진영이한테 아빠랑 언제 살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실망하기도 할 거고, 아빠 거짓말했다고 생각할까봐...

원가정 보호자 약속은 지키는데 내 스스로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돼서... 준비가 다 됐으면 10인데 한 8이나 9일 거 같네요.

원가정 보호자 하... 6이나 7이지 않을까... 대답하다 보니 답을 찾았네요.

원가정 보호자 그럼 4입니다. 이제 내년에 데려오면 5구요.

원가정 보호자 많이 컸어요. 아이들은 참 쑥쑥 자라더라고요.

원가정 보호자 말도 잘하고, 이제 글씨도 알고... 밥 먹을 때 제가 뭘 안 먹고 그러면 아빠 골고루 다 먹으라고 가르친다니깐요(웃음).

실천가 많이 컸네요. 그동안 얘기해 주셨지만 진영이가 크는 거 보면서 이모님이 하시는 거 중에 '진영이에게 이런 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게 뭐가요?

실천가 그래도 그 중에 이걸 정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게...

실천가 이모님이 진영이가 아버님과 같이 지낼 준비를 잘해 주셨네요.

실천가 그럼 진영이와 같이 지내기 위해 아버님이 앞으로 무엇을 좀 하면 도움이 될까요?

실천가 네. 그러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 더 사실 얘기는...

실천가 그럼 잠시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 아버님이 진영과 언제 같이 살면 될지 고민하시는 걸 보고, 정말 진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영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을 일이죠. 그러니까 진영이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구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차분하게 준비하신 보람이 있으셔서 듣는 저도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이 데리고 가려면 구청에 연락하셔서 준비하는 절차는 아시지요? 그때는 가족이지만 그동안 떨어져서 지내면서 서로 달라진 것들도 있고 하니까 잘 지내시도록 준비기간을 또 갖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진영이가 하는 거 보면 아이를 키워 보셔서 그런가, 다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원가정 보호자 생활습관을 익히게 한 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고루 먹는 것도 그렇고, 작게는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습관도 그렇고 앞으로 진영이랑 살게 되더라도 그런 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제대로 못 했을 텐데...

원가정 보호자 맞아요.

원가정 보호자 그동안 치료하느라 까먹은 거 열심히 보충해야죠. 아직 시간 있으니까 다시 열심히 해볼랍니다.

원가정 보호자 다 했습니다.

1회기 아동 면접 · 민지네 ·

(위탁 3주 후)

실천가 안녕하세요?

아동 안녕하세요.

실천가 할머니랑 지낸 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어때요?

아동 뭐가요?

실천가 오기 전에 민지가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이야기 해 달라고 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했던 게 좀 도움이 된 거 같은지...

아동 안 한 거보다는 나은 거 같아요.

실천가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아동 그냥... 할머니가 하고 싶은데 말 안하는 게 보여요.

실천가 그래요? 그걸 알아요, 민지가?

아동 모를 수가 없죠. 할머니가 한숨을 쉬고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실천가 아... 할머니가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동 그런 거 같아요.

실천가 그러시구나. 할머니도 민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니... 그럼 할머니도 노력하시니까... 그동안 지내면서 이런 거 내가 잘했다 하는 게 뭐예요?

아동 뭐 나도 집에서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해야 하나?

실천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동 할머니도 잔소리 안 할라고 노력하는 거 같기도 하고, 잘 지내야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실천가 그래서... 할머니도 민지도 다 노력하는 거네요?

아동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실천가 그리고 '잘했다' 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아동 다른 건 없어요.

실천가 그럼 여기서 지내면서 '집에서와 다르게 이런 건 도움됐다' 하는 게 뭐예요?

아동 내가 밥 차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요.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을 해 주거든요.

실천가 그런 게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아동 몰랐어요.

실천가 할머니 집에 와서 도움되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동 아뇨. 아니다. 있다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9시쯤 이면 주무셔서 생각보다 자유롭다?

실천가 자유롭다는 게 뭐예요?

아동 핸드폰하고 그러는 게 생각했던 거보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실천가 아, 그건 엄마가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아동 네.

실천가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민지가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10, 아니다 1이라고 하면 1부터 10 중에 어디예요?

아동 4?

실천가 그래요? 그 정도면 지낼만한 거예요?

아동 뭐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실천가 그럼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앞으로 이런 건 좀 다르게 지냈으면 한다' 하는 게 있나요?

아동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 불편해요.

실천가 음... 민지가 할머니와 같이 지내보니까, 할머니가 민지 맘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동 안 될 거 같아요.

실천가 그럼 어떡하죠?

아동 뭐 할 수 없죠. 아이 그냥 답답해요.

실천가 예구... 혹시 오늘 얘기 더 했으면 하는 거 있어요?

아동 없어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집에 빨리 가려고 집에서보다 안전하게 지낸다는 민지 이야기를 들으니 민지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네서 지내기 싫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지 않고, 나중에 집에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머니와 지낼 때 괜찮은 것도 찾고 받아들이는 민지의 능력입니다. 어른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지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사실 더욱 더 놀랐던 게 있는데... 이러면 또 힘들다고 혼자서 불평만 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쓸 수 있는데 민지는 할머니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따듯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일 놀랐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와 지내는 데 나름대로 애쓰는 게 엄마가 빨리 낫는데 응원의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요.

2회기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민지네·

(위탁 3주 후)

실천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오셨어요?

실천가 민지와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노력 중이죠.

실천가 노력하신 건 효과가 어떠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다른 말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말 나오려는 거 입 틀어막고... 할 말 다 못하니까 자꾸 한숨만 나오고...

실천가 안 그래도 민지도 할머니가 한숨 쉬는 거 보고 할머니가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위탁가정 보호자 알면 다행이지.

실천가 그럼 노력하신 효과가 있는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있긴, 그 정도 가지고 뭘... 지금은 탐색전 같다고 해야 하나? 지도 나도 좀 조심한다고 봐야죠.

실천가 그러네요. 탐색전도 필요하겠네요. 그럼 민지랑 같이 지내보시니까 내가 알고 있는 손주 그대로다 10, 전혀 아니다 1. 어디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은 절반이에요.

실천가 이번에도 절반이시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은 탐색전이니깐 더 지내보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겠죠.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럼 궁금한데... 할머니가 알고 있는 민지인 게 더 나은가요... 그렇지 않은 민지인 게 더 나은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내가 알고 있는 민지가 아닌 게 낫죠. 오긴 전에는 지 아빠만 닮은 거 같더니 여기 와서 보니 어릴 때처럼 지 엄마 닮은 모습도 좀 보이는 거 같고...

실천가 그래요? 같이 지내면서 몰랐던 민지 모습도 알게 되셨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반찬도 지 좋아한다는 것도 해 줘야 하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지가 알아서 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힘들죠.

실천가 그러시죠. 그럼 민지와 지내면서 '이런 건 도움이 되고 괜찮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지내는 거 그거죠. 다른 거 있나요, 뭐. 뭐 지가 알아서 한다고 딸아이가 얘기 하길래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보고 지낼 때 재들한테 화나고 했던 거 조금은 수그러드는 거 같기도 하고...

실천가 그러시구나...

위탁가정 보호자 더 지나면 어떨지 또 모르죠. 탐색전 끝나고 치열해 질지... 평화로워질지...

실천가 탐색전 동안 어떻게 하면 평화로워질 거라고 보세요?

실천가 그래도 어찌든지 잘 지내려고 애쓰시니까... 그럼 민지와 지내보니까... 앞으로 지낼 때 '이런 걸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뭔가요?

실천가 요즘 애들이 어떤지 알면 도움이 되시겠어요?

실천가 그러게요. 그럼 할머니 생각하시기에 지금은 이대로 지내시면 될지... 뭐 조금이라도 다르게 지내는 게 필요하신지...

실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내시다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가 그럼 지난번처럼 제가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잠시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한숨이 나오는데도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할머니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짐작이 가네요. 지금은 탐색전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탐색을 하는 건 결과보다 더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지가 어떤지 알려고 하셨고 민지가 엄마를 닮은 게 있다는 것도 더 알게 되셨구요.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무조건 닮아달라고 뉴스도 참고하시고... 할머니시니까 하실 수 있구나 싶습니다. 위탁위태하다는 할머니 이야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잘타기하는 곡예사를 보면 떨어질 듯 비틀비틀하면서도 중심을 잡고 떨어지지 않고 줄을 타죠. 앞으로 서로 탐색전이 끝나더라도 민지와 지내는 게 잘타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비틀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오늘 할머니 뵈니까 할머니가 중심을 잘 잡고 가신다면 끝까지 민지와 생활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혼자서 중심 잡기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길 바라는 거죠. 내가 한숨 쉬는 게 자꾸 많아지는 걸 보면 위태위태해요.

위탁가정 보호자 글썄... 말도 별로 안하고... 지 엄마가 이래라저래라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니 나오는 건 한숨뿐이고... 학교 갔다 오면 방에서 귀에 뭘 끼고 불려도 대답도 않고 저러니... 어떤 날은 밥 대신에 편의점 가서 군것질로 때우고... 요즘 애들은 어떤지 공부를 좀 해야 할라나...

위탁가정 보호자 그것도 내가 그냥 하는 소리죠 뭐. 뉴스 보면 가끔씩 애들이 어떻게 저렇다 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 '민지가 하는 것도 거기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구나' 하는 거죠.

위탁가정 보호자 뭐 이대로 지내야지 어찌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3회기 원가정 보호자 면접 · 민지네 ·

(위탁 한 달 후) 병원 입원을 약속하고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갔으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있었고, 위탁센터로 할머니가 연락해서 원가정 보호자 상황을 알려 줘 가정방문해서 면접 진행함.

실천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원가정 보호자** 네, 선생님... 어떤 일로... 아 맞다. 엄마가 전화했다고 그래서...

실천가 네, 그래서 왔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는 왜 그래가지고...

실천가 할머니가 만나라고 하셔서 만나시겠다고 하셨나 보네요... **원가정 보호자** 그냥 알아서 할 거라고 했는데, 전화했다고 하니까...

실천가 할머니 생각이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원가정 보호자** 뭐 엄마가 하라는 거 안 하면 잔소리 많아지니까 그 얘기 들을 기운도 없어요.

실천가 그러신데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왕 만나겠다고 하신 거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낫겠다' 싶은 게 뭔가요? **원가정 보호자** 뭐... 특별히 없는데... (한참 생각 후) 그니까 그냥 집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실천가 그게 무슨 얘기신지... **원가정 보호자** 민지가 있을 때는 힘들었는데 엄마한테 가니까 나도 덜 힘들고 그래서...

실천가 그럼 치료는... **원가정 보호자** 그냥 좀 있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실천가 지난번과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실천가 그러시구나... 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좋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원가정 보호자** 전에도 약간 먹었는데... 그랬는데... 입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실천가 전에도 약간 먹었으니까... 궁금한데... 민지와 같이 지내려면 1부터 10 중에 5가 되어야 하는데, 치료 시작하면 2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원가정 보호자** 제가 그랬었나요? (잠시 후) 아... 그랬었죠.

실천가 그럼 아직 1이신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방광염은 이제 괜찮아요. 그것도 치료한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실천가 그럼요. 그 치료도 하셔야죠. 그럼 이제 2가 되신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그렇긴 한데... 정신과는... 아무튼 좀 있어 보려고요.

실천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있으면, '약 먹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입원해야겠구나' 아실 수 있나요? **원가정 보호자** 글썸... 이제 한 달 좀 안됐으니까... 한두 달 정도 지내보고 괜찮으면...

실천가 괜찮은지 어떻게 아시나요?

실천가 지내보면... 혹시 민지나 할머니한테 지내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실천가 민지와 할머니가 애쓰시네요.

실천가 그럼 어머니가 애쓰실 게 될지도 궁금한데...

실천가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하죠. 민지나 할머니 다 바라는 것이기도 하구요. 누구보다 민지가요.

실천가 제가 이렇게 여쭙 볼게요. 민지와 지낼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실천가 어디가 되면 민지와 같이 지낼 준비가 됐다고 보세요?

실천가 7, 8 정도 되면 어머니 지내시는 게 지금과 다르실 텐데...

실천가 지금과 지내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실천가 활기 있다... 그럼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뭘 하실까요?

실천가 예전은 언제쯤인가요?

실천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실천가 남편한테서?

실천가 그렇게 해내셨구요.

실천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도 거기서 민지를 보호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원가정 보호자 지내보면 알죠.

원가정 보호자 전화 통화했죠. 들어 보니까 학교도 안 빠지고 가고, 할머니와도 생각보다 부딪치지 않고 지내는 거 같고... 민지가 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요구사항 얘기한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엄마도 맘에 안 들어도 참는다고 하니까...

원가정 보호자 생각보다요.

원가정 보호자 저요? 전... 뭐... 내 몸 하나도 어찌지 못하고 있는데... 덜 힘든 거 말고는 딱히...

원가정 보호자 그건 그렇죠.

원가정 보호자 음... 방광염 치료는 끝났으니까 2 정도...

원가정 보호자 음... 그래도 7, 8은 되어야...

원가정 보호자 그렇겠죠.

원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지금보다 활기가 있겠죠. 지금은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누워 있고, 쳐져 있고 그러니까...

원가정 보호자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엄마들 하는 거...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원가정 보호자 그래도 이혼 전에는 남편이 때려도 뭐라도 하긴 했었는데...

원가정 보호자 그러게요... 민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었죠.

원가정 보호자 네.

원가정 보호자 그럼 뭐 해요. 이려고 있는데...

원가정 보호자 (쓱스러워하며) 대단하긴요.

실천가 그리고 이번에도 방광염은 치료하셨고….

원가정 보호자 하나 끝난 거고… 휴… 빨리하긴 해야 하는데….

실천가 그러게요… 어머니 혹시 이야기 좀 더 할 게 있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뭐… 없어요… 아휴… (혼잣말로) 움직이긴 해야 하는데….

실천가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눈 거에 대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민지가 할머니한테 가고 어머니 지내는 게 그나마 나아졌다니 다행이네요. 더욱이 방광염도 나아지셨다고 하고, 어머니가 하루빨리 힘들지 않게 지내시는 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 민지, 할머니에게뿐 아니라 저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민지가 어머니와 같이 지낼 수 있게 될 테고,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민지와 같이 지낼 준비가 2라는 어머니 이야기가 반갑고 감사하네요. 그 첫발을 어머니께서 떼어 주셨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첫발을 떼실 수 있었던 건 힘든 상황에서도 민지를 보호해 온 '엄마의 힘'이 다시 발휘되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7, 8까지 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하셔야 할 것도 더 많으실 텐데… 그 여정도 민지를 보호하는 '엄마의 힘'이 계속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회기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민지네 ·

(전화 상담)

실천가 네, 무슨 일이신지….

위탁가정 보호자 언제든 연락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딸이 병원도 안 가고, 뭐 지 댄에 일한다고 부시력거리더니 지금은 꼴이 말도 아니에요. 민지도 지엄마 병원도 안 가고 저런다고 며칠 전에 성질부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천가 아이구, 그러셨구나. 민지 엄마가 일을 하신 거예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랬다 하더라도요.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다 더 심해진 거 같아요. 드러누워서 뭐 넋 나간 사람처럼 그러고 있다니까요.

실천가 할머니, 저희에게 전화하셨는데… 뭘 하면 전화한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입원하라고 좀 말 좀 해보세요.

실천가 입원하라고… 저희가 가서 이야기하면 민지 엄마가 들을 거 같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거보다는 낫겠지요.

실천가 네, 안 그래도 저희도 민지 엄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지 엄마 만날 때 할머니도 같이 만나는 거 괜찮을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그게 낫다 싶으면 그래야지요.

실천가 시간 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민지 엄마하고 연락하고 시간 정해지면 알려 드릴게요. 할머니 괜찮으신 시간 먼저 알려 주시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암때나 괜찮으니까, 재나 어떻게….

실천가 알겠습니다. 그럼 민지 엄마하고 연락하고 나서 연락 드릴게요.

위탁가정 보호자 고맙습니다.

실천가 할머니 전화하셨으니까… 시간 괜찮으시면 그동안 민지와 지내는 건 어떠셨는지 좀 여쭙 봐도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민지랑요?

실천가 네, 따님 신경 쓰고 하시느라 할머니도 애 많이 쓰셨을 거 같은데….

위탁가정 보호자 아이고 말도 마세요. 민지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저거까지 빨리 나아서 애 데려갈 생각은 뭐 별짓거리나 하고.

실천가 그러셨겠네요. 그럼 민지와 잘 지내고 있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난번에는 절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어떠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 꼬라지로는 내려갔지요.

실천가 따님 상황은 빼고 민지와 지내는 거만… 그럼 어떠신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재가 저런 거는 빼라우요?

실천가 네 민지와 지내는 것만 보시면…

실천가 그러세요? 할머니께서는 따님 일로 더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민지와는 절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실천가 혹시 할아버지께 '민지가 처음 왔을 때 1, 민지가 잘 지낸다 10입니다. 지금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실천가 그렇다고 하셨죠. 그래도 혹시 말을 하신다면…

실천가 왜! 그래요?

실천가 그럼 할아버지가 혹시 말을 하신다고 그러면… 1부터 10 중에 지금 어디라고 하실까요?

실천가 그래요? 그렇게 되도록 할머니가 애 많이 쓰셨겠네요.

실천가 그래도 방광염은 다 나았다고 하셨는데…

실천가 그런데도 어떻게 일을 하셨대요?

실천가 그렇게 생각하신 거 같다… 그거는 따님과 만나서 얘기해 봐야 할 거 같은 한데…

실천가 그러시죠. 그런데도 할아버지도 처음보다는 3, 4 정도 나아졌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해 오신 게 놀랍네요.

실천가 그럼 민지와 지내면서 할머니가 하신 것 중에 이렇게 하니깐 지내는데 도움이 되고 괜찮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지 엄마 저런다고 며칠 전에 성질부린 거 빼면… 뭐 그런 대로 그냥 전처럼 절반 그대로.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민지까지 난리 친다고 생각하면… 아유 그럼 내가 못 데리고 있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위탁가정 보호자 뭐 말 안 할 거예요. 말이 워낙 없으니까.

위탁가정 보호자 음… 생각보다는 괜찮다. 그래도 같이 지낸다고 주말에는 저녁 먹을 때 텔레비전 예능 보는 거. 남편이 그런 거 안 봤는데 민지가 보니까 그냥 같이 보더라고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렇다고 뭐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서 보는 거죠. 민지도 그거 볼 때는 재밌다고 웃고 하니깐.

위탁가정 보호자 음… 한 3이나 4?

위탁가정 보호자 애쓰면 뭐 해요. 딸내미는 나를 생각도 안하고 저러고 있으니! 말짱 도루묵이지!

위탁가정 보호자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이 진짜 문제인데…

위탁가정 보호자 뭐 지 댄에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저절로 낫나요? 그럴 거면 벌써 나왔지!

위탁가정 보호자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그거는 해야 하는 거니까…

위탁가정 보호자 내가 뭐 민지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테레비를 틀던가, 전화를 하던가 뭐 다른 걸 해 버려요. 그래야 안 부딪치니까… 뭐 나 좀 덜 힘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천가 그거 중요하죠. 지금 할머니가 중심이신데…

실천가 그러게요. 지금까지 너무도 잘 버텨 주고 계시고… 그럼 앞으로 지내면서 이런 건 좀 달라지면 낫겠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실천가 그럼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실천가 네, 그러시겠네요. 민지와 지낼 때는 지금까지처럼 하시면 되구요?

실천가 알겠습니다. 더 얘기했으면 하시는 게 있으신지…

실천가 그럼 전처럼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연락해서 따님 지내는 거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님 보면서 할머니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가족의 중심으로 잘 버텨 주셨네요. 그 덕분에 민지하고도 나빠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구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처음보다 나아졌다고 하실 거라는 걸 들으니 할머니의 노고가 얼마나 크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따님이 치료를 하게 돕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 그것이 할머니께도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욱이 따님 만날 때 시간도 내 주신다고 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따님과 연락하고 시간 정해지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심이신 할머니 건강이 중요하니 모쪼록 할머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뭐 지금으로는 나 없으면 다 엉망이죠. 딸도 저러니 내가 버티긴 해야죠.

위탁가정 보호자 더 나빠지지 않고, 그 절반에서 더 내려가지나 않고 지금 이대로 유지만 해 줘도 감사할 따름이지.

위탁가정 보호자 지금은 딸애가 빨리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죠.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위탁가정 보호자 됐습니다.

5회기 원가정 보호자 |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민지네 ·

실천가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예, 잘 찾아왔습니다.

실천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늘 오신 보람이 있어서 할 텐데...

위탁가정 보호자 애 좀 보세요. 아니 입원해서 치료 빨리 하고 민지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원지... 내 답답해서. 니도 여기 선생님 앞에서 말 좀 해봐라.

원가정 보호자 무슨 말을 하라고.

실천가 안 그래도 어머니가 민지와 같이 살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여쭙 봐야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계세요, 어머니?

원가정 보호자 그니까, 준비하려고 일을 했어요.

실천가 그러셨어요? 준비하려고 하셨구나...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준비는 무슨 준비. 되지도 않는 거 한 다고.

실천가 할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얘기 좀 들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말해 봐라. 그럼.

원가정 보호자 또 저런다.

위탁가정 보호자 뭘 또 저래.

실천가 두 분 잠시만요... 어머니 궁금해서요. 민지랑 같이 살 준비하시려고 일도 하셨다고 하셔서... 해보셨으니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어떤지 궁금한데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그럼 내가 뭐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민지랑 살려면 일도 하는 게 나올 거 같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민지가 엄마랑 지내니까 몸도 좀 나은 거 같고 그래서 한 거죠.

실천가 어머니도 어떻게든 민지랑 같이 살 준비를 하시느라고 하셨네요.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해보시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원가정 보호자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진 게 됐어요. 다시 민지 갈 때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 뭐 한다고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난 왜 다 그런지...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게 생각을 똑바로 해야지.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깐 그렇지.

원가정 보호자 엄마는 내가 하는 건 다 쓸데없대. 도대체 왜 그러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내가 뭘 우쭐했다고 그러는 거니? 지 아프다고 지 딸내미 봐줘. 제대로 하라고 말해줘.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원가정 보호자 아이 관둬!

위탁가정 보호자 뭘 관둬? 얘기를 해봐.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뭐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멈춘다)

실천가 두 분 잠시만요. 잠시만...

실천가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민지 어머니께서 하실 얘기가 더 있으신지...

원가정 보호자 아니... 엄마는 맨날 저런 식이에요. 막 싸대니까 할 말이 있어도 그냥 입 닫게 된다니깐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 그럼 가만 있으께, 할 말 해봐 그럼.

원가정 보호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원가정 보호자 네.

원가정 보호자 네.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세요.

원가정 보호자 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니까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먼저 돼야지. 다른 거 하나까 안 되는 거지.

위탁가정 보호자 네 알겠습니다. 니가 얘기해 봐.

원가정 보호자 맘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니까 병원 빨리 가라니까.

원가정 보호자 엄마는 이럴 때 '애고 힘들겠다' 그냥 그래 주면 안 돼? 뭐 맨날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만 하고... 엄마가 맨날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안 나잖아!

원가정 보호자 힘들 때 엄마가 따뜻하게 말해 주면 힘 안 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항상 뭐라고 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지', '고생 많았다' 그런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니 뭐... 나도 지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뭐 안 되라고 그랬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 당연히 낫죠.

원가정 보호자 빨리 나아야지 하는 생각을 더 하겠죠. '엄마도 민지랑 힘들 거다...', 사실 민지가 엄마랑 있으니까 나은 거 같기도 하고, 몸이 편하니까 '그냥 이대로 지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런 말 들으면 나도 '엄마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나도 빨리 나아야지 하는 생각도 더 할 거고...

실천가 지금이 아니라 평소 다른 때... 그러시다는 건가요?

실천가 그럼 제가 좀 여쭙 봐도 될까요?

실천가 할머니 제가 좀 여쭙 볼게요.

실천가 어머니가 이번에 일도 해보셨으니까... 민지가 커서 자기 아이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아픈데도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려면 지금처럼 준비하면 되는 건지... 다르게 뭔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천가 할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이야기 좀 더 들어 볼게요.

실천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번에 해보신 건 아니지만 '다르게 준비해야겠다' 그러신 건가요?

실천가 저...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어머니가 힘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신 건가요?

실천가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가 힘이 되시는군요.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실천가 그러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할머니도 따님이 지금보다 더 힘이 나고 그랬으면 하실 거 같은데... 어떠세요?

실천가 그럼 민지 어머니는 할머니께 '힘들지?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 듣고 힘이 나시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실천가 그러시면 뭘 하실 수 있나요?

실천가 그렇게 어머니가 힘을 내시는 데 할머니가 중요하시네요?

실천가 그렇겠죠?... 할머니, 따님 이야기 들으시니 어떠세요? 이렇게 따님에게 중요한 분이신 줄 아셨어요?

실천가 제가 듣기에는 그것 보다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참 중요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니 제가 들은 게 맞는 건가요?

실천가 할머니 어떠세요? 따님한테 그런 이야기하시는 거... 그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하시는데...

실천가 민지 어머니가 힘이 나고 빨리 낫길 바라시는 거... 두 분이 바라시는 게 같네요! 그렇죠?

실천가 할머니도 그렇게 보세요?

실천가 그럼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빨리 낫고, 힘도 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실천가 저희 경험으로 보면 꾸준히 약 먹으면서 어떤지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면서 약 조절하고 그러시면 일도 하시고 그냥 다른 분들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천가 앞으로 많이 해 주시면 되죠.

원가정 보호자 아마... 다들 얘기하는 병원치료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원가정 보호자 어머니니까... 다들 엄마한테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민지도 그렇겠죠?

위탁가정 보호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렇게 애한테 따뜻한 말 해 주지 않은 나쁜 엄마였나 싶고...

원가정 보호자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위탁가정 보호자 뭐 지가 힘이 난다면 해야죠.

원가정 보호자 그러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게...

원가정 보호자 근데 병원 치료하면 낫는 건가요? 사실 제가 거기 믿음이 안 가서...

원가정 보호자 진짜요?

위탁가정 보호자 (차분한 목소리로) 그니까 너도 빨리 나아야지.

원가정 보호자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눈물을 보이며) 사실 오늘 이런 얘기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눈물을 보이며) 그건 나도 그래요. 잘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알아서 들겠지 그런 생각만 했지... '힘들지' 그 말이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런 말 한번 못 해 줬는지...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지요 뭐. 앞으로 듣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 알았지?

원가정 보호자 엄마는! (미소 지으며) 그런 걸 알아서 해 줘야지.

실천가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거 같다... 생각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한데...

실천가 아유, 귀한 경험하셨네요. 나한테 뭐가 맞고, 안 맞는지 아는 건 필요하잖아요.

실천가 한 달 일하신 경험도 앞으로를 위해 필요하신 경험이었네요.

실천가 어떻게, 더 이야기했으면 하는 게 있으세요?

실천가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실천가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하고 나니 꼭 전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할 동안 찌꺼만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 어머니와 할머니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시간이 참 소중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으로 묵묵히 움직이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지와 살 준비를 위해 일을 하는 걸 시도하실 수 있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놀라웠던 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엄마가 딸에게 다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할머니는 어머니께 이미 그런 분이 되어 계시고, 어머니는 민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애쓰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 한 켠이 꽉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시다고 하니 바로 하시네요! (다 같이 웃음) 오늘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의 빠른 회복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이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결정하시면 저희에게도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병원 가는 거죠. 이번에 일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친구 가게에서 한 달 정도 일했는데, 해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저한테 엄청 스트레스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원가정 보호자 맞아요.

원가정 보호자 (웃음).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 잘했다, 잘했어. 이제 니가 빨리 낫는 거 생각하자.

원가정 보호자 (어색해하며 미소 짓는다) 엄마 내가 맘 먹으면 말할게.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 그래. 알았어.

위탁가정 보호자 뭐 그만해도 될 거 같은데...

원가정 보호자 네.

6회기 아동 | 원가정 보호자 면접 · 민지네 ·

그동안 원가정 보호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후 퇴원하였다.
퇴원 후 면접 교섭 시 원가정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원가정 관계 개선 프로그램: 다시, 봄!>을 진행한 후 면접진행 함.

실천가 어머니는 민지 만나고 나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애 얼굴 봤으니까... 엄마한테 그럭저럭 잘 지낸다는 건 알고 있긴 했는데... 오늘 엄마가 가장 보고 싶었을 때가 자기 전이라는 것과 가장하고 싶었던 말이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게 마음에 남고, 민지랑 같이 이걸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천가 그러셨어요? 민지는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좋았던 게 뭐였어요?

아동 같이 놀러 가자는 거, 사랑한다는 거요.

실천가 그랬군요! 그래서 민지도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해서 괜찮았어요?

아동 네.

실천가 그래요. 두 분 다 좋았다니 저도 좋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민지한테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들으셨어요?

원가정 보호자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죠.

실천가 민지가 그랬어요?

아동 네.

실천가 그 얘기 들으니 어떠셨어요?

원가정 보호자 그새 컸구나...

실천가 그런 거 같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네...

실천가 민지도 그새 본인이 큰 거 같아요?

아동 뭐...

실천가 어머니, 이번에 민지를 만나니까, 이런 게 좀 달라졌다... 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원가정 보호자 글썄... 엄마가 나보다 잘 챙겨 줘서 그런가. 얼굴이며 건강해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실천가 민지는 어때요? 이번에 엄마 만나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뭐였나요?

아동 뭐... 엄마도 전보다는 건강해진 거 같은데...

실천가 엄마와 딸 아닐까봐 두 분 다 같이 건강해지신 거네요?

원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그런가요?

실천가 어때요? 민지 보기에는 엄마랑 민지랑 다 건강해진 게 똑같은 거 같아요?

아동 뭐... 그런 거 같기도...

실천가 그리고 또 이런 게 달라졌다 하는 게 뭔가요?

원가정 보호자 건강해져서 그런가. 더 예뻐졌어요.

실천가 그 사이에요?

원가정 보호자 제 눈에는 그러네요.

실천가 역시 엄마 눈에는 다르군요. 민지는 엄마 달라진 게 뭐가 더 있어요?

아동 엄마도 예뻐졌어요.

실천가 어! 두 사람이 같은 게 또 있네요? 또 뭐가 더 있어요?

아동 집에는 언제 가?

원가정 보호자 엄마가 약도 잘 먹고 그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동 그니까... 조금만이 언젠데?

실천가 잠깐만... 민지가 여전히 언제 집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한가 보네요?

아동 네.

실천가 민지는 그게 궁금하긴 하겠네. 그치?

아동 네.

실천가 지금 엄마가 한 얘기 들었죠?

아동 무슨 얘기로!

실천가 엄마가 약 잘 먹고 있다고 한 얘기...

아동 엄마 퇴원하고 치료하니까 된 거 아니에요? 난 집에 가고 엄마는 계속 약 잘 먹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가 그러게... 그건 엄마한테 물어볼까? 어머니! 민지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가정 보호자 엄마가 또 할머니한테 보내지 않고 계속 같이 살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엄마가 아프지 않는 게 좋잖아, 그치?

아동 ...

실천가 민지한테 물어볼게요.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 10, 전혀 아니다 1 이번에 만나고 나서는 어디예요?

아동 10!

실천가 10!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원가정 보호자 민지가 그런 줄 저도 알긴 알죠. 그래서 퇴원하고 약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있고... 근데 병원에서도 약 조절하면서 통원치료하고 당분간은 민지가 할머니와 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실천가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원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민지 키울 생각해서... 전처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사나 생각도 해야 하고...

실천가 어머니께서 앞으로 민지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준비하시는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실천가 민지는 엄마가 앞으로 민지랑 같이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았어요?

아동 아니요.

실천가 엄마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아동 아이~ 그래도 집에 가고 싶은 건 가고 싶은 거라구요.

실천가 그럼, 그건 그렇긴 하죠. 민지는 엄마가 준비를 잘해서 쪽 같이 지내는 게 나아요, 준비 안 하고 빨리 민지 오라고 해서 지내다가 또 아파서 병원 가고 그러는 게 나아요?

실천가 민지는 어때요?

실천가 민지가 어른이 되어 가고 있네요!

실천가 그럼 민지는 앞으로 뭐가 달라졌으면 하나요?

실천가 엄마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가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하는 동안 민지는?

실천가 혹시 민지가 생각한 게 있나 해서... 그럼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계속 자신 있다 10, 자신 하나도 없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예요?

실천가 그래요. 어머니는 난 이런 거 있으면 잘 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으세요?

실천가 각자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서로에게 힘이 되시는 거네요?

실천가 혹시 앞으로 이렇게 만날 때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 궁금한데...

실천가 그럼요.

실천가 뭐 그건 의논하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더 얘기했으면 하는 거 있으세요?

실천가 민지는 엄마한테 할 얘기 있어요?

아동 ...

원가정 보호자 지금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있는 김에 좀 더 있다가 엄마가 준비 아주 아주 잘해서 민지 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응?

아동 ...

아동 (한참 생각 후) ... 알았어요.

원가정 보호자 우리 민지 착하네. 할머니네 가기 전하고 달라졌어요.

원가정 보호자 그러게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대!

아동 몰라!

아동 그냥 엄마가 빨리 낫던지 뭐 준비를 하던지 해서 집에 가면 좋겠어요

아동 네.

아동 지금까지 할머니 말 들으면서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뭐 더 해야 돼요?

아동 10이요. 난 자신 있으니까 엄마만 잘하면 돼요.

원가정 보호자 민지가 잘 지낸다는 얘기 들으면 저도 더 잘해 낼 수 있을 거 같아요.

원가정 보호자 그렇게 되네요.

아동 집에서 봐도 돼요?

원가정 보호자 주중에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해야 하니까, 주말에 집에 오든가 제가 할머니 집으로 가던가 해서 만나도 되나요?

원가정 보호자 민지야 엄마가 노력할 테니까 너도 할머니 말 잘 듣고 지내. 엄마랑 전화 자주 하자.

아동 내가 양보했으니까 엄마가 잘하라고!

원가정 보호자 그래, 알았어.

실천가 그럼 제가 엄마와 민지에게 전하고 싶은 걸 전하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민지와 어머니가 다시 함께 지내기 위한 같은 바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바람으로 민지는 민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놀랍게도 그 동안 두 분이 모두 달라진 것까지도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같은 모습을 보이셨네요. (원가정 보호자와 민지 웃음) 이제 어머니가 민지와 같이 살기 위한 단단한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그 준비가 앞으로 두 분이 살아가는 데 단단한 토대가 되길 바라며, 두 분이 준비하시는 앞으로의 날들에 저도 함께 힘껏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지에게 쉽지 않은 엄마를 위한 양보는 엄마가 준비를 잘해 내는데 가장 큰 응원이 된다고 봅니다. 민지와 엄마 두 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7회기 원가정 보호자 면접 ·민지네·

실천가 어머니 이제 한 학기 지나면 민지 고등학교 갈 때도 됐고 한데... 어머니 사정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만나자고 연락 드렸어요.

실천가 그러게요. 지난번 얘기 나눈 후로 지내는 게 뭐가 좀 나아지셨나요?

실천가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쭙 볼게요. 민지와 지낼 준비가 되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실천가 그때 민지와 같이 지내게 되면 5는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천가 4라는 건...

원가정 보호자 네, 시간이 그렇게 됐죠...

원가정 보호자 약 먹는 양도 좀 줄었고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도 약 먹으니까 전처럼 다시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도 이 정도면 4 정도는 되지 않았나...

원가정 보호자 맞아요. 그랬어요.

원가정 보호자 사실 처음에는 일해서 돈도 좀 벌고 그리고 민지 데려와야지 했었거든요. 근데 일도 해보니 제가 그럴 만하지도 못하다는 것도 알았고... 이제 약 먹으면서 전처럼 되지 않으면 민지랑 지내는 데 무리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4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천가 4면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원가정 보호자 민지도 자꾸 오겠다고 하고, 저도 약 먹으면서 괜찮고 하니...

실천가 지금 괜찮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원가정 보호자 5개월째 돼요.

실천가 5개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하나요?

원가정 보호자 뭐 병원에서는 약 꼬박꼬박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하죠. 뭐 거기서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천가 그렇겠네요... 어머니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니까 4는 된다...

원가정 보호자 네...

실천가 혹시 '다시 전처럼 될 거 같다...' 지금까지 몇 번 그러셨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원가정 보호자 불안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 같네요.

실천가 혹시 지내시다가 그럴 거 같다 그러면 전과 달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병원에서는 약 꼬박꼬박 안 챙겨먹으면 또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선 약 잘 챙겨 먹어야죠.

실천가 그러셔야죠. 그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약 잘 챙겨 먹을 거다 10, '에이 좀 귀찮으면 안 먹고 그럴 거다' 10이라면 1부터 10 중에 어머니 의지가 어디세요?

원가정 보호자 그야 10이죠.

실천가 왜! 어머니 의지가 남다르시네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실천가 처음에 민지가 할머니와 부딪칠까 걱정도 하셨는데... 어떠세요? 민지와 할머니는 어땠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어떠신지...

원가정 보호자 전에 같이 얘기한 후로 엄마도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어떤 때는 예전 모습이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전보다 힘이 빠져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달라지면 죽는다는데... 어디 아픈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감정 이에요.

실천가 그러시겠네요. 그래도 할머니가 달라지셨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아셨어요?

원가정 보호자 아뇨. '우리 엄마는 평생 잔소리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때 얘기한 게 계기가 되었던 거 같아요.

실천가 다행이네요.

원가정 보호자 맞아요. 다행이죠. 그 덕에 엄마와 민지도 그나마 큰 탈 없이 지내고 있는 거 같아요. 민지도 전보다 할머니 집 싫다는 얘기도 줄었고.

실천가 와 그래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할머니께 가족들에게 중심 역할을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신 거 같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원가정 보호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버티고 있어서 민지도 저도 지금이 있는 거겠죠.

실천가 물론 어머니도 애 많이 쓰셨죠.

원가정 보호자 저야 제 몸 하나 가누는 거 한 거죠. 앞으로는 저도 민지한테 엄마 노릇 해야 할 텐데...

실천가 궁금한데... 처음에 민지가 나중에 자기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가정 보호자 그럼요. 그때 좀 뒤통수 맞은 거 같아서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실천가 그럼 지금처럼 하면 그 이야기 들을 수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어디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지금 이대로면... 그래도 6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웃음).

실천가 그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원가정 보호자 충분하다기보다 이번을 계기로 절반은 넘었다. 그리고 남은 건 앞으로 더 채워 나가야죠.

실천가 남은 건 이제 앞으로 채워 나가는 걸로... 그러네요.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언제쯤 민지를 오라고 하실 계획이세요?

원가정 보호자 뭐, 시에 얘기해야 한다던데요?

실천가 네, 이야기하시고 집에 가는 거 괜찮다고 그러면 돌아가서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몇 번 가질 거예요. 가족이라도 떨어져서 지내면 항상 보는 게 아니니까 낯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낼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가정 보호자 한 달 내로 구청에 얘기할까 해요.

실천가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이야기 듣고 제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오늘은 어느 때보다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가운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어머니가 그동안 민지와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해 오셨기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어머니가 그동안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어 오신 결과로 이제 민지와 같이 지내는 준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민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같은 바람을 가지고 때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때로는 서로에게 맞춰 가면서 이 시간을 견뎌 내셨네요. 그런 가족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가 남았네요. 이 시간을 잘 견뎌 내신 저력이 있으시니 앞으로 민지와 지내시면서 나중에 민지가 자기 아이에게 전하는 할머니 이야기도 꼭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역할 종료하기

위탁기간이 끝나고 원가정 복귀가 결정되면 그 동안의 역할을 종료하게 된다. 여기서는 원가정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활용하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실천가는 앞으로 활용할 것과 새롭게 시도할 것들을 점검하고 연습하게 하면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준비한다.

1) 실천에 유용한 필수 질문

아동 | 원가정 보호자용

- 「원가정 복귀프로그램: 다시,Go!」 진행
(아동학대사례인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복귀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위탁가정 보호자용

- 아이와 지내면서 보람된 게 무엇이었나요?
- 처음 왔을 때랑 달라진 게 무엇인가요?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 (원가정 보호자)에게 '아이가 여기서 지내는 걸 보면서 뭐가 가장 고마웠나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 (아이)에게 '여기서 지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고마웠어요?'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 아이와 그 동안 지내셨으니까... (원가정 보호자)에게 앞으로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Tip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따로 진행한 후, 위의 필수 질문 마지막에 제시된 질문에서 들은 것을 프로그램 후 원가정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Tip

프로그램의 적절한 간격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복귀 준비 실천가가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원가정 보호자와 아동의 일상생활이다. 이벤트로 친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은 같이 지내면서 서로의 습관을 알아가고 받아들이면서 지낸다. 위탁가정에서 보호자와 아동이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수록 일상에서 차이가 커지므로 실천가는 원가정 보호자와 아동에게 프로그램을 진행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경험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도록 돕는 질문을 한다.

2) 프로그램 :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다시, GO!'

(1) 프로그램명: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다시,GO!'⁴⁾

(2) 진행시기

구분	프로그램명	진행시기	장소
1회기	우리 가족 열차 재운행 준비	원가정 복귀 결정 후	합의한 장소
2회기	우리 가족 열차 재운행 계획	원가정 복귀 전	
3회기	우리 가족 열차 운행 점검	원가정 복귀 후 1개월 이내	아동 집
4회기	우리 가족 열차 재운행 축하하기	원가정 복귀 후 6개월 시점	

(3) 세부사항

- ① 소요시간: 각 회기당 1시간 이내
- ② 수행인력과 역할

구분	역할	준비물
주 진행자	- 사전 준비	- 가족사진
	- 프로그램 진행	- 포스트잇 이젤패드(대형 포스트잇) 또는 화이트보드
보조 진행자	- 사전 준비	- 철로그림 있는 척도지
	- 진행 기록	- 필기도구

4) 2022년 <원가족 관계개선과 원가정복귀 가이드북>의 원가정복귀프로그램(50~54p, 64p)과 사후관리프로그램(74~77p, 83p)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수정함. 프로그램 진행 예시는 같은 책 55~63p, 65~71p, 77~82p, 84~86p를 참고할 것.

· 가족이 표시한 후, 다음 질문을 하면서 변화를 지지하고 강화한다.

- (가족이 표시한 곳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나요?
-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e. 1년 후 우리가족은?

그럼 앞으로 1년 후에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철로 위에 다른 색으로 다시 표시하게 한다.)

그럼 그때는 (보호자/아동)은(은) 지금과 뭘 다르게 할까요?

(이야기를 들은 후 아동과 보호자에게 각각 다음 질문을 한다.)

아동에게	보호자에게
· (보호자)가 다르게 할 거라는 걸 들어 보니 어때요?	· (아동)이 다르게 할 거라는 것을 들어 보니 어때세요?
· 혹시 (보호자)가 다르게 했으면 하는 게 더 있나요? 그 정도면 괜찮은가요?	· 혹시 (아동)이 다르게 했으면 하는 게 더 있으신가요? 그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가족들이 다르게 했으면 하는 게 더 있다고 하면)

- 우와! 기대가 많(으시)네요!!
-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디서 봤나요?

f. 열차이름 짓기

· 가족의 의견을 모아 열차 이름을 결정한다.

앞서 가족 자랑도 듣고, 앞으로 기대도 듣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 열차의 재출발을 위해 열차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정할까요?

② 2회기 a. 인사 나누기

· 참석자들이 서로 소개하고 인사를 나눈 후 다음을 진행한다.

b. 순조로운 운영을 위한 계획 세우기

(다른 참석자가 있는 경우: 참석한 것에 대한 인사를 전한 후)

자, 지난번에 가족 열차 이름을 ()라고 정했잖아요. 오늘은 앞으로 ()가족 열차를 잘 운행하려면 가족이 어떻게 하면 될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ip

가족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라고 반드시 물어 대답을 듣는다. 가족 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모이면, 그 사람(참석자)이 얼마 동안, 무엇을 하면 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c. 마무리

· 가족이 무엇을 할지 이야기한 내용을 적은 종이를 보호자에게 주고 마무리한다.

③ 3회기 a. 인사 나누기

· 간단하게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b. 열차운행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그동안 ()열차 재운행은 어떠셨나요?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겠다고 한 게 있잖아요. 해 보시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Tip

· 이런 경우 흔히 실천가는 당사자가 약속을 지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약속한 거 해보셨나요?'라고 질문하곤 한다. 그러나 실천가가 중요하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가족이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함께 생활하면서 잘 지내게 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 그러므로 '해보니 어떠셨나요?' 또는 '해보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유용하다.

시도하고 긍정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시도하고 부정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시도하지 못했다고 할 때
· 와!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 그렇게 하시니까 가족과 지낼 때 이전과 뭐가 달랐나요?	· 그러셨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 다시 이야기하면 될까요? · 혹시 지난번 이야기한 것 중에 '그래도 이건 조금은 괜찮았다.' 하는 건 무엇이었나요?	· 사정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 이번에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하면) '와! 대단하시네요' 등과 같이 칭찬한다.	(대답하면) 지난번 이야기한 것에서 무엇을 다르게 하면 될까요?	

c. 열차운행을 위해 계속해야 할 것

그동안 해보셨으니까, 가족 열차가 순조롭게 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d. 열차운행을 위해 다르게 해야 할 것

그동안 해보시면서 '앞으로 이걸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건 무엇이었나요?

e. 마무리

시도했을 때	시도하지 못했을 때
()가족열차가 (숫자)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오늘은 1부터 10 중에 어디인가요?	()가족열차가 (숫자)에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야기한 대로 하면 1부터 10 중에 어디가 될까요?

④ 4회기 a. 인사 나누기

· 간단하게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b. ()우리가족 열차 이렇게 운행 했어요.

오늘 6개월여 동안 ()가족 열차의 순조로운 운영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동안 ()가족 열차가 1부터 10중에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네요. 어디까지 왔나요?

(답한 숫자)까지 오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해 오셨는지 자랑 좀 해 주세요. (다른 참석자에게) 다른 분들도 그동안 가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주세요.

c. 앞으로의 가족의 대처방법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텐데... 앞으로 지내시면서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d. 그동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

그동안 경험을 통해 '이런 걸 알게 되었다.'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e. 가족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와 상장 전달하기

3) 진행 예시

사례 1 친인척외 가정위탁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진영이네 ·

실천가 진영이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전보다 자주 집에 가고 하는데... 없을 때는 허전하더라고요. 사람 드는 건 표가 안 나도, 나는 건 표가 난다더니... 아주 가고 나면 더하겠죠.

실천가 그렇겠죠. 이제 준비 마무리되면 가는 거네요. 그동안 진영이와 지내면서 보람된 게 무엇이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잘 따르고 잘 커 줬으니 그게 보람이죠 뭐. 저희 아이들도 잘 도와줬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 해봤으면 한다고...

실천가 그러셨죠. 어떠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사실 '뭘였더라' 그럴 때도 많고, 내가 했던 게 기억도 잘 안 나긴 했어요. 그게 부족했던 거 그런 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진영이가 잘 지내는 데 아이들이 큰 보탬이 됐죠. 사실 우리 애들한테 고마운 맘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걸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것도 보람이었죠 뭐.

실천가 자녀 분들이 도와주신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진영이 처음 왔을 때랑 달라진 게 무엇인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진영이가 큰 게 제일 많이 달라진 거구요.

실천가 그렇죠. 그럼 이모님 보시기에는 진영이 잘 컸다 10, 아니다 1 어디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제 자랑 같지만 10이죠.

실천가 그럼요 10이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웃음).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사실 진영이만 큰 게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가족도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직장 다닌다고 집에는 관심도 없던 애들이 늦둥이 동생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뭐 지들이 알고 있는 거 알려 주고 하면서, 애들과 친해졌어요. 왜, 집에 애들이나 강아지 있고 그러면 식구들이 공통 주제가 있어서 얘기가 많아진다더니, 우리가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진영이 덕을 본 거죠.

실천가 클 수 있게 서로 도우셨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맞아요.

실천가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신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누구 하나만 도운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진영이도 포함해서 다 같이 서로 클 수 있게 도왔다고 봐요.

실천가 혹시 진영이 아버지에게 '진영이가 여기서 지내는 걸 보면서 뭐가 가장 고마웠나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천가 그런 거까지 생각하셨군요. 역시! 그럼 진영이한테 '여기서 이모네와 지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고마웠어요?'라고 물어보면 진영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나요?

실천가 물론 그러실 거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한데...

실천가 그러셨구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실천가 이모님! 이제 진영이는 아빠와 지내게 될 거고... 진영이와 그 동안 지내셨으니까... 진영이 아버지에게 앞으로 진영이 키우는 데 도움될 만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실천가 알겠습니다. 진영이 아버지에게 진영이가 집에 가기 전에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전하던 얘기 대신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장을 준비해서 전달한다.)

* 감사장에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가정위탁을 하는 의미를 활용해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위탁가정 보호자 글썄요... 음... 진영이가 무사히 자랄 수 있게 해 준 거라고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빠가 혼자 데리고 있는 거보다는 먹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가 기본생활습관 익히는 것도 그렇고 배워야 하는 나이에 옆에서 챙겨 줄 사람이 있는 게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진영이가 학교 다니고 그랬으면 공부하네 마네 그런 거 가지고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어쩌면 다행히 그 전에 진영이가 아빠랑 지내니까 우리와 그런 갈등은 없이 잘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는구나 싶더라구요.

위탁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진영이는 들어나마나 먹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할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음... 그리고 진영이가 가끔 와서 폭안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한참 안아줬거든요. 그래 줘서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 뭐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애들이 그런 거 꼬치꼬치 묻지 말라고 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지가 만족할 때까지 안아 줬죠. 나중이라도 힘든 일 있거나 그럴 때 생각나서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탁가정 보호자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위탁가정 보호자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것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영이가 가족의 따뜻함을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거죠.

위탁가정 보호자 (쓱스러워하며) 아이 뭐 대단하긴요.

위탁가정 보호자 사실 요즘은 학교 가도 힘들다 하더라구요. 혼자서 키우는 게 힘들 텐데 용기 잃지 말고 잘해 나가길 바라구요. 진영이는 예민한 아이니까 뭐 아빠도 알고 계시겠지만, 컷다고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아이 잘 살피면서 지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네요.



감사장

진영 이모님!

2000년 0월부터 2000년 0월까지 0년 0개월 동안 진영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진영이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이모님과 가족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0월

OO 가정위탁센터 드림

위탁가정 보호자 면접 · 민지네 ·

실천가 할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실천가 오늘은 그동안 민지 데리고 있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 몇 가지 여쭙 보려고 하는데...

실천가 네... 그러네요.

실천가 민지 맡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민지 맡아서 그래도 이런 건 보람 있구나 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실천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더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계셨죠.

실천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중심 잘 잡고 계신 덕분이죠. 민지가 처음 왔을 때 생각하시면... 지금 달라진 게 무엇인가요?

실천가 어쿠, 할아버지가요?

실천가 그러네요. 그럼 민지랑 지내는 게 1부터 10 중에 절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절반에서 어떻게 됐나요?

실천가 네, 확실히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이제 제자리 찾아가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동안도 많이 물어봤는데, 뭐 더 있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물어보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보람 있다기보다 딸아이를 알았다고 해야 할까... 그때 얘기하고 나서 나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오던 거 금방 고쳐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다가도 가끔씩 '아! 그만해야겠다' 내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걸게 되더라구요. 민지도 그 덕을 봤구요.

위탁가정 보호자 중심은... 선생님이 자꾸 중심 중심, 하니까 그래도 중심 잘 잡고 있었다 싶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일단 키도 크고, 처음에는 애다 싶었는데 1년 반 정도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보면 이제는 숙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처음보다 좀 친해지기도 했고, 나랑만 그런 게 아니고 지 할아버지도 얼마 전에는 나갔다가 빵을 사들고 오더라고요. 민지 주라고.

위탁가정 보호자 생전 뭐 사 들고 오는 게 없던 사람인데. 그런 거 보면 보람 있었네요(웃음).

위탁가정 보호자 얘기하다 보니 그래도 절반에서 올라간 거는 확실하다. 그렇죠?

위탁가정 보호자 사실 지내는 건 비슷해요. 그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필요한 생각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겠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가끔 내가 알아서 브레이크도 걸고 그러다 보니 민지나 딸애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야 되나 전에는 뭔지 모르는 벽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허물어졌다 그래야 되나? 이걸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작정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실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소리 없이 조금씩 그런 건가요?

실천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게 대단하시죠.

실천가 그럼 따님한테 '민지가 할머니와 지내는 걸 보면서 뭐가 가장 고마웠나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실천가 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실천가 그러시겠네요. 그럼 앞으로는 따님과 민지가 지내야 할 텐데... 관심을 거 같으세요?

실천가 그럼 혹시 따님한테 도움이 필요할 거 같으세요?

실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실천가 그렇게 하면 따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실천가 따님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실천가 할머니 이렇게 따님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알려 주시겠어요?

실천가 그렇죠. 그럼 혼자서만 생각하실 거예요?

실천가 그게 알려 주실 방법이면요?

실천가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민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고마웠어요?'라고 물어보면 민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맞네요. 그게 딱이네.

위탁가정 보호자 뭐 그리 얘기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동안 돌봐 준 거라 하지 않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지도 전화했을 때도 얘기도 전보다 많이 하고, 생전 물어보는 거 없는 애가 음식 만드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다른 집처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전보다는 우리도 얘기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런 게 고맙지 않을까 싶은데...

위탁가정 보호자 사실 그게 걱정이긴 해요. 약 먹고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또 안 좋아지면 어쩌나 싶고...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요. 반찬도 좀 해다 줘야 할 거 같고...

위탁가정 보호자 엄만데 안 할 수 있나요. 지들 관심이면 주말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내가 밥해 주니까 지도 좀 쉬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위탁가정 보호자 힘이 좀 덜 들겠죠. 그래야 민지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 이래저래 생각해 본 거예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내가 지금껏 잔소리하고 하던 거 바꾸지는 못해도 이런 거라도 하면 애 마음에 좀 보상이 될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가정 보호자 뭐 동네방네 '내가 니 생각 많이 한다' 그럴 필요 없죠.

위탁가정 보호자 아니... 그럼 주말에 그렇게 하자고 얘기 볼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반찬은 내가 해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집에 오라는 건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말이나 할라나...

실천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민지가 이야기한다면...

실천가 그럼요. 그러니까 민지도 그렇게 달라졌죠!

실천가 그래서 할머니가 대단하시죠. 한 1년 반 동안은 그래도 할머니가 민지와 가장 많이 지내셨으니까... 따님에게 민지와 지낼 때 도움이 될 만한 거 알려 주실 게 있으세요?

실천가 민지가 그렇게 할 거 같으세요?

실천가 역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고 계시고... 역시 중심이시네요.

실천가 저는 다 여쭙 봤는데 혹시 할머니, 더 했으면 하는 얘기 있으세요?

실천가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메시지 준비 후)

실천가 그동안 가족의 중심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 내신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지나 따님의 힘든 시간이 더 나아지는 준비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민지와 따님에게만 더 나아지는 시간에 그치게 하지 않고 할머니와 따님이 서로 알아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중심을 잘 잡고 계시는 건 앞으로도 가족 모두에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분이신 만큼 건강하시구요.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할머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장을 준비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 그게 말은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요즘에는 얼굴도 풀렸고, 처음에는 인상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밥 먹고 잘 먹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고마운 게 있기는 있는 거겠죠?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 다행이죠. 뭐 주위에 손주들이 상대도 안 해 준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도 난 그렇지 않은니까.

위탁가정 보호자 가끔씩 성질부리기는 해도 잠깐이예요. 그건 지엄마도 알 거고, 다른 건 지 알아서 잘 하는 편이라... 오히려 민지가 지엄마를 챙겨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지도 컸으니까...

위탁가정 보호자 모르죠. 지가 안 하면 내가 반찬하고 그러면서 챙겨 줘야지 뭐.

위탁가정 보호자 (웃음).

위탁가정 보호자 없어요.



감사장

민지 할머니, 할아버지!

2000년 0월부터 2000년 0월까지 0년 0개월 동안 민지와 민지 엄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이 채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사랑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0월

OO 가정위탁센터 드림

IV

다양한 상황에서 강점관점 해결중심 접근으로 개입하기

124 1. 역할 수행하기에서 다양한 상황

아동

- ① 원가정 보호자를 거부하는 아동
- ② 위탁가정을 거부하는 아동
- ③ 원가정 보호자 존재를 모르다가 알게 된 아동

원가정 보호자

- 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원가정 보호자
- ② 상황에 변화가 있는 원가정 보호자
- ③ 위탁보호자에 관해 불평하는 원가정 보호자
- ④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는 없고, 아이만 만나려고 하는 원가정 보호자

위탁가정 보호자

- ① 아동을 계속 키우고 싶다는 위탁가정 보호자
- ② 아동에 대한 불평과 갈등이 있는 위탁가정 보호자
- ③ 원가정 보호자를 믿지 못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147 2. 역할 종료하기 및 종료 후 다양한 상황

- ① 위탁종료 후 위탁가정을 그리워하는 아동
- ② 원가정 복귀 준비 중에 복귀를 번복하는 원가정 보호자
- ③ 출소 예정인 원가정 보호자
- ④ 갑자기 나타나서 아동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원가정 보호자
- ⑤ 복귀 준비를 회피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 ⑥ 위탁 종료 후 우울해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다양한 상황에서 강점관점 해결중심 접근으로 개입하기

현장에서는 초기부터 강점관점해결중심 접근으로 개입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례들도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초기부터 강점관점해결중심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실천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개입해 나갈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역할 수행하기에서 다양한 상황

1) 아동

1 원가정 보호자를 거부하는 아동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를 거부하는 경우 실천가는 아동에게 '그래도 (원가정 보호자)를 만나는 게 (아동)에게 좋은 것이고, 만나게 하는 건 (아동)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아동을 설득하려 하기 쉽다. 그런데 아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나기 싫다고 한 자신의 의견을 실천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실천가는 아동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면 먼저 '그럼,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인 후, 아동이 거부하는 아동 나름의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해 나가면 도움이 된다. 질문에 대한 아동의 대답을 통해 실천가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지금까지 아동과 원가정 보호자 간에 해왔던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도와야 하는지, 예외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지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런 다음 면접 예시를 통해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자.

1 예시 1. 시한부인 원가정 보호자는 아동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아동은 거부하는 상황

말기암 환자인 어머니를 만난 초등학교 3학년 현이는 어머니가 무섭다고 하면서 다시 만나기 싫다고 한다.

아동 엄마 무서워요. 이제 엄마 안 만날 거예요

실천가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럼 현이가 생각한 엄마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동 그건 아니지만... 저건 아니예요.

실천가 그래요. 뭘지 모르지만 지금 엄마 모습은 아니다...

아동 네, 아니예요. 무서워요.

실천가 그래 그럴 수 있죠...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 건데... 현이도 알아요?

아동 아픈 사람 다 엄마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엄마만 왜 저래요?

실천가 그럼, 다 그렇지 않죠. 어머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서... 그러니까 엄마보다 조금 아픈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아동 많이 아프면 다 저렇게 돼요?

실천가 무슨 병인지,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동 ...

실천가 혹시 현이는 엄마보다 더 아픈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동 아니요.

실천가 그럼 더 그럴겠네. 그럼 현이는 어머니가 아프지 않으면 볼 거예요?

당사자에 따라 다음의 예시1-1과 1-2와 같이 다르게 질문할 수 있다.

예시 1-1

실천가 현이는 어머니가 아프지 않으면 볼 거예요?

아동 그래도 안 봐요.

실천가 정말?

아동 네.

실천가 현이는 엄마 안보는 게 더 괜찮아요?

아동 나도 화났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엄마 맘대로잖아요. 안 오다가 인제 아프다고 보자 그러고.

실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래요?

아동 그래야 공평해요.

실천가 공평해야 하나까...

아동 그러니까 안보는 거 내 맘이에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궁금한데... 현이는 몇 번 안 본다고 하면 엄마랑 공평해지는 거예요?

아동 5번?

실천가 아! 어머니가 보자고 해도 현이가 안본다고 5번 하고 나면 공평해지는 거예요?

아동 네.

실천가 그때 되어도 어머니가 계속 많이 아파도 괜찮아요?

아동 ... 계속 아파요?

실천가 의사선생님이 계속 많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동 의사선생님이 고쳐 주면 되잖아요.

실천가 그러게... 의사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머니는 못한다고 했대요.

아동 그럼 엄마 많이 아프니까 3번으로 바꿀게요.

실천가 왜! 현이가 어머니한테 큰 양보를 했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동 괜찮아요.

실천가 현이는 엄마가 아프지 않으면 볼 거예요?	아동 안 아프면 볼 수 있어요. 안 무서우니까
실천가 그럼 현이는 엄마가 지금과 달라지면 볼 거예요?	아동 네. 지금은 머리칼도 없고, 얼굴도 귀신같아요.
실천가 그럼 머리칼은 어떻게 달라지면 괜찮아요?	아동 사진에 있는 엄마 머리처럼요.
실천가 그렇게... 그럼 얼굴은?	아동 음... 그것도 사진처럼.
실천가 근데... 지금 엄마가 많이 아프서 그때처럼 되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죠?	아동 뻘뻘 말라도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실천가 아! 마른 건 괜찮은데 뭐 얼굴에 화장도 하고 그러면 괜찮을 거 같아요?	아동 네. 만화영화에 유령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무섭지 않은 유령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천가 그럼 이번처럼 말고 다르게 하고 만나서 엄마보고 현이가 괜찮다, 아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동 네. 할 수 있어요.
실천가 혹시 다음에 엄마 모습이 현이 맘에 안 들면 안 본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아동 고치라고 얘기할래요.
실천가 음... 혹시 현이가 얘기한 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아동 그래도 엄마가 하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실천가 와! 현이가 맘이 넓은 사람이네요.	아동 (웃음).

실천가는 이후 진행 시 예시1-1에서는 원가정 보호자에게 현이가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라고 전하면서 아동이 이후 3번 거부하는 시간을 주면서 만나기를 기다리게 돕는다.

예시1-2에서는 원가정 보호자와 이전과 아동을 만날 때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돕는다. 그러면서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의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하면서,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게 도울 수 있다.

1 예시 2. 원가정 보호자가 하는 행동이 싫다고 만나기를 거부하는 청소년

면접 교섭 때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 오는 고1 인석이는 엄마가 술을 안 마신다고 약속하고 계속 마신다며 엄마를 안 만나겠다고 한다.

예시 2-1 예외가 있는 경우

아동 집에 가면 엄마가 술 마셔서 가기 싫어요. 안 마신다고 하고서는 꼭 밥 먹을 때 한 잔만 그러고는 또 마시고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하다가 싸우고... 계속 그러니까 지겨워요.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래도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아동 얘기를 안 하면 더 하니까요.
실천가 그럼 엄마가 인석이 얘기를 듣나 보죠?	아동 안 듣는 편은 아니죠.
실천가 그래요? 그럼 엄마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하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인석이 얘기를 들을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동 음... 말 안 들으면 내가 같이 안 산다고 할까 봐... 그렇게 말할 거 같아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엄마는 인석이란 사는 게 중요한가 봐요?	아동 맨날 그러다고 말만 해요.
실천가 엄마가 인석이 말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아동 네.
실천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엄마 처음 만났을 때를 1이라고 하고, 내가 바라는 엄마가 10이라고 할 때 지금은 어디예요?	아동 음... 한 5나 6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실천가 그래요? 처음에 1인데 지금은 5나 6?	아동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 '어머니! 어떻게 5나 6까지 올 수 있으셨나요?'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동 내가 마시지 말라고 해서 그러다고 할 거예요. 그 얘기도 하거든요. '나가 마시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먹었잖아.'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또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럼 아까 지금 5나 6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인석이가 엄마를 잘 알 테니까...	아동 최소한 8까지는 할 수 있다고...
실천가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봤기에 8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동 얼마 전까지는 거의 안 마셨어요. 요즘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실천가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아동**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보더라구요. 제일 친했었어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엄마가 다시 안 마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혼자서 엄마가 할 수 있으신지... 혹시 뭐라도 도움이 필요하신지... 인석이 보기에 어때요? **아동** 뭐 도움되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실천가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얼마 전까지 술을 안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움이 된 게 뭐였나요?

(중략)

이처럼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예외가 있었을 때 차이가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당사자는 대답을 하면서 이를 활용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도 있다.

예시 2-2 예외도 없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경우

아동 집에 가면 엄마가 술 먹어서 가기 싫어요. 안 먹는다고 하고서는 꼭 밥 먹을 때 한 잔만 그러고는 또 마시고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하다가 싸우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지겨워요.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래도 혹시 엄마가 '이럴 때는 덜 마신다' 그럴 때는 언제예요? **아동** 몰라요! 맨날 그래요.

실천가 그래도 인석이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아동**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요.

실천가 그런데도 인석이는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했네요? **아동** 안 그러면 답답해 죽겠는데 어떡해요!

실천가 그럼 엄마가 들은 척 안 해도 계속 하는 게 인석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동** 모르겠어요... 안 하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도 소용없고...

실천가 예구... 그럼 어떡하죠? **아동** 그러니까 엄마 안 보는 게 나아요.

실천가 그래서... 엄마를 안보는 게 인석이 바라는 거예요? **아동**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맨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누가 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실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엄마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1이라고 하면, 1부터 10 중에 어디라고 봐요? **아동** 1이요.

실천가 1... 그래도 인석이는 엄마가 달라졌으면 하는 거 같은데... **아동** 당연하죠.

실천가 그럼 혹시 지금은 1이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나요? **아동** 전혀요. 엄마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실천가 그렇게 보는구나...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죠? **아동** 안 그러면 답답하다니까요!

실천가 그럼 엄마가 안 바뀌더라도 답답하지 않으려고... 그럼 답답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다르죠? **아동** 그냥 목에 뭐 걸린 거 같은 게 없어졌구나...

실천가 그럼 이야기하고 나면 인석이 지낼 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동** 도움되는 거요?

실천가 목에 뭐 걸린 거 같은 게 없어졌으니까 있을 때와는 다를 텐데... **아동** 뭐라 그래야 되나... 기분이 깨끗해졌다고 그래야 하나 뭐 그런 비슷한 느낌?

실천가 그럼 지낼 때 뭐가 다른가요? **아동** 방 치우거나 설거지하고 나서 기분이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실천가 그럼 지낼 때도 다를 텐데... **아동** 아무래도... 음... 사람들 말에 짜증이 덜 나는 거 같아요.

실천가 그래요? 그럼 사람들과 지낼 때 다르겠네요? 어떻게 달라요? **아동** 부딪치는 일이 별로 없죠. 엄마 만나고 와서 얼마 동안은 친구들이나 이모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실천가 그래요? 인석이는 답답한 거 풀고, 뭔가 깨끗해진 기분이 되는 게 지낼 때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아동** 그런 거 같긴 해요.

실천가 그런 답답한 건 풀고 깨끗해진 기분이 되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 하나는 알겠고... 그리고 또 어떤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었나요? **아동** ... 그거 밖에 안 해본 거 같아요.

실천가 그럴 수 있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볼 거 같아요? **아동** 그럴 거 같아요.

(중략)

당사자에게 예외를 물어도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천가는 '그래도 있지 않아요?'라고 계속 물어보거나, '아! 예외가 없구나'하고 예외 알아보는 것을 그만두곤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당사자에게는 예외가 없다고는 예외를 떠올리지 못할 만큼 문제에 빠져 있을 수 있다.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당사자의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당사자가 예외가 없다고 하는데 실천가가 예외가 있을 거라고 계속 질문하면 자칫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생각이 틀렸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예외가 없을 거라고 여기고 질문을 그만두면 전환할 기회를 놓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예외도 없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계속하는 게 있다면 실천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도 어떻게 계속하는지, 상대가 달라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계속하면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면서 당사자가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을 찾게 도울 수 있다.

2 위탁가정을 거부하는 아동

아동이 위탁가정을 거부하면 실천가는 아동을 설득하려 하기 쉽다. 그런데 아동의 거부를 '지금과 달라졌으면 한다'라는 신호로 보고, 설득하는 대신에 어떻게 달라졌으면 하는지, 아동은 자신에게 무엇이 도움이냐고 보고 선택하려 하는지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알아보려 하지 말고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졌으면 하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질문한다.

이럴 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2 예시 1. 문제에 초점을 두었을 때

	아동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실천가 뭐가 싫은 거예요?	아동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가 문제가 있으니 그렇다는 투로 얘기하고,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러는데. 그럼 같이 안 살면 되는 거잖아요.
실천가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리고 싫은 게 더 있어요?	아동 자유도 없고. 다른 애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난 뭐 맨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감옥도 아니고.
실천가 그래서 싫은 거구나. 그럼 이모가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동 말은 나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죠. 근데 자기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
실천가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아동 아니라구요. 내가 맞다니까요. 나한테 그러는 거니까 내가 알죠. (중략)

실천가가 당사자를 돕기 위해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문제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시작하면, 대답하는 아동은 문제에 대해 답하면서, 위탁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갈수록 아동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게 되면 이후 실천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 등으로 아동을 설득하려 하기 쉽다. 항상 기억하자! 아동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게 하는 것은 실천가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달라지기 원하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질문해 나갔을 때 어떻게 전개 되는지 살펴보자.

2 예시 2. 해결에 초점을 두었을 때

	아동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실천가 그럼 어디 뭐 다른 거 생각한 게 있어요?	아동 차라리 시설에 가는 게 나아요.
실천가 아이구, 그런 생각을 했네요... 궁금한데... 시설에 가면 어떤 게 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동 '넌 그런 부모 자식이다'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럼 지금과 지내는 게 뭐가 또 달라지게 될까요?	아동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죠
실천가 그럼 지내는 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동 자유를 찾는 거죠.
실천가 그렇겠네요. 자유를 찾으면 지내는 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동 핸드폰도 맘대로 하고, 학교도 맘대로... 아니다 그건 안 되겠구나. 음... 아무튼 이래라저래라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살 거 같을 거예요.
실천가 그리고 또?	아동 음... 암튼 지금과는 달라지겠죠.
실천가 지금과 달라졌으면 하는 거예요?	아동 당연하죠.
실천가 그럼 시설에 가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달라지는 건 여러 가지일 텐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동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실천가 그럴 수 있죠. 그럼 거기 가면 더 낫겠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동 그냥 그럴 거 같아서... 거기는 애들도 많을 테니까 다 신경 못 쓸 거 아니에요.
실천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난 좀 알긴 아는데...	아동 정말요? 내 생각이 맞죠!
실천가 글썄... 내가 아는 거랑 다른 거 같은데...	아동 뽕이죠? 나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천가 나야 상관없죠. 이모랑 있어도 되고, 시설에 가겠다면 거기 갈 수 있게 하면 되니까...	아동 근데 왜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가 내가 아는 한 아니니까...	아동 그럼 어떤데요?
실천가 학교 어때요?	아동 답답 터지죠.
실천가 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동 맨날 규칙에 하지 말라는 거뿐이고.
실천가 시설은 어떨 거 같아요?	아동 거기도 그럴라나? 그래요?
실천가 여러 사람이 지내려면 아무래도...	아동 그럼 다른 버전 학교 같아요? 먹고 자는 학교?

실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동 정말요? 아이씨 그건 더 싫은데...

실천가 그럼 어떡하죠...

아동 ...아이씨 되는 게 없네!

실천가 아이구... 어떡하나... 지금하고 달라졌으면 하는 건데...

아동 뭐가 이래!

실천가 지금과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그래요?

아동 그렇죠.

실천가 그럼 그래도 달라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이처럼 당사자의 거부나 불평을 지금 이대로그가 아니라 달라지길 원해서 보내는 신호라고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면 대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아동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동이 선택하면 그것을 지지하고 칭찬해 나가면 면접 시간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삶에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원가정 보호자 존재를 모르다가 알게 된 아동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의 존재를 모르다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아동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도 하고, 사실을 부정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실천가는 아동의 이런 반응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아동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크지 않을까,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하는 실천가의 걱정이 앞서게 되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아동에 관해 미리 짐작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쉬워진다. 그러므로 실천가는 걱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당사자인 아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 나가면 오히려 아동의 생각이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시 1.

중학교 1학년인 지수는 친부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부가 친모에게 나타나서 아동을 만나겠다고 하였다. 친모는 재혼을 할 예정이어서 친부가 나타난 게 잘됐다고 하면서 지수에게 전화로 이야기했고 지수는 아빠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실천가 나도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빠 얘기...

아동 난 아빠 없어요. 누가 아빠 있대요? 처음부터 없었는데! 우리 아빠는 나 어렸을 때 죽었다고 그랬어요.

실천가 그랬었죠... 지수는 엄마한테 얘기 듣고 어땀어요?

아동 어찌고 할 것도 없어요. 난 아빠 없대니까요! 아빠 아니라고요.

실천가 그래요 지수가 그렇다면... 그럼 혹시... 내가 엄마한테 '지금까지 죽었다고 했다가 이번에 지수에게 아빠 이야기하신 좋은 이유가 있으신가요?'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동 예전에는 아빠가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려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 보고 싶다고 그랬다고. 나랑 살겠다고 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엄마 재혼하니까 나보고 아빠가 있으면 좋지 않냐고 그러는 거 있죠. 내가 자기들 맘대로 이 사람 가졌다 저 사람 가졌다 하는 장난감이나구요!

실천가 아이구... 지수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장난감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지수를 대했으면 해요?

아동 인간 대 인간으로.

실천가 인간 대 인간... 어떻게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구나 알 수 있나요?

아동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죠.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한 거 사과해야 하고, 그 사람은 나 버린 거 사과해야죠.

실천가 그렇게 하면 나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한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동 조금은요. 장난감한테는 사과하지는 않으니까...

실천가 그러네. 조금이라고 했는데 나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게 충분하다 10, 전혀 아니다 1이라고 할 때 사과를 하면 1부터 10 중에 어디가 되는 거죠?

아동 이게 제일 크니까 5요.

실천가 그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게 충분하다, 그러고 나서요?

아동 그럼 생각해 봐야죠.

실천가 뭘 생각해 보는 거죠?

아동 엄마가 한 말이요.

실천가 엄마가 한 말 중에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건가요?

아동 뭐 엄마는 재혼하니까 만나 보라는 거요.

실천가 아! 그 말이요. 그럼 지수는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그래요?

아동 당연하죠.

실천가 그럼 사과를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동 진심으로 해야죠.

실천가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지수는 어떻게 알아요?

아동 그건 그냥 알지 않아요?

실천가 그래도 지수가 진심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텐데...

아동 음... 일단 표정이 다르죠.

실천가 표정을 보고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동 목소리도 더 진지하고, 아무튼 말로 다 설명은 못하겠는데 알 수 있어요.

실천가 뭐... 그렇게 한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동 그건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하면 나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실천가 와! 지수 나름대로 생각을 했네요? 지수가 이런 생각하는지 엄마는 알아요?

아동 모르겠죠. 모르니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저러겠죠.

실천가 그럼 엄마가 스스로 알아야 하나요? 지수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수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예시 1-1

실천가 어떻게 하는 게 지수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아동 지금은 아니네요. 지금은 뭘 해도 사과 받을 마음 없어요.

실천가 그럼 시간이 더 지나는 게 지수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동 네, 지금은 그래요.

실천가 지수가 필요한 시간이 다 지났다. 그럼 그때는 다른가요?

아동 그럼 그때는 사과 받고 싶어지겠죠.

실천가 음... 지수가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동 최소한 3달?

예시 1-2

실천가 어떻게 하는 게 지수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아동 혼자서는 안 될 거고 누가 좀 도와주면 낫겠죠.

실천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 거 같아요?

아동 없어요.

실천가 그럼 혹시... 내가 도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동 괜찮아요.

실천가 그럼 엄마한테 지수가 이런 생각이다 전하고 엄마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래도 될까요?

아동 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천가는 아동이 원하는 것에 따라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지, 당장 원가정 보호자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알 수 있으며 이후 개입은 원가정 보호자와 아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원가정 보호자

이미 진행 중인 사례 중 원가정 보호자에게 초기 만남의 유용한 필수 질문 중 미래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원가정 보호자에게 미래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원가정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며, 이는 실천가의 개입에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1 약속을 지키지 않는 원가정 보호자

1 예시 1. 원가정 보호자를 거부하는 아동 두 번째 사례 - 인식 엄마(p127~129)

(실천가는 아동과 먼저 면접을 통해 친가정 보호자 상황을 알고 있다.)

예시 1-1 원가정 보호자에게 예외가 있다고 한 경우

실천가 어머니, 인석이와 만났었는데...

원가정 보호자 그러셨어요?

실천가 인석이와 어머니가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원가정 보호자 인석이가요? 아이구, 맨날 잔소리하면서 그래요?

실천가 어머니가 자기 말을 듣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원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안 듣는 편은 아니라고 봐야죠.

실천가 인석이와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엄마와 아들 아니랄까봐(웃음).

원가정 보호자 그래요?

실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인석이 말을 그렇게 들을 수 있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실천가 어머니는 아들 이야기라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면 들으시네요.

원가정 보호자 틀린 말이 아니면 들어야지. 그럼 틀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실천가 인석이와 엄마를 닮았나 보네요.

원가정 보호자 (웃으면서) 나보다 낫지요.

실천가 인석이는 어머니가 최근 일이 있어서 그렇지, 그 전에는 달랐다고 하던데...

원가정 보호자 맞아요.

실천가 그래서 인석이와 엄마는 술 안 마시는 걸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던데...

원가정 보호자 물론 맘먹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드는 거 그것도 제일 친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시나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 녀석이 그런 것도 이해 못 해 줄지 몰랐죠.

실천가 인석이 이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할 거라고 보세요?

원가정 보호자 '엄마 속상하겠다. 그래도 건강 생각하자'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면 뭐 나도 지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겠어요? 근데 잔소리 잔소리를 무슨 따발총도 아니고... 쉬질 않아요.

실천가 인석도 자기가 엄마한테 다르게 하면 엄마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원가정 보호자 모르죠. 모르니까 저러겠죠.

실천가 인석이 알면 어떨 거 같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글썄... 알면 지도 좀 덜 할라나?

실천가 아드님이니깐 그래도 저보다는 잘 아시잖아요.

원가정 보호자 알면 좀 나올 거 같긴 하네요.

(중략)

이후 진행은 아동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관심을지 물어보면서 방법을 찾아본다. 물론 면접 후 메시지 전달은 반드시 하도록 한다.

예시 1-2 원가정 보호자에게 예외도 없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한 경우

실천가 인석이 만났었는데...

원가정 보호자 개 만났다구요? 들어나마나 뻔하지. 지 엄마 흥이나 봤겠지. 그렇죠?

실천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가정 보호자 안 봐도 비디오지. 맨날 지 엄마 흥만 보는데.

실천가 글썄... 인석이 엄마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던데...

원가정 보호자 그니까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바람을 갖냐구요.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뭐 이래라저래라 그러는지...

실천가 그러시구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원가정 보호자 뭔데요?

실천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궁금한데... 인석이 어른이 되었다고 상상하시구요. (잠시 멈춤) 어른이 된 인석이 결혼을 했어요. (잠시 멈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잠시 멈춤) 인석이 자기 아이에게 할머니에 대해, 그러니까 어머니시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내가 엄마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하시겠어요?

진행 1

실천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내가 엄마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하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글썄... 저 성격에 누가 좋다는 사람이나 있을까?

실천가 그건 아직 모르니까...

원가정 보호자 그건 그렇죠.

실천가 그럼 자기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내가 뭐 들을 자격도 없죠 뭐.

실천가 음... 좀 전에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러신 거 같은데...

원가정 보호자 엄마로 최선을 다한 게 없으니까 들을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러니 각자 인생 살자 그거죠.

실천가 아 그러셔서... 그래도 혹시... 들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석이 자기 아이한테 할머니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셨다...

원가정 보호자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다면...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도 고생 많이 했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엄마로 있어 줘서 고마워' (눈물 흘림) ... 내가 맨날 놔두고 도망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실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으면... 그러시군요...

원가정 보호자 그게 되겠어요?

실천가 아직 모르죠... 인석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 꼭 듣고 싶다 10, 안 들어도 된다 1. 1부터 10 중에 어느 정도 꼭 듣고 싶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들을 수 있다면 꼭 듣고 싶죠.

실천가 그래서 1부터 10 중에 어느 정도 듣고 싶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듣고 싶은 거야 9, 10이죠.

진행 2

실천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내가 엄마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하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나는 뭐 듣고 싶은 얘기 그런 거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실천가 그러시구나. 다른 분들과 다르시네요!

원가정 보호자 다를 것도 없어요. 부모자식도 같이 지내고 그래야 정도 있고 하지. 지나 내나 얼굴은 보지만 무슨 정이 있겠어요?

실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어머니는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

원가정 보호자 뭐 다 알아서 사는 거지. 부모라고 지 인생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천가 그건 그렇죠. 앞으로 인석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럴 테니까...

원가정 보호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한다는 사람도 많다는데 인석도 그럴지도 모르죠.

실천가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죠. 그래도 혹시 결혼을 한다면... 그래서 아이한테 할머니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으면 하시는지...

원가정 보호자 뭐 지 아이한테 내 얘기 안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한다면 니 할머니는 쿨한 사람이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실천가 아 그렇게 얘기하면... 쿨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쿨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거. 나도 참견 안 하고, 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실천가 그런데도 어떻게 인식하는 엄마가 바뀌었으면 계속 바랄 수 있나요?

원가정 보호자 개가 남편을 닮아서 쓸데없이 정이 많아서 그래요. 난 안 그렇거든요. 나 닮았으면 지도 편할 건데... 근데 내가 지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질문 후 진행1과 진행2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해 질문하면, 원가정 복귀에 대해 원가정 보호자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개입 방향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제시된 사례의 진행1은 원가정 보호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면 될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진행2는 원가정 보호자가 원가정 복귀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아동과 앞으로 미래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 돕는 데 초점을 두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황에 변화가 있는 원가정 보호자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가정 보호자에게도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럴 때 실천가들은 원가정 보호자의 상황변화로 인해 혹시라도 아동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먼저 걱정을 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실천가는 원가정 보호자의 상황 변화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원가정 보호자 역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상황은 항상 변화하므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동에게 최선이 될 수 있을지 의논해 나가는 것이 유용하다. 실천가는 원가정 보호자가 아동에게 최선의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찾아 나가야 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기억하자(물론 원가정 보호자가 양육 의사가 전혀 없을 때는 제외하고!).

2 예시. 말길 때는 원가정복귀 의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아동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있을 때

실천가 민이 어머니! 계속 민이 만나는 걸 미루시는데... 혹시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원가정 보호자 아니 뭐 사정이라기보다... 사실 요즘 나는 사람이 생겨서...

실천가 그러세요? 축하할 일이에요!

원가정 보호자 근데... 그 사람은 민이 모르거든요.

실천가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뭐가 있으신지...

원가정 보호자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혹시라도 민이 있는 거 알면 안 만난다고 할까 봐 걱정도 되고...

실천가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민이 만나는 걸 미루실 건지...

원가정 보호자 그렇게 말이에요. 계속 그럴 수도 없고... 이 사람처럼 재혼하고 싶거든요.

실천가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쭙 볼게요. 지금 이런저런 고민도 생각도 많으실 텐데... 한참 후를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잠시 멈춤) 민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상상하시구요.(잠시 멈춤) 어른이 된 민이가 결혼을 했어요. (잠시 멈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잠시 멈춤) 민이가 자기 아이에게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내가 엄마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아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한참 생각한 후) 끝까지 내 엄마라고... 어디에 있든, 누구랑 있든 내 엄마라고.

실천가 민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면...

원가정 보호자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네요.

실천가 그러실 수 있죠.

원가정 보호자 아까도 말했지만 재혼도 하고 싶긴 한데...

실천가 어머니가 원하시면 뭐... 재혼하시면 민이 안 보실 거예요?

원가정 보호자 그니까 그게요... 끝까지 민이한테 엄마이고 싶은데... 재혼하면 그게 어렵겠죠?

실천가 글썄... 재혼하면 민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원가정 보호자 내 생각이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실천가 좀...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원가정 보호자 그렇죠?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겠죠?

실천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가 달라지나요?

원가정 보호자 재혼하면 민이는 같이 못 산다고만 생각했는데... 재혼하건 안 하건 민이 엄마고, 그럼 재혼하더라도 민이 어머니니까...

실천가 그럼 어머니께서 좀 전에 끝까지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엄마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겠다고 하셨는데...

원가정 보호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천가 그럼 이렇게 여쭙 볼게요. 어머니가 80살의 아주 지혜롭고 아주 잘 늙은 할머니가 되었다고 상상하시구요. (잠시 멈춤) 80살이 된 어머니가 지금의 어머니에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민이가 끝까지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지금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원가정 보호자 음... 결혼하려면 남자를 잘 고르라고.

실천가 그렇게... 지금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다... 뭘 보면 잘 골랐다는 걸 아세요?

원가정 보호자 일단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사랑하고 그래야죠. 민이가 있다는 걸 알아도 받아들이고, 자기 딸처럼 예뻐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실천가 지금 남친은 어떤 거 같으세요?

원가정 보호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잘해 주긴 하는데, 민이한테도 그럴지는….

실천가 민이한테도 잘해 주는 분이신지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원가정 보호자 먼저 민이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실천가 남친이 받아들이시면 만나면서 더 알아 나가실 테고…, 혹시라도 민이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면 어떡 하죠?

원가정 보호자 그럼 사귀기만 해야죠. 결혼은 안 하고.

실천가 민이 생각해서요?

원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민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책임감도 더 있을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처음에는 사정이 있어서 민이와 잠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떨어져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 해야 하나…, 익숙해지고 남친도 생기고 하니, 결혼도 하고 싶고, 민이는 잘 지내고 있으니 그냥 거기 있고 그렇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민이가 자기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느냐 물어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랬어요.

(중략)

이처럼 원가정 보호자가 미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원가정 보호자나 실천가 모두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찾는 데 유용하다.

3 위탁 보호자에 관해 불평하는 원가정 보호자

위탁 보호자에 관해 불평하는 원가정 보호자에게 위탁 보호자의 양육방식을 존중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설득하려 하면 원가정 보호자는 실천가가 위탁 보호자 편을 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원가정 보호자의 불평을 변화를 바라는 것으로 보고, 바라는 변화가 실제로는 어떠한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실천가는 불평에 초점을 두지 말고 달라지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두고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3 예시. 원가정 보호자가 상황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변화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을 때

(상략) 원가정 보호자의 불평을 듣고 있다가

실천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원가정 보호자 인아한테 들었죠. 그럼 내가 개한테 듣지 어떻게 알겠어요?

실천가 그래요? 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원가정 보호자 개가 선생님한테는 그냥 괜찮다고 그랬나 보죠. 그니까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실천가 그러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났을 때도 이야기하신 거와는 달라서….

원가정 보호자 선생님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실천가 예구…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달라졌으면 하시는 거 같은데….

원가정 보호자 당연하죠. 달라져야죠.

실천가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하신 게 있으실 텐데….

원가정 보호자 아니 뭐… 이건 아니다, 그거죠.

실천가 네 그러셔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궁금한 게…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생각하신 게 뭔지…, 그래야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게 인아에게 도움이 될지 찾아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가정 보호자 뭐… 그거까지는 생각 안했죠.

실천가 그러실 수 있죠. 그래도 좀 생각하시는 게 뭔지….

원가정 보호자 아니 그게 아니구요. 맘에 안 들어요.

실천가 네… 그럼 뭐가 달라지면 '맘에 든다' 그러실 수 있는 건지….

원가정 보호자 그냥 다 맘에 안 들어요. 정말 인아를 위하는 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실천가 정말 인아를 위한다고 믿으면 어머니는 지금과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원가정 보호자 내 자리에 대한 불안한 게 없을 거 같아요

실천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원가정 보호자 내가 엄만데 내가 엄마가 아니니까 거기서 뭘 했다 그러면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고….

실천가 아이구… 인아에게 어머니가 엄마 역할을 하고 싶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내가 엄마죠. 근데 엄마가 아니잖아요.

실천가 엄마시죠. 엄마가 아닌 건 아니구요. 상황이 안 돼서 돌보는 건 누구든지 할 수는 있으니까….

원가정 보호자 누구든지 하면 엄마 자리는 없잖아요.

실천가 그럼 어머니는 인아가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인아한테 엄마 자리가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나요?

원가정 보호자 음… 생각해 보지 않아서….

실천가 그러실 수 있죠. 지금 좀 생각해 보시면...

원가정 보호자 음... 좋은 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 그러면요.

실천가 인아가 그러면... 그럼 어머니 얘기하신 대로 그렇다 10, 전혀 아니다 1 지금은 어디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한 3 정도? 인아가 거기 있었던 걸 얘기하니까...

실천가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되면 인아한테 엄마자리가 있어서 좋을 때나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구나. 아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8 정도 되면?

실천가 지금은 3이고, 8정도 되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한번에 3에서 8이 되나요? 4가 되고 5가 되고 시간이 걸려서 8까지 되나요?

원가정 보호자 뭐 한 번에 되기가 하겠어요?

실천가 그럼 지금은 3인데... 4가 되고 5가 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원가정 보호자 생각해 보니까 얘기하는 것도 주로 거기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랑 인아 얘기를 더 해야 인아도 내 생각을 더 할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면 더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천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략)

이럴 때 무엇을 문제라고 보는지 또는 사실과 무엇이 다른지를 세세하게 알아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4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는 없고, 아이만 만나려고 하는 원가정 보호자

원가정 복귀에 대해 이야기를 피하면서, 아동이 보고 싶다고 하며 아동만 만나려고 하는 원가정 보호자를 보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임에 관해 이야기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실천가는 원가정 보호자에게 자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게 된다. 따라서 책임감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해서 원가정 보호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단 원가정 보호자가 아이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 영역을 벗어나 미래에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알아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면 되는지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유용하다.

3) 위탁가정 보호자

1 아동을 계속 키우고 싶다는 위탁가정 보호자

처음부터 해결중심 접근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위탁 보호자와의 면접과정에서 역할에 관해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때로 위탁가정 보호자가 위탁 아동을 자신이 계속 키우고 싶다고 할 수도 있다. 이때 위탁 보호자를 설득하려고 하면 위탁 보호자는 자신이 키우는 게 더 나은 수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것이며, 그때 비난의 대상은 원가정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럴 때 실천가는 위탁 보호자가 아동을 사랑하고 예뻐하는 마음은 받아들이면서, 위탁 보호자가 가정위탁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1 예시.

위탁가정 보호자 선생님, 애 내가 계속 키우면 안 돼요? 아니 애 부모 사정도 좋지 못하는데 자기 집에 가는 거보다는 그냥 우리 집에 있으면 아이한테도 좋고 그럴 텐데...

실천가 아이구...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던거예요?

위탁가정 보호자 처음에는 뭐 3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간만 생각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 정도 들고, 아니 애가 이쁘게 굴어요. 근데 뭐 부모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가도 우리 집에서만큼 해 주지도 못할 거고, 그럼 나도 맘 아프죠. 우리 아이나 다름없는데...

실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 주시네요. 궁금한데... 이견 위탁 부모님 생각이신지... 현이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위탁가정 보호자 아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친부모 만난다고 해서 그냥 안 만나면 안 되나요? 그냥 내가 키우면 되는데... 괜히 친부모 만나고 나면 아이도 더 혼란스러울 거 같고... 그래서요. 안 만나면 뭐 그냥 우리가 부모다. 여기가 집이다 생각하고 살면 되니까. 현이도 잘 지내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정말 좋아해요.

실천가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죠. 잘 지내도록 얼마나 신경 쓰고 애쓰시는지 알죠... 얘기 들으니 현이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겠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렇죠?

실천가 잘 알죠. 근데... 어떡하죠... 현이가 계속 있게 되면 그건 위탁이 아닌데...

위탁가정 보호자 아니 뭐, 애들 친부모 사정이 안 되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천가 친부모님이 키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서... 그리고 현이 친부모님도 못 데려갈 사정이 있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위탁가정 보호자 아이한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보다야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나은 텐데...

실천가 그래서 위탁 부모님들 덕분에 현이는 보호자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잖아요. 이야기 들으니 궁금한 게 있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원데요?

실천가 현이가 어른이 되어서 여기서 지낸 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가정위탁하길 잘했구나' 하시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잠시 생각 한 후) 우리 집에서 행복했다고 하면….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낸 대로 지내면 현이가 어른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즐거운 시간을 더 보내야겠네요.

실천가 지금까지 하신 거보다 더 그래야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전 일 생각할 때 아주 즐겁거나 아니면 아주 힘들고 그런 게 기억에 남잖아요. 뭐 지금까지 잘 지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현이가 즐거운 시간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기억하겠죠.

실천가 궁금한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탁가정 보호자 뭐 어디 놀러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엄마가 이랬다. 그래서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한 즐거운 시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장보러 갈 때 뭐 먹고 싶은지 꼭 물어봤대요. 난 항상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엄마가 물어봐서 좋고, 고마웠다고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하더라고요.

실천가 그래요? 현이는 어떤가요? 현이도 물어보는 걸 좋아하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전 항상 물어봐요. 현이한테도 당연히 물어보죠.

실천가 물어보셨으면 하시겠네요. 현이는 어떤가요? 자녀 분들이랑 같은지… 좀 다른지….

위탁가정 보호자 우리 애들은 얘기했는데 현이는 말을 잘 안 하긴 해요.

(중략)

이후 실천가는 위탁 보호자에게 자녀들과 현이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될지, 다르게 해야 할지 등을 알아보면서 위탁가정 보호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위탁기간 동안 역할을 수행하게 돕는다.

2 아동에 대한 불평과 갈등이 있는 위탁가정 보호자

위탁가정 보호자가 위탁 아동이 힘들게 하고 문제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먼저 대처질문 (그러시구나… 그런데도 어떻게 견디셨어요?)을 질문하면서 위탁 보호자가 나름 애써온 것을 칭찬한다. 이때 아동의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실천가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지지와 칭찬을 한 후, 위탁 아동이 어린 아동이라면 예외를 물어보면서 그럴 때 뭐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알아본다.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성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아동이 예외 행동을 할 때 위탁가정 보호자가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하게 돕는다.

한편, 위탁 아동이 청소년이라면 위탁가정 보호자의 영향력이 어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어린 아동과 같이 예외 행동에 관한 칭찬이 효과가 있다면 사용하라고 제안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위탁가정 보호자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아동은 문제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나마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다. 질문의 초점을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두는 것은 때때로 청소년은 어른이 하는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을 회유하기 위한 수를 쓰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때 칭찬을 받아들이는 여부는 청소년의 경험이 어떠한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칭찬을 받아들이는 청소년은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실천가 중심의 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각자 경험의 차이는 칭찬을 받아들이는 시간 역시 다르게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인 경우에는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어른이 견뎌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불평이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달라지길 바라는 것이므로, 미래에 어떻게 달라졌으면 하는지, 아동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위탁가정 보호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등 미래에 초점을 둔 이야기로 전환해서 면접을 진행하면 효과적이다.

3 원가정 보호자를 믿지 못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경우 흔히 누가 더 믿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믿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 대신에 원가정 보호자를 믿게 되면 아이와 지낼 때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등을 알아서 지내도록 돕는다.

3 예시.

위탁가정 보호자 선생님, 난 연수 친부모 믿을 수가 없어요.

실천가 네... 이번에도 연수 만난다고 했는데 연수가 못 만났죠.

위탁가정 보호자 아이한테 좋은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 주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실천가 그러시죠... 저 혹시 연수 친부모님을 믿게 되면 연수랑 지내는 데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

위탁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연수가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친부모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죠. 애가 뭐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지 부모 닮아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실천가 그러시겠네요. 그럼 지금보다 연수 친부모를 믿게 되시면 그때는 어떻게 다를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나도 연수한테 얘기할 때 저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벽 같은 게 덜하지 않을까...

실천가 제가 듣기에 연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걸로 들리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그럼요.

실천가 정말 신경 많이 쓰시네요. 연수와 지내는 걸 처음 왔을 때를 1이라고 하고 잘 지낸다는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어디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한 7은 된다고 봐요.

실천가 7이요? 그런데도 7까지 올 수 있었네요! 어떻게 7이 될 수 있게 하셨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냥 지낼 때는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유독 거슬릴 때가 있어요.

실천가 그럼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신 거 같은데...

위탁가정 보호자 그렇죠. 항상 그렇지 않죠.

실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후략)

이후에는 차이를 알아보면서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나간다. 누군가를 믿지 못할 때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변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대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위탁가정 보호자가 원가정 보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므로, 불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하는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게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역할 종료하기 및 종료 후 다양한 상황

1 위탁 종료 후 위탁가정을 그리워하는 아동

이런 경우 문제중심 관점에서 보면 아동이 원가정 복귀 후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는 원가정보다 위탁가정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염려를 먼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동이 심리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치료나 상담 연결을 염두에 두기 쉽다. 그런데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중심 관점으로 보면 아동이 위탁가정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위탁가정에서 잘 지냈다는 것이므로 위탁가정에서 잘 지낸 경험을 아동이 앞으로 지내는 데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두고 도울 수 있다.

문제에 초점을 두었을 때와 해결에 초점을 두었을 때 면접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1 예시 1. 문제에 초점을 두었을 때

아동 위탁 집에 가고 싶어요.

실천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동 엄마보다 위탁 집에 있을 때 더 잘해줘요.

실천가 엄마가 잘 못해 줘요?

아동 네.

실천가 엄마가 못해주는 게 뭐예요?

아동 반찬도 이모가 해 준 게 맛있고, 집도 거기가 더 좋아요. 재미도 없고...

실천가 그래서 집에서 엄마와 지내는 게 힘들어요?

아동 네.

실천가 힘들었구나...

아동 네, 집에 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속상해요.

실천가 그래도 엄마는 잘 지내려고 하시잖아요. 속상하고 그래도 좀 노력해 보는 건 어때요?

아동 엄마가 노력해야지,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자기는 안 하면서!

실천가 내 말은 엄마도 같이 하는데 영수도 엄마를 도와 줄 수 있는지 그 말이거든요.

아동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하나구요.

실천가 가족이니까.

아동 근데 엄마는 왜 그래요!

1 예시 2. 해결에 초점을 두었을 때

	아동 위탁 집에 가고 싶어요.
실천가 그럴 수 있죠... 거기 있을 때는 뭐가 달랐나요?	아동 엄마랑 있을 때보다 다 좋았어요.
실천가 그래요? 뭐가 좋았는지 궁금한데...	아동 그냥 먹는 것도 더 맛있고, 집도 더 깨끗하고...
실천가 그리고 또?	아동 음... 거기가 맘이 더 편해요.
실천가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엄마와는 오랜만에 지내는 거니까... 그럼 지내는 게 편하고 좋다 10, 전혀 아니다 1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1부터 10 중에 어디예요?	아동 4 정도?
실천가 그래도 어떻게 4는 되는 거예요?	아동 엄마니까. 엄마라서 편한 게 있으니까...
실천가 그렇구나. 이모랑 지낼 때 했던 거 중에 엄마와 이런 걸 하면 4보다는 더 올라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뭐예요?	아동 음... 집 정리요. 빨래도 늦게 해서 내가 입고 싶은 데 못 입으니까 화나요.
실천가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4보다는 올라가나요?	아동 네 그럼 5는 될 수 있어요.
실천가 그래요? 혹시 영수가 그랬으면 하는 거 엄마가 알고 있어요?	아동 모를 거예요.
실천가 엄마가 알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보다는 엄마를 잘 알 테니까...	아동 그럴 수도...

문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에 대해 자꾸 물어보면 눈덩이 효과처럼 아동은 문제를 처음보다 더 크게 인식하게 될 수 있다. 한편, 해결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을 때처럼 지금 생활에서 괜찮은 것을 알아보고, 위탁가정에서 괜찮았던 것들을 원가정에서 하게 하면서 현재 생활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해 나가게 할 수 있다.

2 원가정 복귀 준비 중에 복귀를 반복하는 원가정 보호자

복귀를 준비 중인데 원가정 보호자가 복귀를 반복하면 준비를 돕는 실천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설 수 있다. 만일 이런 경우 원가정 보호자에게 미래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관한 질문을 해서 자신이 아동에게 어떤 존재였으면 하는지 생각해서 아동과 가족에게 유용한 결정을 하게 도울 수 있다.

2 예시 1.

	원가정 보호자 선생님! 제가 사정이 좀 생겼는데...
실천가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신지...	원가정 보호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대로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실천가 이대로 지내는 게 무슨 얘기신지...	원가정 보호자 민경이 거기서 그냥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실천가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암만 생각해도 거기 있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실천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보신 게 있으실 텐데...	원가정 보호자 지금 다 좋잖아요. 아이 환경도 여기보다 낫고, 뭐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 같이 살 자신도 없고...
실천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쭙 볼게요. 지금 이런저런 고민도 생각도 많으실 텐데... 한참 후를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잠시 멈춤) 민경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상상하시구요. (잠시 멈춤) 어른이 된 민경이가 결혼을 했어요. (잠시 멈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잠시 멈춤) 민경이가 자기 아이에게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내가 엄마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아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한참 생각한 후) 근데... 선생님... 제가 자신이 없어요...
실천가 그러실 수 있죠. 같이 지낸 지 한참 되셨으니까... 그래도 혹시 상상해 보신다면...	원가정 보호자 (한참 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자신 없다는 생각만 맴돌아서...
실천가 그러시구나... 그럼 다시 이렇게 여쭙 볼게요. 민경이랑 같이 지낼 자신이 있다 10, 전혀 아니다 1. 1부터 10 중에 어디세요?	원가정 보호자 2요.
실천가 지난번에 같이 지내겠다고 하셨을 때는 1부터 10 중에 어디였나요?	원가정 보호자 그때는 5, 6 정도는 됐어요.
실천가 그러셨구나. 궁금한데... 그때와 뭐가 달라진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주위에서 자꾸...

실천가 주위에서 뭐가 달라지신 건지...

원가정 보호자 주위에서 뭇 땀에 데려오냐고. 거기 있으면 나도 편하고 아이한테도 좋을 텐데...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천가 그러셨구나...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쭙 볼게요. 주위 이야기대로 민경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대로 지내다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된 민경이가 결혼을 했어요 (잠시 멈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잠시 멈춤) 민경이가 자기 아이에게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민경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원가정 보호자 (한참 생각한 후) 제 이야기를 안 할 거 같아요. 할머니 없다고, 그럴 거 같아요.

실천가 민경이가 그렇게... 그래도 괜찮으신지...

원가정 보호자 괜찮지 않을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엄마 없이도 어른이 됐으니까, 다 컸는데 엄마 필요 없다고 하겠죠.

실천가 그럼 나중에 어른이 된 민경이가 자기 아이한테 뭐라고 할머니 얘기를 했으면 하세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도 엄마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 엄마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민경이가 열심히 산 엄마라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원가정 보호자 지금 용기를 내야 할 거 같은 한데...

실천가 아까 같이 지낼 자신이 2라고 하셨잖아요. 어디쯤 되면 용기를 내실 수 있는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4 정도 되면.

(중략)

이후에는 현재 2에서 4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4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등을 물어서 원가정 보호자가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그 과정에서 원가정 보호자에 대한 칭찬 메시지는 원가정 보호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예시 2.

실천가 무슨 이야기이신지...

원가정 보호자 선생님! 유겸이 데려오는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원가정 보호자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선생님도 알잖아요. 전에 돈 잘 벌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 유겸이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실천가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에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뭐가 달랐던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뭐 혼자 있다 보니 울적하더라고요. 유겸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실천가 사정 안 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만... 유겸이가 또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싶어서 많이 쓰이네요.

원가정 보호자 아니 뭐 처음도 아니고. 그런다고 부모 없는 건 아니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데려올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실천가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유겸이가 더 맘이 쓰여서... 아버님. 몇 번 이런 일이 있다 보니 꼭 여쭙 볼 게 있는데...

원가정 보호자 뭔데요? 뭐 그래도 데리고 가라고 그럴까요? 못한다니까요!

실천가 아버님 얘기 듣다 보니 점점 더 궁금해서요...

원가정 보호자 뭐, 뭔데요?

실천가 한참 후를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잠시 멈춤) 유겸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상상하시구요. (잠시 멈춤) 어른이 된 유겸이가 결혼을 했어요. (잠시 멈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잠시 멈춤) 유겸이가 자기 아이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내가 아빠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하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예해,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걸 묻고 그러십니까?

실천가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나 까...

원가정 보호자 뭐 지 사달라는 거 사 주고,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전에 내가 돈 잘 벌 때는 괜찮았는데.

실천가 그러니 궁금한데, 그렇게 하시면... 그럼 유겸이는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어떤 아빠라고 이야기할까요?

원가정 보호자 글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면 고마워하겠지요.

실천가 좀 전에 아버님께 여쭙 본 거요... 전에 제가 유겸이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 생각하시는 거와 좀 다르던데...

원가정 보호자 유겸이가 다른 얘기를 했다구요? 뭐 지 사달라는 거 사주면 제일 좋아하면서 뭐라고 했는데요?

실천가 자기는 제일 좋은 거 안 먹고 안 입어도 괜찮은데 아빠가 돈 말고 자기한테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원가정 보호자 예해, 유겸이가 그랬다구요?

실천가 네, 그러더라고요.

원가정 보호자 아니 뭐 다르게 어떻게 신경을 써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실천가 글썄... 그건 유겸이 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싶은데...

원가정 보호자 유겸이랑 얘기하라고요?

실천가 아무래도...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가정 보호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나 참...

실천가 그러실 수 있죠. 궁금한데... 유겸이와 같이 지낸다면 그때는 아버님과 유겸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원가정 보호자 나야 돈 벌어야 지 사달라는 거 사 주고 할 수 있으니까 난 돈 벌고, 지는 학교 잘 다니고 그러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실천가 그렇죠. 아버님은 돈 버시고, 유겸이는 학교 다니고... 그리고 지내는 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왜, 밥은 같이 먹는지, 밥 먹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그런 것들도 있고...

원가정 보호자 글썄...

실천가 혹시 유겸이가 여기 같이 있어서 제가 집에서 아빠와 뭐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유겸이는 뭐라고 할까요?

원가정 보호자 글썄... 뭐 돈 말고 자기한테 신경 써달라고 했더니... 뭘 얘기를 하자는 건지... 선생님은 뭘 거 같으세요?

실천가 글썸...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제 생각이 될 거 같아서... 중요한 건 유겸이가 아빠와 뭐 하면서 지내고 싶은지니까...

원가정 보호자 뭐...

실천가 여쭙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원가정 보호자 하세요.

실천가 그럼 유겸이와 같이 지낼 준비가 다 됐다 10, 전혀 아니다 1이라면 지금은 어디세요?

원가정 보호자 한 4는 된다고 봅니다.

실천가 어디가 되면 같이 지낼 수 있으신가요?

원가정 보호자 10이 돼야죠.

실천가 아 그러시구나. 궁금한데 10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원가정 보호자 같이 살 집도 더 좋은 거 마련하고, 전처럼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가 전에 만큼을 벌어야 된다는 건지...

원가정 보호자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때는 대박이 난 거였고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뭐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실천가 그럼 10은 될 수 있는 건지...

원가정 보호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어렵죠.

실천가 그럼 10이 안되면 유겸이와 같이 사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10은 아니라도 유겸이와 같이 살아야겠다 싶은 건지... 어떠신가요?

원가정 보호자 뭐 살고야 싶죠.

실천가 그럼 유겸이와 반드시 같이 살 거다 10, 전혀 아니다 1, 어디세요?

원가정 보호자 사실 반반이에요.

실천가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은 같이 살 준비가 4라고 하시고, 4에서 더 올라가면 같이 살 거라는 반에서 더 올라가는 건지... 4에서 올라가도 같이 사는 건 여전히 반반 그대로 인지... 어떠신가요?

원가정 보호자 뭐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는 '꼭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뭐 가끔 사람들이 자기 자식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부모 자식이 잘 지내고 하는 거 보면 조금은 부럽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건 잠깐 드는 생각이요... 모르지요. 나이가 들면 달라질지도...

실천가 그러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버님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유겸이에게 도움이 될지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야 할 거 같은데...

원가정 보호자 뭐 나도 얘기가 횡설수설하는 거 같기도 하고 생각 안 해본 걸 많이 물어보니까 생각도 좀 해보아야 할 거 같네요.

실천가 그래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중략)

이럴 때 실천가는 '원가정 보호자는 아동을 데려갈 생각이 없구나' 선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원가정 복귀를 포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천가는 지금까지의 원가정 보호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원가정 보호자와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면서 원가정 보호자와 면접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역할 나누기와 수행하기의 필수 질문을 활용한다.

3 출소 예정인 원가정 보호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관련 기관들은 과연 아동을 이런 보호자와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괜찮을지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걱정이 앞서게 되면 얼마나 보호자의 환경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지에 초점을 두고 그 이유를 찾게 된다. 그러나 실천가는 이러한 원가정 보호자일수록 범죄자가 아닌 아동의 보호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천가는 아동을 위한 최선의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부모들은 자녀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하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실천가는 원가정 보호자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감 중이더라도 원가정 보호자를 파트너로 보고 아동과 원가정 보호자 면회를 같이 가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런데 만일 아동이 거부한다면 실천가가 면회를 해서 원가정 보호자와 아동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감 중인 원가정 보호자와는 면회 시 각 과정에서 제시한 유용한 필수 질문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감 중인 원가정 보호자를 이전에 전혀 만나지 못하고 출소를 앞둔 시점에 면접을 진행한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3 예시.

실천가 안녕하세요, 저는 ○○위탁센터 온 사회복지사 ○○○입니다.

원가정 보호자 근데 왜 오신 거죠?

실천가 네 궁금하시죠. 현주가 위탁가정에 있잖아요.

원가정 보호자 네.

실천가 그래서 이제 나오시면 현주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해서...

원가정 보호자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가 기억을 못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실천가 그러시죠. 오늘 어머니 뵈니까 현주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요?

실천가 네. 그러네요!

원가정 보호자 얼마나 컸을지 궁금해요.

실천가 당연히 그러시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현주가 잘 지내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걸로 구청에서 회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머니는 어떠신지도 알아야 도울 수 있어서...

원가정 보호자 그렇군요.

실천가 네... 그래서 어머니는 나오시면 현주와 어떻게 지내려고 하시는지,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 듣고 싶어서...

원가정 보호자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실천가 생각하신 게 뭐가 있으신 거 같은데...

원가정 보호자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구요.

실천가 그래도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셨으니까...

원가정 보호자 지낼 방도 새로 얻어야 하고 일도 해야 할 테고... 같이 살려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실천가 그러시겠네요. 그럼 이렇게 여쭙 볼게요. 현주와 같이 살 준비가 충분하다 10, 전혀 아니다 1. 지금은 어디 인가요?

원가정 보호자 지금은 1이죠.

실천가 그럼 어디가 되면 같이 살 수 있다고 보세요?

원가정 보호자 그래도 7,8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천가 지금은 1인데 7, 8 정도 되면 지금과 뭐가 다를까요?

원가정 보호자 같이 지낼 집도 있고, 모아 놓은 돈은 없어도, 일은 하고 있겠죠. 그래야 생활이 될 테니까.

실천가 네,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세요?

원가정 보호자 여기서 제가 미용을 배웠어요. 나가서 한번 알아봐야죠. 한 3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실천가 그 정도... 그럼 나가면 현주는 언제쯤 만나시겠어요?

원가정 보호자 저야 빨리 보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죠?

실천가 제가 아까 구청과 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생각도 전하고, 현주 만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의논하고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원가정 보호자 네, 알겠습니다.

이후 공공기관과 이야기 나누고, 원가정 보호자는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아동을 만날 수 있게 돕는다. 그와 동시에 역할 나누기와 수행하기에 있는 유용한 질문을 활용해 면접을 진행해 원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4 갑자기 나타나서 아동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원가정 보호자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원가정 보호자가 아동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기관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원가정 보호자일수록 아동의 상황이나 절차 등을 생각하지 않고 아동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실천가는 빨리 기관이 처한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나 '원가정 보호자의 상황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궁금해 하면서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원가정 보호자가 복귀 절차를 궁금해하고 이를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예시.

원가정 보호자 이제 태호 데려가려고 합니다.

실천가 그러시구나.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저희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니까 꼭 여쭙 봐야겠는데... 전과 뭐가 달라지셨기에 태호를 데려가겠다고 결정하셨나요?

원가정 보호자 그동안은 혼자서 사정도 안 좋았고 그래서 연락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데려가려고 연락한 거죠.

실천가 그러셨구나. 좋은 소식이에요.

원가정 보호자 이제 태호도 다른 애들처럼 부모 다 있는 집에서 살면 되니까.

실천가 정말 반가운 이야기네요. 그럼 혹시 태호도 알고 있나요?

원가정 보호자 아니요. 갠 아직 모르죠. 이제 데리고 가면 새엄마도 소개시키고 해야죠.

실천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원가정 보호자 그럼 언제 데려가면 되나요? 빨리 데려갈 수 있는 거죠?

실천가 저... 근데 아버님 어떡하죠?

원가정 보호자 뭐 왜, 왜요?

실천가 아이를 데려가려면 절차가 있어서...

원가정 보호자 아니 부모가 자기 아이 데려가겠다는데 절차는 무슨 절차요! 아이. 난 그런 거 몰라요.

실천가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원가정 보호자 뭐 그게 뭔데요?

실천가 시에 가서 태호 데려가고 싶다는 서류도 제출하셔야 하고,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도 태호도 새엄마가 생기고 했으니 새엄마와 태호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원가정 보호자 알아가는 거야 같이 살면서 하면 되죠.

실천가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태호와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원가정 보호자 그야 그렇죠.

실천가 그래서요. 그래서 원래 친부모님에게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준비하는 시간을 한 동안 갖거든요. 아무래도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또 조금씩 다른 것도 생기고…

원가정 보호자 그럼 뭐… 준비를 뭘 하는데요?

(중략)

이후 복귀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하고, 원가정 보호자와 아동 면접 등을 통해 복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5 복귀 준비를 회피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위탁가정 보호자가 복귀 준비를 회피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아동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친밀하다면 당연히 헤어지는 것을 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가정 보호자 입장에서 회피하는 것 역시 복귀 준비의 또 다른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복귀 준비를 회피할 만큼 아동을 생각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마음을 지지하면서 아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초기 만남 필수 질문 중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여기서 지낸 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가정위탁하길 잘했구나 아시겠어요?'라는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5 예시.

실천가 이제 명우가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해서 부모님 만나서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위탁가정 보호자 얘기해 주셔서 아는데… 근데 선생님! 명우 꼭 지금 해야 하나요?

실천가 무슨 말씀인지…

위탁가정 보호자 아니 요즘 할 것도 많고… 명우가 우리랑 있으면서 이제 좋은 습관도 잡히고 좀 잘 크다 싶은데… 꼭 지금 가야 하는지…

실천가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시다시피 명우 부모님이 준비가 되셨더라고요. 이모님(위탁 어머니)이 그동안 애쓰신 덕분에 가능했죠.

위탁가정 보호자 아이, 뭐 내가 애썼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그러기로 한 거니까…

실천가 애쓰셨죠. 그래서 명우가 친부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구요.

위탁가정 보호자 가야 하는 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꼭 지금 가야 하는지.

실천가 그럼 언제쯤이 낫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실천가 그동안 명우와 정이 많이 드셨나 봐요. 그러신 거예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무래도 그렇죠…

실천가 그만큼 명우가 여기서 잘 지냈다고 들리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그러니 나도 맘이… 저거 가면 허전할 거 같고…

실천가 당연히 그러시겠죠. 정이 들었는데…

위탁가정 보호자 집에 가는 거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내 맘이 싱숭생숭한 게… 꼭 지금 가야하나 싶고…

실천가 명우가 여기서 꼭 같이 지냈으면 하시는 건가요?

위탁가정 보호자 가긴 가야겠죠.

실천가 여기 좀 더 있으면 명우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위탁가정 보호자 사실 다를 건 없죠. 내 맘이 그렇다는 거죠. 명우야 지 부모랑 빨리 살면 좋겠죠.

실천가 정들어서 아쉬워하시면서도 명우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나도 지 부모 못지않게 아니, 지 부모보다 더 많이 명우 아낀다구요.

실천가 얼마나 아끼시는지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궁금한데요. 명우가 어른이 되어서 여기서 지낸 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가정위탁하길 잘했구나' 아시겠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음… 항상 내 편이었다고 하면…

실천가 그럼 어른이 된 명우한테 '지금 이모(위탁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걸 보면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한참 생각한 후) 집에 갈 준비 잘 도와주면…

(중략)

이후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종료하기의 필수 질문 등을 하면서 복귀를 준비하게 한다.

6 위탁 종료 후 우울해하는 위탁가정 보호자

위탁가정 보호자가 위탁 종료 후 우울해하면 실천가들 역시 걱정하게 된다. 아동과의 관계가 좋았던 위탁 보호자일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위탁 아동과 관계가 좋았다는 것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가정위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천가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우울해하는 것을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보고, 오히려 위탁가정 보호자의 성공을 지지하면서, 이런 경험과 종료할 때의 필수 질문을 활용해 다른 아동을 위탁할 때 더 나은 위탁가정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다.

6 예시.

실천가	그러시겠네요. 정말 잘 돌봐 주셨잖아요.	위탁가정 보호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더니... 집이 온통 빈 거 같아요.
실천가	당연히 그러시겠죠.	위탁가정 보호자	보내고 하루, 이들은 집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괜히 멍하고 눈물도 나고...
실천가	그만큼 형진이와 잘 지냈다는 거죠. 아유 잘 갔다! 속 시원하다! 그럼 잘 못 지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위탁가정 보호자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천가	그러니까 궁금한데... 형진이 돌보시면서 '이런 게 참 보람 있었다'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미소 지으면서) 그것도 그러네요.
실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처음에는 걱정도 됐는데, 그래도 말도 잘 듣고 지내 준 게 감사하죠.
실천가	아이가 잘 하려면 어른이 잘 도와주니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셨기에 형진이가 알아서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위탁가정 보호자	도와줬다가보다 지가 알아서 잘하더라구요.
실천가	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위탁가정 보호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도 아이가 수줍음이 많아서 칭찬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실천가	그러네요. 이모님(위탁 어머니)이 그러셔서...	위탁가정 보호자	사실 나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 건 우리 애들보다 형진이가 더 닮았어요.
실천가		위탁가정 보호자	클 때 '우리 부모님도 칭찬을 더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려고 많이 했고, 형진이 왔는데 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또 더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실천가	그러셨구나... 그럼 형진이한테 '여기서 지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고마웠어요?'라고 물어보면 형진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아마 지도 칭찬받은 거라고 할 거 같아요.
실천가	왜 그래요? 형진이두요?	위탁가정 보호자	네, 그럴 거 같아요.
실천가	그럼 혹시 형진이가 지금 여기서 이모님(위탁 어머니) 지내시는 걸 보고 있다고 상상하시구요. 지금 이모님(위탁 어머니)한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위탁가정 보호자	(눈물을 보이며) ... 잘 지내라고... 잘 지내라 그럴 거 같아요.
실천가	형진이가 이모님(위탁 어머니)이 어떻게 지내는 거 보면 그렇게 지낸다고 알 수 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친구도 만나고, 밥도 잘 먹고.
실천가	네... 그리고 또 더 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는데 다시 라디오를 틀겠죠.
실천가	그리고 또 있나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렇게 지내면 잘 지낸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천가	형진이 가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없어요.
실천가	다시 그렇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그래야죠.
실천가	지금은 형진이 많이 보고 싶어하시는군요...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친구도 만나시고 라디오도 틀고, 밥도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위탁가정 보호자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슬슬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한 주일 후에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맘도 이래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만나러 가야겠네요.

(중략)

위탁가정 보호자의 우울(문제)이 아니라 잘 지낸 것(성공)을 지지할 때 오히려 문제에서 벗어나기 용이하다. 실천가가 위로와 격려를 한다고 하면서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위탁가정 보호자가 인식하는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유의하도록 한다.

초록우산의 아동보호정책 대상자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 1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의 보호를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 2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 3 아동이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하에 진행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한다.
- 4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6 지원의 조건으로 아동에게 재단의 아동보호정책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거나 뇌물 혹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
- 7 정책에 위반하는 자료를 취급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 8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 9 정책 및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사안을 보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고한다.



- 아동보호정책은 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아동보호정책 대상자란 초록우산과 관계를 맺고 아동의 정보를 다루거나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 노혜련·김윤주·김수영·윤민화·정선옥(2022). 원가족 관계개선과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가이드북, 초록우산·서대문구청·송실대학교산학협력단·마실 초록우산 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소식>자료실>발간물)
- 김윤주·최인숙 역(2013). 아동보호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Building Solutions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InsooKim Berg & Susan Kelly(2000),서울: 학지사
- 노혜련·김윤주 공저(2014). 강점관점해결중심 사례관리. 서울: 학지사
- 허남순·노혜련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 『Intwerviewing for solutions(4th Ed.)』, DeJong,P. & Berg,I.K(2013). 서울: 박학사
- 김윤주 저(2020). 학교에서 실천하는 해결중심 접근. E-book, solution-center.org

원가정 관계개선과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가이드북

발행처	초록우산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황영기
편집인	김미경
집필진	솔루션센터 김윤주, 정영숙
참여TF	초록우산 김수정, 신지애, 오지연, 윤경현, 임보옥, 장미희, 전신재, 정소희
주소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전화	02-775-9122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편집디자인	그래픽오션

* 본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초록우산에 있으며 무단으로 복사, 배포, 전제할 수 없습니다.

원가정 관계개선과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가이드북

가정위탁지원센터용

